

정책보고서 2021-60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3803-00000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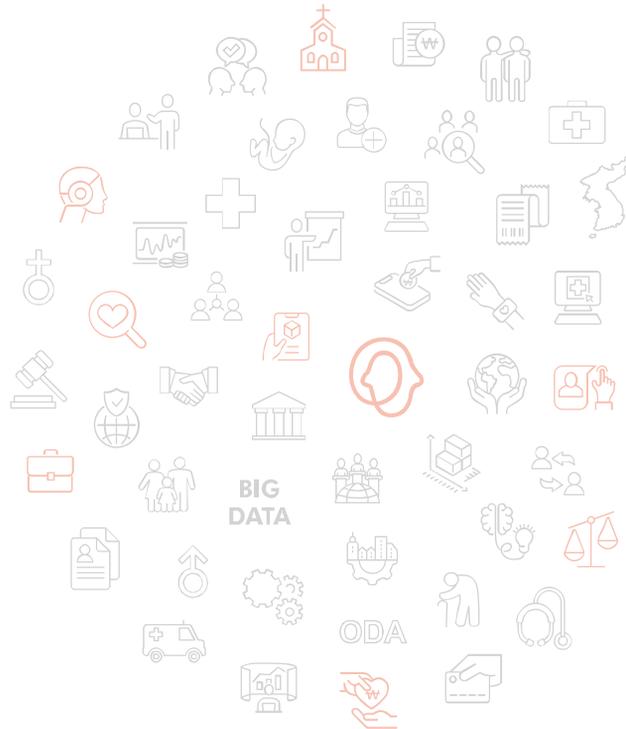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20-21년도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신윤정  
이지혜·임지혜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연구책임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임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 제출문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0-21년도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





## 1부 도입부

<b>제1장 서론</b> .....	<b>3</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	7

## 2부 한국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b>제2장 한국의 가족의 구조</b> .....	<b>15</b>
제1절 가족과 아동 .....	15
제2절 출산 .....	23
제3절 혼인 .....	28
제4절 소결 .....	31
<b>제3장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b> .....	<b>33</b>
제1절 아동 및 가족 유형별 고용 상태 .....	33
제2절 근로 시간 및 돌봄 시간 .....	39
제3절 소결 .....	49
<b>제4장 한국의 가족과 아동 정책</b> .....	<b>51</b>
제1절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정책 .....	51
제2절 자녀 관련 휴가 정책 .....	63
제3절 영유아 자녀 보육 교육 정책 .....	70
제4절 보육 체계 유형 .....	74

●

제5절 소결 .....	76
<b>제5장 한국의 아동의 성과 .....</b>	<b>79</b>
제1절 아동 건강 .....	79
제2절 아동 빈곤 .....	88
제3절 교육 및 문해력 .....	91
제4절 사회참여활동 .....	96
제5절 소결 .....	99

<b>3부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 및 아동 비교 분석</b>
----------------------------------

<b>제6장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의 구조 .....</b>	<b>103</b>
제1절 가족과 아동 .....	103
제2절 출산 .....	109
제3절 혼인과 이혼 .....	119
제4절 소결 .....	125
<b>제7장 아태지역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b>	<b>129</b>
제1절 아동 및 가족 유형별 고용 상태 .....	129
제2절 근로 시간 및 돌봄 시간 .....	136
제3절 소결 .....	141
<b>제8장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과 아동 정책 .....</b>	<b>143</b>
제1절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정책 .....	143
제2절 자녀 관련 휴가 정책 .....	149



제3절 영유아 자녀 보육교육 정책 .....	152
제4절 소결 .....	154
<b>제9장 아태지역 국가의 아동 성과 .....</b>	<b>155</b>
제1절 아동 건강 .....	155
제2절 아동 빈곤 .....	167
제3절 교육 및 문해력 .....	171
제4절 사회 참여 활동 .....	180
제5절 소결 .....	186
<b>결론부</b>	
<b>제10장 결론 및 제언 .....</b>	<b>191</b>
제1절 「2020-21 아태지역 가족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결과 .....	191
제2절 「2020-21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의 발전 방향 .....	200
<b>참고문헌 .....</b>	<b>203</b>

# 표 목차

---

〈표 2-1〉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유형 .....	17
〈표 2-2〉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유형 .....	17
〈표 2-3〉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유형 .....	18
〈표 7-1〉 교육 수준별 고용률 성별 격차 .....	134
〈표 7-2〉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자녀 유무별 출퇴근시간 .....	139
〈표 8-1〉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전하는 법적 연령 .....	147
〈표 8-2〉 아태지역 국가의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 .....	152
〈표 9-1〉 아태지역 국가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수학, 과학 점수의 양성 격차의 변화 (2009년, 2018년) .....	176
〈표 9-2〉 아태지역 국가 학생들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점수의 이민 배경별 차이 .....	179
〈표 9-3〉 아태지역 국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통제 전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점수의 이민 배경별 차이 .....	180
〈표 9-4〉 아태지역 국가의 청소년(15~29세) 사회 참여 활동 .....	181
〈표 9-5〉 아태지역 국가의 종교 단체, 노동조합 참여 정도 .....	182
〈표 10-1〉 한국의 OECD Family database 자료 구축 현황 (2021년 7월 14일 현재) .....	192
〈표 10-2〉 중국의 OECD Family database 자료 구축 현황 (2021년 7월 14일 현재) .....	196
〈표 10-3〉 몽골의 OECD Family database 자료 구축 현황 (2021년 7월 14일 현재) .....	196
〈표 10-4〉 싱가포르의 OECD Family database 자료 구축 현황 (2021년 7월 14일 현재) .....	196
〈표 10-5〉 태국의 OECD Family database 자료 구축 현황 (2021년 7월 14일 현재) .....	197
〈표 10-6〉 베트남의 OECD Family database 자료 구축 현황 (2021년 7월 14일 현재) .....	197
〈표 10-7〉 말레이시아의 OECD Family database 자료 구축 현황 (2021년 7월 14일 현재) .....	197
〈표 10-8〉 인도네시아의 OECD Family database 자료 구축 현황 (2021년 7월 14일 현재) .....	198



[그림 6-1] 아태지역 국가의 평균 가구원 수 .....	104
[그림 6-2] 아태지역 국가의 평균 가구원 수 변화(1970~2020년) .....	104
[그림 6-3] 아태지역 국가의 가구 구성 비중 .....	105
[그림 6-4] 아태지역 국가의 0~17세 아동 가구 유형 비중 .....	106
[그림 6-5] 아태지역 국가의 0~24세 인구의 연령 집단별 비중 (2020년) .....	107
[그림 6-6] 아태지역 국가의 0~14세 아동 수 추이 (2000~2020년) .....	108
[그림 6-7] 아태지역 국가의 유소년 부양비 추이 (1950~2050년) .....	108
[그림 6-8] 아태지역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 (1970, 1995년, 가장 최근 연도) .....	110
[그림 6-9] 아태지역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20년) .....	110
[그림 6-10] 아태지역 국가의 코호트 합계출산율 (1950, 1960, 1970년생) .....	111
[그림 6-11] 아태지역 국가의 순위별 출생아 비중 .....	112
[그림 6-12] 아태지역 국가의 순위별 출생아 비중 (1980년, 가장 최근 연도) .....	112
[그림 6-13] 아태지역 국가의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 .....	113
[그림 6-14] 아태지역 국가의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 (1995년, 가장 최근 연도) .....	114
[그림 6-15] 아태지역 국가의 평균 첫째아 출산 연령 (1960~2020년) .....	115
[그림 6-16] 아태지역 국가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	116
[그림 6-17] 아태지역 국가의 청소년 출산율 추이 (1995, 1970년, 가장 최근 연도) .....	117
[그림 6-18] 아태지역 국가의 혼외 출산율 추이 (1960~2020년) .....	118
[그림 6-19] 아태지역 국가의 무자녀 비중 현황 (1990년대, 가장 최근 연도) .....	119
[그림 6-20] 아태지역 국가의 조혼인율 (1970, 1995년, 가장 최근 연도) .....	120
[그림 6-21] 아태지역 국가의 조혼인율 추이 (1960~2020년) .....	121
[그림 6-22] 아태지역 국가의 초혼 연령 (1990, 2000년, 가장 최근 연도) .....	122
[그림 6-23] 아태지역 국가의 초혼 연령 추이 (1990~2020년) .....	123
[그림 6-24] 아태지역 국가의 조이혼율 (1970, 1995, 가장 최근 연도) .....	124
[그림 6-25] 아태지역 국가의 조이혼율 추이 (1960~2020년) .....	124
[그림 7-1]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 연령별 고용률 .....	131
[그림 7-2] 아태지역 국가의 고용률 성별 격차 .....	132
[그림 7-3] 아태지역 국가의 전체 고용자 중에서 시간제 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 성별 .....	133
[그림 7-4]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 시간제 고용률의 변화 .....	133
[그림 7-5] 아태지역 국가의 관리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	134
[그림 7-6] 아태지역 국가의 임금 성별 격차 (2006, 2010년, 가장 최근 연도) .....	135



[그림 7-7]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 근로 시간 .....	137
[그림 7-8]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 생활 시간생활시간 비중 .....	138
[그림 7-9]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 출퇴근시간 .....	138
[그림 7-10]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 삶의 만족도 .....	140
[그림 7-11] 아태지역 취업별 삶의 만족도 .....	140
[그림 8-1]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144
[그림 8-2] 한국과 일본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연도별 변화 (2001~2018년) .....	144
[그림 8-3] 아태지역 국가의 교육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145
[그림 8-4] 아태지역 국가의 교육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공공지출과 민간지출 .....	146
[그림 8-5] 아태지역 국가의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급여의 소득 대체율 .....	149
[그림 8-6] 아태지역 국가의 부성휴가 기간과 급여의 소득 대체율 .....	150
[그림 8-7] 아태지역 국가의 법적 유급 휴가일 수와 공휴일 수 .....	151
[그림 8-8] 아태지역 국가의 3~5세 유아 교육시설 등록률 및 0~2세 보육시설 등록률 .....	153
[그림 9-1] 아태지역 국가의 영아 사망률·신생아 사망률·후기 신생아 사망률 .....	156
[그림 9-2] 아태지역 국가의 영아 사망률 추이 (1970, 1990, 2000년, 가장 최근 연도) .....	156
[그림 9-3] 아태지역 국가의 영아 사망률 추이 (1970~2020년) .....	157
[그림 9-4] 아태지역 국가의 출생 시 기대여명 .....	158
[그림 9-5] 아태지역 국가의 출생 시 기대여명 추이 (1960~2020년) .....	159
[그림 9-6] 아태지역 국가의 기대여명과 건강조정 기대여명 .....	159
[그림 9-7] 아태지역 국가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 .....	160
[그림 9-8] 아태지역 국가의 저체중아 비중 .....	161
[그림 9-9] 아태지역 국가의 저체중아 비중 변화 (1990년, 가장 최근 연도) .....	161
[그림 9-10] 아태지역 국가의 저체중아 비중 변화 (1968~2019년) .....	162
[그림 9-11] 아태지역 국가의 예방 접종율률 .....	163
[그림 9-12] 아태지역 국가의 예방 접종율률 추이 (1980~2019년) .....	163
[그림 9-13] 아태지역 국가의 모유 수유 경험율경험률 .....	164
[그림 9-14] 아태지역 국가의 제1형 당뇨병 유병율률 .....	165
[그림 9-15] 아태지역 국가의 천식 유병율률 .....	165
[그림 9-16] 아태지역 국가의 청소년 흡연율 .....	166
[그림 9-17] 아태지역 국가의 아동 장애율 .....	167
[그림 9-18] 아태지역 국가의 지니 계수지니계수 .....	168



[그림 9-19] 아태지역 국가의 지니 계수 변화 추이 .....	168
[그림 9-20] 아태지역 국가의 소득 80분위와 소득 20분위의 가처분 소득 비율 (2007, 2014, 2019년) .....	169
[그림 9-21] 아태지역 국가의 아동(0~17세) 빈곤율과 전체 빈곤율 .....	170
[그림 9-22] 아태지역 국가의 아동(0~17세) 빈곤율과 아동(0~17세) 빈곤율과 전체 빈곤율 추이 .....	170
[그림 9-23] 아태지역 국가의 대학 교육 이수율 .....	172
[그림 9-24] 아태지역 국가의 전공 분야별 대학 학위 성별 비중 .....	173
[그림 9-25] 아태지역 국가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수학, 과학 점수 (2018년) .....	174
[그림 9-26] 아태지역 국가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수학, 과학 점수의 양성 격차 (2018년) .....	175
[그림 9-27] 아태지역 국가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점수의 부모 학력 수준별 격차 .....	176
[그림 9-28] 아태지역 국가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점수의 부모 사회경제 수준별 격차 .....	177
[그림 9-29] 아태지역 국가의 NEET 비중 .....	178
[그림 9-30] 아태지역 국가의 NEET 성별 비중 .....	178
[그림 9-31] 아태지역 국가의 지난달 단체 활동 참여 비중 .....	181
[그림 9-32] 아태지역 국가의 국회의원 선거 참여율 .....	183
[그림 9-33]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연령별 선거 참여율 차이 .....	183
[그림 9-34] 아태지역 국가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비중 .....	184
[그림 9-35] 아태지역 국가의 청소년 자살률 (1990, 2000년, 가장 최근 연도) .....	185
[그림 9-36] 아태지역 국가의 청소년 자살률 추이 (1990~2019년) .....	185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1부

## 도입부

제1장 서론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하 아태지역) 국가들의 가족은 변화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가족 변화는 경제 수준과 보건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출산율과 사망률이 하락하는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이 있다. 과거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 문화적 변화도 가족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치적인 환경 변화 역시 가족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경제 개발이 이루어진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출산율의 하락은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유형의 변화로 이어졌다. 가족의 유형적인 변화는 가족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돌봄 기능과 같은 가족 관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출산율 하락에 따라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가사를 도맡았던 여성들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아태지역 선진 국가인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변화는 아직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다른 아태지역 국가에서도 머지않은 장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국과 태국에서는 이미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동반하여 나타난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출산율과 사망률 변화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는 국가마다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족의 변화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인구학적 변화보다 가족이 한 나라의 역사, 문화, 전통, 그리고 가치 체계와 상호 작용하여 더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출산율과 사망률 등 인구학적 변화가 나타났고 이로 인한 가족의 변화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 변화를 보였다. 동거혼 부부가 많아지고, 가족 해체로 인해 한부모 혹은 재구성된 가족들이 등장하

게 되자 전통적인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된 가족을 사회적인 지원 체계 안으로 포함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다. 가족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가족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을 건강하게 돌보기 위한 정책도 강구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 혹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게 되자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였다. 예상되는 미래 인구 감소에 따라 1인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에 대해 보다 많은 투자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국가의 가족 변화와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OECD는 주요 회원국의 저출산과 가족 구조 그리고 가족 정책에 대한 현황을 “Babies and Bosses”(OECD 2002; OECD 2003; OECD 2004; OECD 2005; OECD 2007) 보고서 시리즈의 발간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 시리즈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OECD는 2006년 말에 주요 유럽 지역의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OECD Family database를 최초로 공개하였다. 이후 2008년에는 새로운 지표들을 포함하여 23개 지표를 추가적으로 공개하였다. OECD 사무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OECD Family database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OECD는 OECD Family database의 자료를 기초로 “Doing Better for Children”(OECD, 2009)과 “Doing Better for Families”(OECD, 2011) 보고서를 마련하여 각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족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족 및 아동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였다.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OECD Family database에는 한국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OECD Family database가 마련된 초기에는 OECD Family database에 포함된 한국 자료가 매우 부족하였다.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가족과 아동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OECD Family database 내의 한국 자료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OECD Family database on Korea”를 발간하여 OECD Family database에 보다 많은 한국 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 제언을 제공하였다(신윤정, 김현식, 이지혜, 2012). 이후 한국 정부, 연구 기관, 그리고 학계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 Family database에서의 한국 자료는 현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는 아태지역 내 OECD 회원 국가인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아태지역 국가들에서도 인구 구조 변화와 가족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도 가족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아태지역에서 가족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 변화와 가족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태지역에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 체계에 따라 가족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 국가의 가족 변화와 가족 정책 현황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신윤정·유재연·김혜영·윤자영, 2013). 그 이듬해에는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아태지역에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국가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신윤정·송민영·조영태·Stuart Basten, 2014). 2018~2019년도에는 아태지역에서 아직은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가족 자료를 수집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수집된 아태지역의 가족 자료를 기초로 하여 OECD는 2017년도와 2019년도에 “OECD Family database in the Asia-Pacific Region”(OECD, 2017; OECD, 2019a)을 발간하였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족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아태지역 가족에 대한 비교 연구가 어느 정도 수행되었다. 그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족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전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진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태지역의 인구 변화에 따라 도래하고 있는 가족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관찰하고 각 국가가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는 보다 많은 발전과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보다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태지역에서 저출산을 경험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출산율이 인구체수준 이하로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까지 자료 수집을 위한 대상 국가가 확대되었다. 아태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족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은 사회복

지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아태지역의 현실 하에서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이다. 가족 정책의 확대를 위해서는 가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가족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하며, 아태지역 선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족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국가의 가족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신규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아태지역의 자료는 영어로 소개되어 있지 않고 내국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따라서 자국에서는 업데이트되었으나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가 많을 수 있다. 아태지역 국가 전문가를 활용하여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여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아태지역 국가 내에서 수행된 최신의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최근 아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 변동을 보다 잘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신력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아태지역 가족 자료를 구축하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해당 국가의 통계청 등 국가 기관이 발표하는 자료이다.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신규 자료를 수집할 때 이러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자국 내에서 수집한 조사 자료를 활용할 때는 해당 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인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상에 한해서만 이루어진 조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자료도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지만, 자국 내의 유사한 통계가 있는 경우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자료와 비교하여 어느 자료를 더 신뢰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수집 체계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 OECD Family database는 지표의 정의와 방법론, 주요 결과,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출처 및 참고문헌의 체계로 각 지표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아태지역 가족 자료도 이러한 체계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제공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해당 지표의 자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발견된 현상은 무엇이며, 자국의 자료를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이슈가 되는 사항과 해당 지표의 자료를 생산할 때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아태지역에서 가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

국, 중국, 일본, 몽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OECD 지표 체계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별 가족 데이터베이스를 수집 및 갱신하여 아태지역의 가족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OECD Family database의 자료 수집 체계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자료 수집을 요청하고 제출된 자료에 기반하여 2020-21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자 한다. 각 국가로부터 수집된 자료가 OECD Family database 지표의 정의에 맞게 수집되었는지, 지표의 자료를 마련할 때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는지, 제공된 자료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보다 양질의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도록 하였다. 구축된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다수의 국가가 제공한 지표를 중심으로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가 구축한 2020-21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 데이터베이스는 OECD가 Family Database in the Asia-Pacific Region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 1. 연구 방법

#### 가.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위한 틀

본 연구는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각 국가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초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초 틀은 각 국가의 가족 자료를 입력한 엑셀(Excel) 파일과 각 국가의 자료 작성 방식을 기록할 보고서, 두 가지로 구성된다.

아태지역 가족 자료를 입력할 엑셀 파일은 2021년 3월 1일 현재의 OECD Family database와 동일한 양식으로 구성하였다. OECD Family database의 체계에 따라 가족의 구조(SF: Structure of Family),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LMF: Labor Market Position of Family), 가족과 아동 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아동 성과(CO: Child Outcomes) 폴더를 구성한 후 각 폴더에 해당 지표별로 엑셀 파일을 구축하고, 각 지표의 엑셀 파일에는 표와 도표의 시트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표와 도표에 본 연구에 참여하는 국가명을 기입하고 각 국가의 자료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각 국가의 자료 작성 방식 보고서는 OECD Family database의 자료 수집 방식과 동일한 유형으로 마련하였다. OECD Family database의 각 지표에 대해 “정의 및 방법론”, “주요 결과”,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출처 및 참고문헌”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 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각 국가가 어떠한 정의에 따라 각 지표의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자료 수집 시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는지, 각 국가의 자료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료 작성 방식 보고서의 결론에는 2018-19년도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자료가 업데이트되었으며, 각 국가의 가족 자료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가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 나.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 자료 수집

자료를 입력할 엑셀 파일과 자료 작성 방식 보고서 양식을 본 연구에 참여하는 국가별 전문가에게 송부하여 각 국가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데이터 입력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세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이러한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기 수집된 “2018-19년도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동 자료를 참고하여 보다 최근 연도의 자료가 있거나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지표의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를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OECD가 구축한 “2019 Family Database in the Asia-Pacific Region” 자료를 함께 제공하였다. OECD는 “2018-19년도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UN, World Bank, WHO 자료를 참고하여 “2019 Family Database in the Asia-Pacific Region”을 구축하였다. 각 국가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국제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참고하여 자국 내에서 더 적절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국 내의 자료로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자국의 자료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

에 기술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도 다른 참여 국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엑셀 파일에 최근의 한국 자료를 업데이트하였으며, 이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자료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일본은 OECD 회원국으로서 OECD Family database에 최근의 자료가 보고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자료 수집을 위한 요청을 하지 않고 OECD Family database에 나와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에 참여한 각 국가의 전문가의 이름과 소속은 다음과 같다.

- 중국: Chunhua Ma, Institute of Sociology,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 몽골: Enkhtsetseg Byambaa,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 싱가포르: Paulin Straughan, Centre for Research on Successful Ageing,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 태국: Truc Ngoc Hoang Dang,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Social Research, Mahidol University
- 베트남: Dang Nguyen Anh,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Social Research, Mahidol University
- 말레이시아: Abdul Rahman Embong, Institute of Malaysian and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Kebangsaan Malaysia
- 인도네시아: Puguh Prasetyoputra,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Research Center for Population

#### 다. 2020-21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

각 국가의 전문가가 자국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보내온 엑셀 파일과 자료 작성 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 “2020-21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각 국가의 자료를 하나의 엑셀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OECD 지표의 정의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둘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는지, 셋째,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 혹은 데

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는지, 넷째, 데이터의 수치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는지, 다섯째, 자료의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자료를 수정하였다.

각 국가별로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 중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지표, 부분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지표,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지표로 구성하여 해당 국가가 OECD Family database의 전체 지표 중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 라. 아태지역 가족 비교 연구

본 연구가 구축한 “2020-21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아태지역 가족 비교 연구를 수행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가 모든 지표에 대해 자료를 제공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국가들이 자료를 제공한 지표, 둘째, 국가 통계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한 지표, 셋째, 가장 최근 연도의 자료를 활용한 지표를 중심으로 비교 대상 지표를 선정하였다. 각 국가별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지표들은 대부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최근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각 영역별로 핵심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국가 간 자료의 비교는 도표를 통해 각 국가 간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해당 내용을 기술하였다. 국가 간의 발견되는 차이를 기술함과 동시에 어떠한 공통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공통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비교 대상 아태지역 국가들을 그룹화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도입부, 2부 한국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3부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 비교 분석, 결론부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는 서론으로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을 기술하였다. 연구 방법에는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방법론과 동 자료를 이용하여 아태지역 가족 비교 연구를 수행한 방법론을 기술하였다.

2부 한국 가족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은 “2020-21년도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한국 자료를 업데이트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주요 내용은 본 연구가 각 국가에게 자료 제공 요청을 할 때 함께 요구한 자료 작성 방식에 따라 마련한 한국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OECD Family database의 대분류인 가족의 구조,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가족과 아동 정책, 아동 성과를 각 장으로 구성하여, 각 장에 해당하는 모든 지표에 대해 한국 자료를 구축한 상황을 “정의와 방법론”, “주요 결과”,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출처 및 참고문헌”에 따라 작성하였다. 각 장의 소결에서 해당 장의 한국 자료를 구축한 현황과 한국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다.

3부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 비교 분석은 본 연구가 구축한 “2020-21년도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하여 아태지역의 가족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OECD Family database의 대분류인 가족의 구조,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가족과 아동 정책, 아동 성과 영역으로 각 장을 구성하여 아태지역의 현황을 주요 지표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가 갖는 함의는 각 장의 소결에 정리하였다.

결론부는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을 기술하였다. 제1절 결론에서는 “2020-21년도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한국 자료를 수집한 결과와 아태지역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OECD Family database에 한국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주요한 이유를 기술하고, 보다 풍부한 한국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제2절 제언에서는 “2020-21년도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보다 양질의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 2부

### 한국 가족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

제2장 한국의 가족의 구조

제3장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제4장 한국의 가족과 아동 정책

제5장 한국의 아동 성과



---

## 제 2 장      한국의 가족의 구조

---

OECD Family database의 첫 번째 대분류인 가족의 구조는 가족과 아동(Family and Children), 출산 지표(Fertility Indicators), 혼인 및 파트너십(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의 세 가지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과 아동에서는 가족원 수와 가족 유형, 아동 인구수와 유소년 부양비, 아동의 생활 환경과 관련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출산 지표에는 출산율, 이상적인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자녀 출산연령과 연령별 출산율, 혼외출산율, 무자녀, 혼인율과 이혼율, 자녀가 있는 가족의 해체, 동거와 다양한 유형의 파트너십, 가족폭력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가족의 구조의 지표에 포함된 표와 도표 수는 총 70개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표와 도표의 한국 자료 현황을 검토하고 가용한 한국 자료를 이용하여 업데이트를 수행하였다.

### 제1절 가족과 아동

#### 1. SF1.1 Family size and composition

##### 가. 정의와 방법론

본 절의 주요 지표는 전체 가구(All households)의 평균 가구원 수, 부모와 25세 미만 자녀(Couple households with children)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 부 또는 모와 25세 미만 자녀(Single parent households with children)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 6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다. 동 지표에서 자녀는 25세 미만의 가구주의 자녀로 생물학적인 자녀와 의붓 또는 입양 자녀를 모두 포함한다.

## 나. 주요 결과

2015년 가구 전체 평균 가구원 수는 2.43명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65명이고,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1명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0.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 없이 부부만 거주하는 경우의 비중은 8.29%이다. 부와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는 2.18%로 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8.80%보다 낮았으며, 1인 가구의 비중은 37.30%로 나타났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2015년의 가구 유형 정의를 기준으로 2010, 2005년도의 자료도 동일하게 분석하였다. 'living with two parents(Couple households)'는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이다. 'living sole parents(Single parent households)'는 부 또는 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가 한부모라고 볼 수 없는데 부모 중 1인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Other household types'는 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모든 유형의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OECD Family database 지표의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 센서스(인구총조사)의 가구 유형 구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부 또는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에서 한부모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양친, 부부 등 용어를 일관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가구원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2010년 이전 자료에서는 가구원 수를 제공하였으나, 2015년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가구원 수를 데이터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2-1〉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유형

OECD Family database의 가구 유형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유형
living with two parents (Couple households)	2세대가구-부부+미혼자녀
living sole parents (Single parent households)	2세대가구-부+미혼자녀 2세대가구-모+미혼자녀
Other household types	1세대가구-부부+미혼형제자매 1세대가구-부부+기타 친인척 1세대가구-가구주+미혼형제자매 1세대가구-가구주+기타 친인척 1세대가구-기타 2세대가구-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2세대가구-조부모+미혼손자녀 2세대가구-한조부모+미혼손자녀 2세대가구-기타 3세대가구-부부+미혼자녀+양친 3세대가구-부부+미혼자녀+부 3세대가구-부부+미혼자녀+모 3세대가구-기타 4세대이상가구 비친족가구
Single person households	1인가구

자료: 통계청. (2021d). 인구주택총조사, 2015.

〈표 2-2〉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유형

OECD Family database의 가구 유형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유형
living with two parents (Couple households)	부부+미혼자녀
living sole parents (Single parent households)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Other household types	부부+미혼 형제자매 부부+기타친인척 가구주+미혼형제자매 가구주+기타친인척 1세대 기타 부부+미혼자녀+부부의 미혼형제자매 조부모+미혼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2세대 기타 부부+미혼자녀+양친 부부+미혼자녀+부친 부부+미혼자녀+모친 3세대기타 4세대 이상 집단가구
Single person households	1인가구

통계청. (2021c). 인구주택총조사, 2010.

〈표 2-3〉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유형

OECD Family database의 가구 유형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유형
living with two parents (Couple households)	부부+자녀
living sole parents (Single parent households)	부+자녀 모+자녀
Other household types	부부+형제자매 부부+기타 친인척 가구주+형제자매 가구주+기타 친인척 1세대 기타 부부+자녀+부부형제자매 조부모+손자녀 2세대 기타 부부+자녀+양친 부부+자녀+한부모 3세대 기타 4세대이상
Single person households	1인가구

자료: 통계청. (2021b). 인구주택총조사, 2005.

## 라. 출처 및 참고 문헌

통계청. (2021b). 인구주택총조사, 2005.

통계청. (2021c). 인구주택총조사, 2010.

통계청. (2021d). 인구주택총조사, 2015.

## 2. SF1.2 Children in families

### 가. 정의 및 방법론

주요 지표는 전체 0~17세 아동 중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의 비중, 한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의 비중, 기타 유형(아동 혼자 사는 1인 가구, 조손 가족 등)에서 살고 있는 아동 비중이다. 자녀는 가구주의 자녀이다.

## 나. 주요 결과

0-17세 아동 중,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74.9%이며, 한부모(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경우의 비중은 9.0%로 나타났다. 그 외 아동 혼자 거주하는 경우, 조손가구에서 살고 있는 비중은 16.1%를 차지했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약 75%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부모와 사는 비중은 2005년 7.8%에서 2015년 9.0%로 약간 상승하였다. 다른 유형의 가족과 함께 사는 아동의 비중은 2010년 20.4%에서 2015년 16.1%로 하락하였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인구센서스에서는 법적 혼인관계와 동거를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을 법적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모와 사는 아동과 동거 중인 부모와 사는 아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 어렵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통계청. (2021b). 인구주택총조사, 2005.

통계청. (2021c). 인구주택총조사, 2010.

통계청. (2021d). 인구주택총조사, 2015.

### 3. SF1.3 Further information on living arrangement of children

#### 가. 정의 및 방법론

본 절은 0~17세 아동을 0~5세, 6~11세, 12~17세의 연령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부모(법적 혼인 및 동거), 한부모, 기타 유형의 가구에서 사는 비중을 비교한다. 또한 0~17세 아동을 빈곤 가구 및 빈곤하지 않은 가구로 나누어 부모(법적 혼인 및 동거), 한부모, 기타 유형에서 사는 비중을 비교한다. 0~7세 아동을 모의 교육 수준별 세 집

단으로 나누어 부모와 사는 아동과 한부모와 사는 아동의 비중을 비교한다.

## 나. 주요 결과

모든 연령 집단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기타 유형 가구에서 사는 비중이 높고, 한부모와 사는 비중이 가장 낮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한부모 특히 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기타 유형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비중은 아동 연령 집단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중(92.88%)이 높게 나타났으며, 모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모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20.56%).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인구센서스는 소득 정보 제공하지 않아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과 빈곤 상태에 있지 않은 아동의 가구 유형을 구분하기 어렵다. 다른 샘플조사를 활용할 수 있으나, 아동의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OECD는 모의 교육 수준을 ISCED 2011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인구센서스의 학력 정보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졸업 미만을 저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서 대학 졸업 미만을 중간 학력,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을 고학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센서스는 혼인 관계에서 재혼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step-family(재혼 가족)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을 파악하기 어렵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통계청. (2021d). 인구주택총조사, 2015.

#### 4. SF1.4 Population by age of children and youth dependency ratio

##### 가. 정의 및 방법론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2019)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표의 정의와 방법론은 OECD Family database 정의와 동일하다. 「인구주택총조사 2015」(통계청, 2021d) 혹은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청, 2020a)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UN 자료를 사용하였다.

##### 나. 주요 결과

0~24세 인구를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인구 비중으로 나누어 보면 0~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다. 한국 사회에서 심화된 저출산 현상에 따라 아동 인구수가 점차 감소했기 때문으로 본다. 2000년의 0~14세 인구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0~14세 인구 규모는 최근 연도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다. 아동 수의 감소에 따라 유소년 부양비도 감소하였다. 20~64세 인구 백 명당 0~20세 인구수는 1950년에 66.74명이었으나 2020년에 38.57명으로 감소하고 2050년까지 약 38.74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인구주택총조사 2015」(통계청, 2021d),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청, 2020a) 자료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UN 자료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 5. SF1.5 Living condition of children

### 가. 정의 및 방법론

OECD Family database는 Eurostat의 정의에 따라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밀집된 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① 가구당 하나의 방, ② 가구의 성인 커플당 하나의 방, ③ 18세 이상 성인 1명당 하나의 방, ④ 12~17세 같은 성을 가진 2명의 가구원당 하나의 방, ⑤ 상기의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12~17세 개인당 하나의 방, ⑥ 12세 아동 2명당 하나의 방

2015년 인구센서스에는 사용하는 방 수(잠을 자는 방), 총 방수(방)에 대한 정보가 있으나 밀집된 가구에서 살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표를 산출하기 어렵다. 전체 0~17세 아동 중 욕실에 없거나 화장실이 재래식인 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부는 파악이 가능하다.

### 나. 주요 결과

2015년 욕실이 없거나, 화장실이 재래식인 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0-17세)의 비율은 0.53%로 낮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인구센서스 가구 조사에서 밀집된 가구에서 살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구에서 살고 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가구 유형을 부모, 한부모, 부모 없음, 이민 여부, 가구 소득 수준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어 인구센서스에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가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통계청. (2021d). 인구주택총조사, 2015.

## 제2절 출산

### 1. SF2.1 Fertility rates

#### 가. 정의 및 방법론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다. 이는 국제적인 정의 및 OECD Family database 정의와 동일하다. 1950년생, 1960년생, 1970년생의 완결 코호트 출산율은 2015년 센서스를 기준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완결 코호트 출산율은 1950년생은 65세, 1960년생은 55세, 1970년생은 45세가 되었을 때까지 낳은 평균 자녀 수이다.

#### 나. 주요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도에 4.53명으로 높았으나 1995년 1.63명으로 하락하였고 2020년 0.84명으로 잠정 추정되었다. 합계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여성들이 평생동안 낳는 자녀 수도 감소하였다. 1950년도에 출생한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2.6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1960년도에 출생한 여성은 평균적으로 1.9명을 낳고 있으며, 1970년 출생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7명의 자녀를 낳고 있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첫째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41.2%에서 2018년 55.7%로 상승하였다. 반면에 셋째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25.2%에서 2018년 8.5%로 크게 하락하였다. 2019년 현재 전체 출생아 중에서 첫째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7%, 둘째아는 35.8%, 셋째아 이상은 8.5%이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측정되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 문헌

통계청. (2021d). 인구주택총조사, 2015.

통계청. (2021e).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11. 12. 7). 장래인구추계: 2010~2060.

## 2. SF2.2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 가. 정의 및 방법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 조사」(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18)에서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산출하였다.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자녀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2015」(통계청, 2021d)의 총 자녀 수와 “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 있습니까?”에 그렇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계획 자녀 수를 기초로 산출하였다.

### 나. 주요 결과

기혼 여성(15~49세) 중 이상 자녀 수를 2명으로 응답한 여성들의 비중이 63.7%로 가장 높았다.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여성의 비중은 21.1%로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1명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9.8%, 0명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0.3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여성(25~39세)이 낳은 평균 자녀 수는 1.71명이었으며 추가적으로 낳기를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는 0.25명이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낳기를 기대하는 자녀 수는 1.96

명으로 나타났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 조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를 조사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 OECD Family database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를 학력 수준별, 근로 상태별로 비교하고 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 조사」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와 함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를 측정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와의 차이도 산출할 필요가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통계청. (2021d). 인구주택총조사, 2015.

### 3.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 가. 정의 및 방법론

모의 자녀 출산연령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제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 나. 주요 결과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2020년 33.1세로 27.9세였던 1995년에 비해 5세 이상 높아졌다.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도 1995년 26.5세에서 2017년 32.3세로 높아졌다. 15~19세 청소년 1,000명당 출산아 수는 1995년 3.7명에서 2017년 0.7명으로 상당 수준 하락하였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국제적인 정의와 일치하므로 OECD 국가와 비교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통계청. (2021e).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21. 2. 24).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United Nations. (2019). World Fertility Data 2017.

### **4. SF2.4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 **가. 정의 및 방법론**

혼외출산율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제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 **나. 주요 결과**

혼외출산율은 1995년 1.2%에서 2019년 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국제적인 정의와 일치하므로 OECD 국가와 비교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통계청. (2021e). 인구동향조사.

## 5. SF2.5 Childlessness

### 가. 정의 및 방법론

무자녀 여성 비중은 가임 기간이 거의 완료된 40~44세 여성 중에서 자녀가 없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1935, 1940,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년 출생 여성 중 무자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가지고 산출하였다.

### 나. 주요 결과

자녀가 없는 여성(40-44세)의 비중은 1990년 2.69%였으나 2015년 15.43%로 약 5.7배 증가하였다. 1935년~1970년(5년 간격) 출생한 여성 중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출생한 여성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다. 1970년에 출생한 여성 중의 완결 출산율은 1.72명이며,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중은 11.8%이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국제적인 정의와 일치하므로 OECD 국가와 비교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통계청. (2021a). 인구주택총조사, 1990.

통계청. (2021d). 인구주택총조사, 2015.

통계청. (2019. 3. 28.).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 제3절 혼인

### 1. SF3.1 Marriage and divorce rate

#### 가. 정의 및 방법론

조혼인율, 평균 초혼 연령, 조이혼율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결과를 가지고 산출하였다. 따라서 국제적인 정의에 부합한다.

#### 나. 주요 결과

1970년대 이후 현재 시점까지 조혼인율은 낮아지고, 조이혼율은 높아졌다. 1970년에 비해 2019년도에 조혼인율은 약 2배 낮아졌고, 조이혼율은 5배 이상 높아졌다. 여성과 남성의 초혼연령은 증가 추세에 있다. 여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에 24.8세였으나 2020년 30.8세로 상승하였으며, 남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 27.8세에서 2020년 33.2세로 상승하였다. 결혼한 사람의 대부분은 초혼이며(82.1%), 이혼하여 재혼한 사람은 16.7%, 사별하여 재혼한 사람은 1.1%로 나타났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국제적인 정의와 일치하므로 OECD 국가와 비교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통계청. (2021e). 인구동향조사.

## 2. SF3.2 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 가. 정의 및 방법론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자 비중과 자녀 유무별 이혼자 비중은 통계청 인구 동향의 정의를 따랐다. 16세 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 중 이혼한 비중과 16세 이상 자녀가 없는 부부 중 이혼한 비중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2018) 자료를 가지고 산출하였다.

### 나. 주요 결과

이혼한 사람을 혼인 기간별로 보면 혼인한 지 20년 이상이 된 부부가 34.7%로 가장 높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부는 혼인한 지 5~9년 된 부부, 1~4년 된 부부이다.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이혼한 부부 중에서 혼인한 지 1~4년 된 부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0년 말부터 혼인한 지 20년 이상이 된 부부의 비중이 점차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혼한 부부 중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가 53.6%로 자녀가 있는 부부보다 많다.

세계가치관 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가 있는 부부 중에서 이혼한 부부의 비중은 2010년대 초반까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세계가치관 조사는 샘플 수가 매우 적어서 16세 자녀를 가진 부부 중 이혼한 부부의 비중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부부 중 이혼한 부부의 비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인구센서스 혹은 전국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자료를 가지고 동지표의 자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통계청. (2021e). 인구동향조사.

World Values Survey. (2018). World Values Survey Wave7, 2017-2020.

### 3. SF3.3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한국의 인구센서스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사실혼 관계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법적인 혼인 관계인지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부 중 동거 부부의 비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 4. SF3.4 Intimate partner violence

#### 가. 정의 및 방법론

동 지표의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산출하였다.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신체적 폭력 7개 문항, 성적 폭력 5개 문항, 경제적 폭력 4개 문항, 정서적 폭력 6개 문항의 총 22개 문항을 기준으로 가정폭력 경험을 조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19세 이상 여성 중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 혹은 성적 폭력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 비중, 19~64세 여성 중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중을 살펴본다.

#### 나. 주요 결과

여성(19세 이상) 중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중은 10.5%로 나타났다. 여성(19~64세) 중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중은 3.8%로 나타났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OECD Family database는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 경험에 대해 여성의 연령을 18~74세를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여성의 연령을 15~4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가정 폭력실태조사는 전체 19세 이상, 19~65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어 연령 기준이 OECD Family database와 다르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2019).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http://kosis.kr>.

OECD. (2019b).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 제4절 소결

가족의 구조에 해당하는 총 70개 표와 도표 중에서 한국 자료가 모두 제공이 가능한 지표는 45개(64.3%), 부분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지표는 11개(15.7%), 제공이 불가능한 지표는 14개(20.0%)로 나타났다.

자료 생산이 불가능한 주된 이유는 인구센서스가 부부를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동거 부부로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센서스가 “밀집된 가구”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것도 해당 지표의 자료 생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인구센서스가 소득 수준을 조사하지 않아 소득 수준별로 가구 유형을 분석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조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를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조사하고 있고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조사하지 않아 해당 지표의 자료 생산이 어렵다.

합계출산율과 자녀 출산 평균 연령에 대한 자료가 1975년부터 제공되고 있어 보다 장기적인 추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인구동향의 출산 자료가 1970년대부터 공개될 필요가 있다.

가구유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센서스의 “세대 유형” 변수를 보다 명확하게 개념화하고, 변화되고 있는 한국의 가구 유형을 고려하여 세대 유형이 최근의 가구 구조 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세대 가구+부+미혼자녀”와 “2세대 가구+모+미혼자녀”에서 법정 한부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부 가구의 경우 재혼한 가족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UN의 인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아동의 수와 유소년 부양비가 한국의 인구총조사 및 장래인구추계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 비교를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World Value Surveys의 한국 자료는 조사 대상자 수가 적어서 자료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 중 이혼한 사람 비중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부부 중에서 이혼한 사람 비중은 국내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해야 할 것이다.

## 제 3 장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OECD Family database의 두 번째 대분류인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상태는 “가족, 아동 근로상태(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근로 시간 및 돌봄 시간(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의 두 가지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아동, 근로 상태”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근로 상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근로 상태, 배우자 유형별 여성의 근로 상태, 연령별 취업률, 성별 임금 격차, 노동시장 성과의 성별 격차와 관련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 시간 및 돌봄 시간”에는 근로 시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근로 시간, 한부모의 근로 시간, 가족친화적 근로 형태, 돌봄 및 가사 노동 시간, 출퇴근 시간,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상태의 지표에 포함된 표와 도표 수는 총 99개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표와 지표의 한국 자료 현황을 검토하고 가용한 한국 자료를 이용하여 업데이트를 수행하였다.

### 제1절 아동 및 가족 유형별 고용 상태

#### 1. LMF1.1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취업자의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 통계 자료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가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 매뉴얼에 따라 취업자를 정의한다. 취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또는 동일 가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 분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이다.

가구 조사가 아닌 개인 단위의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는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두 조사 모두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가족원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동 정보는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스크리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두 자료를 가지고서는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일하지 않는 성인 가구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OECD Family database 지표인 가구의 취업 유형별로 0~14세 아동의 비중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달리 가구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원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을 조사표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녀수별 모의 고용률과 자녀 연령별 모의 고용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고용조사」는 가구원 명부의 정보를 데이터화 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가구 유형별 고용률 지표의 생산을 위해서 가구원 명부의 정보를 데이터화 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2. LMF1.2 Maternal employment

### 가. 정의 및 방법론

통계청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5~54세 기혼 여성(유배우, 이혼, 사별 포함)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 고용률은 자녀 연령을 6세 이하, 7~12세, 13~17세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녀 수를 1명, 2명, 3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여성 고용률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들의 평균 근로 시간을 자녀 연령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근로 여성(유배우, 이혼, 사별 포함)의 수를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의 학력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 나. 주요 결과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15~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5%에서 유지되고 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50% 이하로 낮고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17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65% 이상의 수준을 보인다. 자녀 수에 따른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의 고용률이 57.1%인데 반해,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51%로 낮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OECD Family database는 여성의 연령을 15~64세 경제활동연령과 25~54세 연령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통계청 자료는 15~54세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OECD Family database의 연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OECD Family database는 자녀의 연령을 0~14세로 하고 있는데 한국 통계청은 0~18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자녀의 연령 집단을 OECD Family database는 0~2세 (영아), 3~5세 (유아), 6~14세 (취학 연령 아동)로 구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0~6세 (미취학), 7~12세, 13~17세로 구분하고 있다.

OECD Family database는 종일제 고용률, 시간제 고용률, 근로시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고용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은 자녀 연령별 주당 평균 근로 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OECD Family database는 학력별 고용률(저학력 여성의 고용률, 중간 학력 여성의 고용률,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통계청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근로 여성 수를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의 수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OECD Family database는 국적 유무별 모성 고용률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은 국적 유무별 모성 고용률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OECD Family database는 0~2세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률을 휴직 중이 아닌 여성, 산전산후휴가 중인 여성, 부모 휴가 중인 여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통계청은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한국 통계청의 모성 고용률 자료가 OECD Family database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여성의 연령을 15~64세 경제활동 연령과 25~54세 연령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연령도 0~14를 기준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연령 집단도 0~2세 (영아), 3~5세 (유아), 6~14세 (취학 연령 아동)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로

시간, 학력, 휴직 상태별 고용률 자료도 추가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통계청. (2021f).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21g). 지역별 고용조사.

### 3. LMF1.3 Marte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기혼 여성은 유배우, 이혼, 사별을 모두 포함한 여성들이다. 유배우자와 한부모(이혼 혹은 사별)를 따로 구분하여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OECD Family database에 부합하는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혼 여성을 유배우자와 한부모로 구분하여 고용률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4. LMF1.4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 가. 정의 및 방법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성별 연령별 고용률과 실업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수준과 관련해서는 성별 교육 수준별 고용률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성별 연령별 교육 수준별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 나. 주요 결과

남성의 고용률은 25~29세까지 상승하고 그 이후에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50세 이후부터 하락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30세 이후에 하락하고 40세부터 다시 증가하는 전형적인 M자형 모형이 2020년에

도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실업률은 30~50대에 약 2~3% 정도의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60~64세에 남성의 실업률은 4%로 약간 상승하지만 여성의 실업률은 3%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성별 연령별 고용률을 교육 수준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고용률 자료를 교육 수준별로 구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통계청. (2021f). 경제활동인구조사.

### 5. LMF1.5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 가. 정의 및 방법론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Employment Database의 정의를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중위 임금의 차이를 남성의 중위 임금으로 나눈 수치로 정의하였다.

#### 나. 주요 결과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40%를 차지하던 성별 임금 격차는 2000년대 중반에 30%대로 하락하였으며 2019년 현재 32.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중간 정도의 학력 수준을 가진 집단이 저학력 혹은 고학력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자료는 OECD 통계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어 OECD 국가 간에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OECD. (2021e). Employment database.

OECD. (2019c). Education at a Glance, 2019.

## 6. LMF1.6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 가. 정의 및 방법론

본 지표의 자료는 OECD Employment database에서 한국 자료를 추출하였다. 따라서 고용률, 종일제 기준 고용률, 시간제 고용률, 여성 관리자 비중, 임시직 고용률에 대한 정의는 모두 OECD 기준에 부합한다.

### 나. 주요 결과

2019년 현재 남성의 고용률은 75.7%, 여성의 고용률은 57.8%로 남성의 고용률이 17.9% 포인트 더 높다. 종일제로 고용률을 환산하면 남성의 고용률은 82.6%로 상승하나, 여성의 고용률은 55.2%로 감소한다. 이는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이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종일제로 환산한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27.4%로 종일제로 환산하지 않은 경우보다 성별 격차가 더 커진다.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남성과 여성 모두 2015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증가폭은 여성이 남성보다 크다. 남성 시간제 고용의 비중은 2005년 6.4%에서 2018년 7.8%로 약 1.4% 포인트 증가한 반면에, 여성 시간제 고용의 비중은 2015년 12.4%에서 2018년 18.2%로 약 5.8% 포인트 증가하였다.

고용률 성별 격차는 저학력(14.4%) 보다 중간 학력(21.8%) 혹은 고학력(21.5)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일시적인 고용 상태에 있는 비중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여성 중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은 2010년 9.4%에서 2019년 15.4%로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국제적인 정의와 일치하므로 OECD 국가와 비교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OECD. (2021e). Employment database.

### 제2절 근로 시간 및 돌봄 시간

#### 1. LMF2.1 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 가. 정의 및 방법론

본 지표의 자료는 OECD Employment database에서 한국 자료를 추출하였다. 따라서 고용률 및 근로 시간에 대한 정의는 모두 OECD 기준에 부합한다.

##### 나. 주요 결과

2019년 현재 남성 취업자 중에서 82.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당 40시간 혹은 그 이상 시간 동안 일하고 있다. 여성 취업자들은 남성들보다 낮은 65.9%가 주당 40시간

혹은 그 이상 시간 동안 일하고 있다.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 중에서 주당 1~19시간 혹은 주당 20~29시간 일하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당 40시간 혹은 그 이상 근로하는 취업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1995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면 남성 취업자의 경우 10.3% 포인트 감소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8.8% 감소하였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국제적인 정의와 일치하므로 OECD 국가와 비교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OECD. (2021e). Employment database.

### 2. LMF2.2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지역별 고용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개인 단위 조사로서 배우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동 지표에 대한 자료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배우자 및 자녀 특성별 고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가구원 구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가구원 명부를 조사하고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가구원 명부를 이용하여 가족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구원 번호를 부여하여 가구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면 가구 유형에 따른 고용 형태 분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

### 3. LMF2.3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혼인상태를 파악하고 있어 응답자가 이혼한 사람인지 혹은 사별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아서 0~14세 자녀가 있는 한부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한부모의 근로 시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조사」에서는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고용조사」는 가구원 명부를 데이터화하여 가구 특성 파악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 4. LMF2.4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 가. 정의 및 방법론

한국의 가족 친화적 작업장 환경 정책은 “유연근로제도”이다. 고용노동부(2019)의 「일가정양립실태조사」는 전국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로 층화추출된 5,117개 표본 사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연근로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실태조사」는 유연근로제도로써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 현황을 조사한다. “시간선택제”는 육아, 학업, 가족돌봄, 퇴직 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짧은 시간 근무하면서 전일제와 차별 없는 근무(고용) 형태이다. “시차출퇴근제”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여 러시아워를 피하고 유연한 시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예를 들어 8시 출근과 17시 퇴근, 10시 출근과 19시 퇴근). “선택근무제”는 일정 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량근무제”는 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원격근무제”는 원격근로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재택 근무제”는 주거지(주택)에서 근무 편의를 위하여 마

런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매해 8월에 실시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근로자의 직장이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유연근무제”를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재택 및 원격 근무제, 탄력 근무제, 재량 근무의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시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 소정근로시간 내 개인별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선택적 근무시간제”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당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재택 및 원격근무제”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원격 근무용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탄력적 근무제”는 일이 많은 시기의 근로 시간을 늘리고 적은 시기의 근로 시간을 줄여 소정 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근로일과 근로시간대가 정해지면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근무하는 제도이다. “재량 근무”는 소정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한국의 유연근무제도에 따라서 OECD Family database의 가족친화적 작업장 환경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Chart LMF2.4A는 기업체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지표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현황을 조사한 고용노동부(2019)의 「일가정양립실태조사」의 유연근무제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휴일을 축적할 수 있고 매일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는 선택근무제로 보았다.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휴일을 축적할 수 없는 제도”는 시차출퇴근제로 보았다. “휴일을 축적할 수 있으나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 제도”는 한국에 없다.

Chart LMF2.4.B는 근로자가 다니는 직장이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지표이다. 따라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니고 있는 직장이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는지를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지표의 자료를 산출하였다. “회사 혹은 기관이 근로시간을 온전히 결정하며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 여러가지 근로 스케줄을 활용하는 것은 시차출퇴근제, 특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선택적 근무제,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재량근무제로 정의하였다. Chart LMF2.4.C.에서 근로자가 어느 정도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비중은 근로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근로시간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재량 근무 등 기타 유형 중 어느 하나라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았다.

## 나. 주요 결과

고용노동부(2019)의 「일가정양립실태조사」에 따르면 “휴일을 축적할 수 있고 매일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선택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9.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휴일을 축적할 수 없는 제도(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15.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21f),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0b)에 따르면 조사 대상 근로자 중 직장이 유연근로제를 운영하지 않는 비중이 여성 89.5%, 남성 85.8%로 여성이 더 높다. 여러가지 근로 스케줄을 활용하는 (시차출퇴근제) 비중은 여성이 3.2%, 남성이 4.7%로 남성이 더 높다. 특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조정(선택적 근무제)하는 비중은 여성 2.6%, 남성 3.7%로 남성이 더 높다.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재량근무제) 비중은 여성 1.2%, 남성 1.4%로 역시 남성이 더 높다. 직장이 근로자가 어느 정도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중(근로시간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재량 근무 등 기타 유형 중 적어도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은 여성이 11.2%, 남성이 16.1%로 남성이 더 높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직장에 다니는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규모가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이 여성보다 사업체 규모가 더 크고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근로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유연근로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여성이 자녀 돌봄과 가사 일 때

문에 유연근로제에 대한 필요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유연근로제의 내용이 OECD Family database 정의와 한국이 다를 수 있으며, 비교 대상 국가 간에도 제도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유연근로제 현황은 근로자가 다니는 직장이 유연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유연근로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Chart LMF2.4D의 재택근무 이용 경험 비중을 제공하기 어렵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9).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9년.

통계청. (2021f).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20b).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5. LMF2.5 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 가. 정의 및 방법론

통계청(2019)의 「생활시간조사」는 개인 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자원봉사 및 무급 연수, 교제 및 참여 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이동으로 행동 분류를 하고 있다. Family Data base의 “Paid work or study”는 “일과 학습을 합한 시간”으로 정의하였으며, “unpaid work”는 “가정관리 시간”, “care work”는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personal care”는 “개인 유지”, “leisure”는 “문화 및 여가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자원봉사 및 무급 연수, 교제 및 참여 활동, 이동”은 “unspecified”로 정의하였다.

“Single adult with children”은 「생활시간조사」에서 구분하고 있는 “18세 미만 자녀가 존재하면서 가구주만 존재하고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음(한부모)”로 정의하였다. “single adult without children”은 “미혼자”로 정의하였다. 통계청(2019)의 「생활시간조사」는 해당 가구에 10세 미만 가구원이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미취학 가구원이 몇 명이 있는지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 없는 사람”은 미취학 자녀가 없거나 10세 미만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취학 자녀가 있는 사람”은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partnered adult”는 기혼자이면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사람이다.

#### 나. 주요 결과

15세 이상 성인 남녀 모두 전체 시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동은 개인 유지 행동이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행동이 남성은 임금 노동 혹은 학습(20.9%)인 데 반해, 여성은 여가(14.4%)이다. 여성이 전체 시간에서 임금 노동 및 학습에 소요하는 시간 비중은 13.5%로 남성의 20.9%보다 낮다. 비임금 노동에 소요하는 시간 비중은 여성은 10.1%인데 반해 남성은 2.8%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돌봄 노동에 소요하는 시간 비중은 여성은 2.3%, 남성은 0.8%로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낮다.

일을 하는 한부모가 전체 시간 중 돌봄 노동에 소요하는 시간 비중은 2.2%로 자녀가 없는 미혼자의 0.1%보다 높다. 배우자가 있는 성인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이 돌봄 노동에 소요하는 시간 비중은 6%로 자녀가 없는 사람의 0.6%보다 높다. 한부모와 미혼자는 돌봄노동시간이 취업자와 비취업자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성인은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돌봄 노동에 소요하는 시간 비중이 더 높다.

남녀 모두 자녀가 많을수록 돌봄 노동에 소요하는 시간 비중이 높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정도 더 높게 전체 시간 중에서 자녀 돌봄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한국의 「생활시간조사」의 행동 구분은 OECD Family database의 정의와 유사하다. 다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행동에 대한 개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가구원 명부에서 자녀 수와 연령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10세 미만 가구원 수와 미취학 가구원 수만 제공하고 있어 자녀 연령별로 분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체 자녀 수와 자녀 연령을 데이터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통계청. (2019a). 2019년 생활시간조사.

## 6. LMF2.6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 가. 정의 및 방법론

출퇴근 시간은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의 출근, 퇴근, 출장 및 기타 일 관련 이동, 학습 관련 이동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이동한 시간의 평균이다. 비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만을 대상으로 평균 이동 시간을 산출하였다. 자녀 없는 사람은 미취학 자녀가 없거나 10세 미만 자녀가 없는 사람이다. 취학 자녀가 있는 사람은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 나. 주요 결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평일 평균 출퇴근 시간은 77분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87분으로 여성의 64분보다 많다. 남성은 자녀가 있는 사람의 출퇴근 시간이 자녀가 없는 시간보다 많으나, 여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의 출퇴근 시간이 자녀가 있는 사람보다 많다. 남성과 여성 모두 미취학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10세 미만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퇴근 시간이 많다. 자녀 연령이 높아질 수록 상대적으로 더 멀리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 시간에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 남성의 경우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 출퇴근 시간에 응답한 비중이 더 높다. 여성의 경우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가 있는 사람보다 출퇴근 시간을 응답한 비중이 더 높다. 출퇴근 시간에 응답한 사람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활동을 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은 자녀가 있을수록 경제활동을 많이 하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여성은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출퇴근 시간에 응답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은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생활시간조사」는 미취학 자녀 혹은 10세 미만 자녀가 가구에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OECD Family database에 부합하는 지표를 산출하기 위하여 취학 자녀가 가구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통계청. (2019a). 2019년 생활시간조사.

### 7. LMF2.7 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work-life balance

#### 가. 정의 및 방법론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는 19세부터 69세 성인남녀를 대상

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 “보통(5점)”, “매우 만족한다(10점)”라는 10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 결과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근로 상태는 지난 일주일간 일자리가 있었다면 취업자, 일자리가 없었다면 비취업자로 정의하였다.

## 나. 주요 결과

2019년 한국인의 평균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서 보통에 근접한 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남성이 6.0점, 여성이 6.1점으로 성별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취업 상태별로도 취업자 6.0점, 비취업자 6.1점으로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응답자의 자녀 유무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11~15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일 가정 양립 상태 상 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일가정양립 상태별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어렵다. 향후 자녀 유무와 일가정양립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여 자녀 유무별 그리고 일가정 양립 상태별 삶의 만족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한국행정연구원. (2019).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제3절 소결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상태에 해당하는 총 99개 표와 도표 중에서 한국 자료가 모두 제공이 가능한 지표는 41개(41.4%), 부분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지표는 9개(9.1%), 제공이 불가능한 지표는 49개(49.5%)로 나타났다.

자료 생산이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OECD Family database는 가구 유형별로 근로 상태와 근로 시간을 파악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제활동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는 개인 단위의 조사라서 가구 유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에서 근로 상태와 근로 시간은 파악이 가능하지만, 0~14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근로 상태, 배우자가 종일제로 근로하고 있는 여성의 근로 상태와 근로 시간과 같이 가족 유형별 근로 상태와 근로 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자녀 수별 여성의 고용률과 자녀 연령별 여성의 고용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도 10세 미만 가구원 수와 미취학 가구원 수를 제공하고 있어 10세 미만 혹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돌봄 노동 시간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서는 가족 유형별 혹은 자녀 특성별로 근로 상태와 근로 시간, 돌봄 노동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OECD Employment가 제공하는 연령별 고용률 자료도 연령별 및 교육수준별 고용률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연령별 고용률이 교육 수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OECD Family database가 정의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의 유형과 한국에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도의 유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재택근무도 최근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이용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19~6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OECD Family database 지표와 연령 기준이 다르다. 11~15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조사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가지고 파악하기 어렵다. 자녀 유무별 그리고 일가정양립 상태별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 수준도 사회통합조사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



## 제 4 장      한국의 가족과 아동 정책

OECD Family database의 세 번째 대분류인 가족과 아동 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정책(Gene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자녀 관련 휴가(Child-Related Leave), 영유아보육및교육(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보육체계(Typology of Childcare Systems)의 네 가지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에 대한 정책은 가족 정책에 대한 공공지출, 아동에 대한 공공지출, 세대 간 연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전하는 법적인 연령, 아동 보호 체계와 관련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녀 관련 휴가에는 육아휴직제도의 특성, 자녀 관련 휴가 사용,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자녀 출산 관련 휴가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및교육에는 영유아보육및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등록률, 비공식적보육서비스 이용, 보육서비스 지출 비용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보육 체계에는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질, 방과후교실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가족과 아동 정책의 지표에 포함된 표와 도표 수는 총 94개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표와 지표의 한국 자료 현황을 검토하고 가용한 한국 자료를 이용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 제1절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정책

#### 1. PF1.1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 가. 정의 및 방법론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에서 수집하였다. OECD Family database는 동 지표에 대한 자료를

OECD Social Expenditure에서 취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의 정의는 OECD 지표 체계와 동일하다.

## 나. 주요 결과

2017년 현재 GDP에서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이다. 가족에 대한 지출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다. 연금과 조세 혜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2%로서 서비스에 대한 지출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이는 한국에서 공적인 가족 지원이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세 감면 혜택을 포함한 현금 지원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도에 0.2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9년부터 1% 내외로 상승하였으며 2013년부터 1.3%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 가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 것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0.13%에서 2006년 0.48% 그리고 2018년 1.01%로 급속하게 상승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 것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별로 확대하여 2013년도에 이르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체 영유아에게 보육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까지 0.05%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3년에 0.18%로 상승한 이후 2018년에 0.2%로 상승하였다. 현금에 대한 지출 비중이 2013년부터 상승한 것은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양육 수당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자녀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정책은 별다른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GDP에서 조세 감면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2%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 지출이 가족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이후에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지출 비중은 2019년 이후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어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의 증가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가족에 대한 공적인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자료는 OECD Social Expenditure 기준에 따라 수집되었으므로 OECD 국가 간의 비교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OECD. (2021a). OECD Family database.

## 2. PF1.2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 가. 정의 및 방법론

교육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는 OECD Family data로부터 수집하였다. OECD Family database는 동 지표에 대한 자료를 OECD Education at a Glance로부터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료는 OECD의 기준과 정의에 부합한다.

### 나. 주요 결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나타났다. 초등 및 중등교육 지출 중에서 공공으로부터의 지출은 3%이며 민간으로부터의 지출은 0.4%로 공공으로부터의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학교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이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지출과 달리 대학교 지출에서 민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0.6%보다 높다. 초등교육부터 대학교 교육까지 총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이며 이 중에서 공공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 민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공공지출 비중이 더 높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동 지표에 대한 원자료는 OECD Education at a Glance이며 OECD 국가와 비교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OECD. (2021a). OECD Family database.

OECD. (2021b). Education at a Glance 2021.

## 3. PF1.3 Family cash benefits

### 가. 정의 및 방법론

아동수당은 2019년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하여 교육 기관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고 있다. 취학 전 자녀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에 지출한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유치원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에 대해 지출한 비용을 세액 공제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는 초중고등학교 및 인가받은 외국인 학교와 대안학교에 지출한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체험 학습비(1인당 연 30만 원 한도),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한도)에 대해 지출한 비용을 세액 공제한다. 대학생 자녀는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등에 지출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세액 공제한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자녀는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대학생 자녀는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액의 15%를 세액 공제한다.

가구 선정 기준과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한부모 가족에 대해 아동 양육비와 청

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금을 지원한다.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 급여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부모의 근로 상태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받는다.

가족 급여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Family database에서 자료를 취합하였다. 따라서 동 지표들은 OECD 국가들과 비교 가능하다.

## 나. 주요 결과

가족급여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부모 가족이 4.4%이며, 홑벌이 가구 혹은 맞벌이 가구는 거의 전무하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고 부부 가족에 비하여 받는 가족 급여 액수가 많아서 전체 소득에서 가족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자녀 연령별로 보았을 때 막내 자녀 연령이 3세인 맞벌이 가구에서는 가족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5.1%로 나타난 반면에, 막내 자녀 연령이 9세, 혹은 15세인 가정에서 가족 급여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무하다. 한국에서 가족에 대한 급여는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막내가 초등학교 이상인 경우 국가로부터 받는 가족 급여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막내 자녀 연령이 6세인 맞벌이 부부에서 가족 급여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자녀 4명 가족 모두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와 무관하게 가족 급여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2.5%로 나타난 것은 한국에서 가족에 대한 급여가 미취학 자녀를 주로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6세 이상의 순위 형제를 대상으로 받는 급여가 거의 없기 때문일 수 있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아동 수당, 자녀 세액공제, 한부모 수당, 교육급여는 OECD Family database의 정의에 부합한다. 부모의 근로 상태와 관련한 가족 급여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육수당은 부모의 근로 상태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  
한국고용정보원. (2021). 고용보험.  
국세청. (2021). 2020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OECD. (2021a). OECD Family database.

## 4. PF1.4 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s

### 가. 정의 및 방법론

동 지표에 대한 자료를 OECD Family database로부터 구하였다. 따라서 지표의 정의와 방법론은 OECD와 동일하다.

### 나. 주요 결과

모든 소득 수준에서 홑벌이가 맞벌이보다 소득에서 정부에 대한 이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맞벌이 중에서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많이 버는 부부보다 임금 수준이 부부간에 동일한 부부가 정부에 대한 이전 지출 비중이 낮다. 홑벌이가 임금 수준이 동일한 부부보다 정부에 대한 이전 지출 비중이 더 높으며 그 격차는 소득이 낮은 집단이 더 크다. 임금 수준이 동일한 부부가 홑벌이보다 정부 이전 지출을 제외한 순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그 격차는 소득이 낮은 부부와 높은 부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자녀가 둘 있고 배우자가 평균 소득의 67%를 벌고 있는데 나머지 배우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평균 소득의 50%를 벌 경우, 67%를 벌 경우, 100%를 벌 경우 세금 비중은 9%, 9.9%, 12%로 상승한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OECD Family database로부터 자료를 구하였으므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OECD. (2021a). OECD Family database.

### 5. PF1.5 Child support (maintenance) systems

#### 가. 정의 및 방법론

한국에서는 부부가 이혼하였을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얻을 수 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을 정할 수도 있다.

#### 나. 주요 결과

한국에서 현재 전체 부모 중 한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한부모 중에서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비중 자료도 없다. 한부모가 받고 있는 양육비의 평균

금액에 대한 자료도 없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한부모가 받고 있는 양육비에 대한 자료가 없어 국제적인 비교가 어렵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법제처. (202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 6. PF1.6 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 가. 정의 및 방법론

동 지표의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로부터 구하였다. 따라서 지표의 정의와 방법론은 OECD Family database와 동일하다.

#### 나. 주요 결과

공적 영역이 0~17세 아동에 대하여 지출한 전체 가족 급여와 교육비를 아동 연령 집단별로 구분해 보면 6~11세에 지출한 비중은 36%, 12~17세에 지출한 비중은 35%, 0~5세에 지출한 비중은 29%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수가 줄고 있어 연령이 낮은 아동에 대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지출 항목을 현금급여와 조세감면, 보육서비스, 기타 현물급여, 교육으로 구분해 보면 0~5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 서비스에 대해 지출한 액수가 가장 많고, 6~11세, 12~17세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에 지출한 액수가 가장 많다.

2003년과 비교해 볼 때 2011년도에 와서 전반적으로 0~17세 아동에게 지출한 액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0~5세 미취학 아동에게 지출한 액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도로 올수록 0~5세 아동에 대한 지출 중에서 0세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연

령이 증가할수록 지출 액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0세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 것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금 등 출생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동이 6세 이상 취학연령이 되고 난 후에는 연령별로 공적 지출 액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OECD SOCX에서 취합한 자료이므로 OECD 국가 간에 비교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 문헌

OECD. (2021a). OECD Family database.

### 7. PF1.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 가. 정의 및 방법론

통계청의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순 이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하는 노인의 부양 교환 실태를 배우자,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부모별로 제공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직접 돌봐준 10세 미만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로 손자녀 돌봄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 나. 주요 결과

1인당 공공소비는 교육 소비 영향으로 6~17세 연령대가 소비의 주된 주체이며, 노년층은 보건소비 영향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1인당 민간 소비는 노동연령층(15~64세)이 주된 소비 주체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지난 1년간 직접 돌봐 준 10세 미만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40%로 나타났다.

## 라.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국민이전계정의 0~14세, 15~64세, 65세 이상의 연령 기준을 OECD Family database에 따라 0~19세, 20~64세, 65세로 조정하고, 일 인당 평균 소비 액수를 비중 값으로 환산하여 OECD 지표에 맞는 수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OECD Family database는 50대 이상 중에서 돈과 시간을 기준으로 받은 사람과 제공한 사람의 비중을 조사하고 있다. 노인 실태조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배우자,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부모 각각에 대해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수발 지원, 경제적 부양을 기준으로 주고받은 비중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는 돈과 시간을 기준으로 제공받은 사람의 비중과 제공한 사람의 비중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통계청. (2020c). 2017년 국민이전계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 8. PF1.8 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 가. 정의 및 방법론

성인 연령은 민법을 따랐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형법의 기준을 따랐다. 혼인 가능 연령은 민법의 기준을 따랐다. 학교를 떠나는 연령은 교육기본법의 법정 의무교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노동 가능 연령은 근로기준법을 따랐다. 술 구매 가능 연령은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성적 관계가 가능한 최소 연령은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 간강 기준 연령”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 나. 주요 결과

한국에서 성인 연령은 19세이다. 14세부터 범죄 처벌이 가능하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 보호 감호 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혼인 가능한 연령은 18세이며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고 혼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며, 중학교 졸업 연령은 대부분 15세이다. 근로 가능한 연령은 15세부터이다. 술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은 19세부터이며 술 마시는 것 자체에 대한 연령 규정은 없다.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에 따라 16세로 보았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한국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한 연령이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에서 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 민법, 제4조(성년) (2011).
-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2007).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953).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2007).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2007).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2013).

## 9. PF1.9 Aspects of child protection

### 가. 정의 및 방법론

아동 사망 비중은 OECD Family database가 WHO Mortality database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동 체벌에 관련 규정은 아동복지법을 따랐다.

아동 보호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시설이다.

## 나. 주요 결과

의도적인 상해에 따른 0~14세 사망자 수는 2006년 1.2명으로 매우 낮다. 사고 상해에 따른 0~14세 사망자 수는 이보다 높은 6.6명이다. 의도적인 상해에 따른 0~14세 사망자 수는 1980년대 초에 0.5명에서 2000년대 후반에 1.16명으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상승의 폭은 크지 않다. 사고 상해에 따른 0~14세 사망자 수는 1980년대 초반 26.9명에서 2000년대 후반 6.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아동복지법 제5조의 2항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면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벨트, 머리빔, 회초리와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엉덩이를 때린 경험”이 지난 일 년간 있었던 비중은 12.3%, 일 년간은 없었으나 이전에 있었던 적은 17.8%, 평생 경험한 적 없었던 적은 69.8%로 나타났다. “단단한 물건으로 엉덩이 외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린 경험”이 지난 일 년간 있었던 비중은 9.6%, 일 년간은 없었으나 이전에 있었던 적은 15.8%, 평생 경험한 적 없었던 적은 74.6%로 나타났다. “맨손으로 아이의 신체를 때린 경험”이 지난 일 년간 있었던 비중은 23.4%, 일 년간은 없었으나 이전에 있었던 적은 17.1%, 평생 경험한 적 없었던 적은 59.5%로 나타났다. “내동맹이 치거나 밀쳐 넘어뜨린 경험”이 지난 일 년간 있었던 비중은 1.8%, 일 년간은 없었으나 이전에 있었던 적은 5.8%, 평생 경험한 적 없었던 적은 92.5%로 나타났다.

전체 0~18세 아동 중에서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비중은 0.017%로 매우 낮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의도적인 상해에 따른 0~14세 사망자 수와 사고 상해에 따른 0~14세 사망자 수는 2006년 자료이므로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연령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0~18세 전체 아동으로 산출하였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 OECD. (2021a). OECD Family database.  
 WHO. (2013). the WHO Mortality database.  
 아동복지법, 제5조의 2항 (2015).  
 보건복지부. (2019).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 제2절 자녀 관련 휴가 정책

### 1. PF2.1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 가. 정의 및 방법론

한국의 자녀 관련 휴가에는 대표적으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로서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출산전후 휴가의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한다.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 200만 원 상한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제공한다.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무급 휴가로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육아 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에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을 지급한다.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때 지급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배우자출산휴가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10일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2019년부터 10일로 확대되었다.

## 나. 주요 결과

한국의 출산전후휴가는 12.9주이며 평균 임금의 80.2%에 상응하는 급여를 제공한다. 급여를 임금의 100%로 제공한다고 가정할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10.3주이다. 여성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52주이며 동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28.5%에 해당하는 급여가 제공된다. 급여를 임금의 100%로 제공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14.8주로 단축된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합하여 여성이 총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64.9주이며 동 기간 평균 임금의 약 38.8%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된다. 급여를 임금의 100%로 제공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총 휴가 기간은 25.1주로 축소된다.

남성은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4주이며 유급휴가이다. 따라서 동 기간 급여의 100%가 지급된다. 한국에서 부부는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과 동일하게 남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도 52주이며, 평균 임금의 28.5%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되고 급여를 임금의 100%로 제공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임금의 28.5%에 해당하는 급여가 제공된다. 남자가 자녀 출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 휴직 기간은 53.4주이며 동 기간 평균 임금의 약 29.3%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된다. 급여를 임금의 100%로 제공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총 휴가 기간은 16.2주로 축소된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전체에게 최초 60일 동안 사업주가 유급으로 제공해야 하나,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육아휴직급

여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OECD. (2021a). OECD Family database.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대상자별 정책-여성.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 2. PF2.2 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

### 가. 정의 및 방법론

통계청 「육아휴직통계」는 전체 육아휴직자 수, 출생아 100명당 당해 연도 육아휴직자 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당해 연도 육아휴직자 수는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사람의 수가 아니라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수로 정의하였다.

### 나. 주요 결과

출생아 100명당 당해 연도 육아휴직자 수는 여성의 경우 2010년 9.5명에서 2019년 21.4명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남성은 매우 저조한 증가를 보인다. 출생아 100명당 당해 연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0년 0.1명에서 2019년 1.3명으로만 증가하였다. 2019년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출생아 100명당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1.4명으로 남성의 1.3명보다 월등하게 높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수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도에 2.7%였으나 2019년도에는 19.9%로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은 저조한 수준이지만 남성 육아휴직자도 과거와 비교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통계청의 「육아휴직통계」는 배우자 출산휴가자 수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육아휴직 대상자 수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수를 조사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기간을 얼마나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지 않다.

통계청의 「육아휴직통계」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자료,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자 자료로 육아휴직을 파악하며, 육아휴직 시작 시점과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점 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2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차로 인하여 육아휴직 실태보다 과소하게 집계될 수 있다. 또한 군인 등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료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실보다 과소하게 집계될 가능성이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통계청. (2020d). 2019년 육아휴직통계.

### 3. PF2.3 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for working parents

#### 가. 정의 및 방법론

법적 휴가 연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2012) 연차 유급휴가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공직선거법 제34조(2004)에 따른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일요일도 제외하였다.

한국의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이다.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휴직 중에 임금은 지불되지 않지만 휴가 사용 일수는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

## 나. 주요 결과

한국에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급 휴가일 수는 15일이다. 법정 공휴일은 2021년 현재 14일이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국가 규정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였으므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0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2021).

## 4. PF2.4 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 가. 정의 및 방법론

본 지표의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로부터 구하였다. 따라서 지표의 정의와 방법론은 OECD Family database와 동일하다.

### 나. 주요 결과

출산전후 휴가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여성은 92.7%, 평균 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여성은 79.7%, 평균 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여성은 75.4%로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낮다. 이는 출산전후 휴가 90일 중에서 60일은 유급으로 지급되며 30일은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30일에 대하여 본인의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출산전후휴가의 소득대체율보다 낮다. 육아휴직 급

여의 소득대체율도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이는 육아 휴직 급여가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할당된 자녀 관련 휴가의 소득대체율도 소득이 상승할수록 감소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휴가이지만, 육아 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고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녀 출산 후 첫째 달의 가구소득은 소득 수준별로 큰 차이가 없다. 자녀 출산 후 첫째 달에는 출산전후휴직 급여를 받는데 출산전후휴직의 첫 60일은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임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 출산 후 6개월 이후에는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96.6%에서 66.8%로 낮아진다. 자녀 출산 6개월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육아휴직 급여 액수는 출산전후휴가 1개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액수보다 적기 때문이다. 자녀 출산 6개월 후와 1년 후에는 급여의 소득대체율에 차이가 없다. 여성이 지속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2년 후에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약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OECD가 산출한 지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비교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OECD. (2021a). OECD Family database.

## 5. PF2.5 Trends in leave entitlements around childbirth

### 가. 정의 및 방법론

OECD Family database의 자료와 고용노동부 최근 자료를 참고하였다.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2019년부터 10일 유급으로 확대된 것을 업데이트하였다.

### 나. 주요 결과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자녀 관련 휴가는 1970년도에는 없었으나 1990년 8.5주에서 2021년 64.9주로 확대되었다. 고용이 보장되는 육아휴직이 도입되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은 56.3주였다. 한국에서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8년에 무급휴가로 도입되었다. 2012년도에 0.6주의 유급 휴가(총 1주)로 전환된 후에 2019년도에 총 1.4주의 유급 휴가로 확대되었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간 비교하는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OECD. (2021a). OECD Family database.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대상자별 정책-여성.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 제3절 영유아 자녀 보육 교육 정책

### 1. PF3.1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 가. 정의 및 방법론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지출은 OECD Family database로부터 구하였으며, OECD Family database는 동 지표를 OECD SOCX 지표로부터 구하였다.

#### 나. 주요 결과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보육 서비스와 유치원에 대한 지출이 각각 0.5%로 동일하게 차지한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0~2세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지출 금액이 3~5세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출 금액보다 약간 더 높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부터 0.1%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확대된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인해 2017년까지 0.96%로 증가하였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OECD SOCX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이므로 OECD 회원국가 간에 비교하는 데 문제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OECD. (2021a). OECD Family database.

## 2. PF3.2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 가. 정의 및 방법론

0~2세 보육교육 시설 등록률은 해당 연도 말에 시설에 등록된 현원 수가 전체 아동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아동 연령은 주민등록번호의 년도를 기준으로 한 연령이다. 3~5세 보육교육 시설 및 초등학교 등록률은 해당 연도에 보육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수를 전체 아동 수로 나눈 비중이다.

### 나. 주요 결과

2020년 현재 0~2세 아동 중에서 보육시설 혹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비중은 72.1%이다. 3~5세 아동 중에서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비중은 92.2%이다. 3~5세 아동을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3세 아동의 등록률은 95.5%, 4세 아동의 등록률은 92.5%, 5세 아동의 등록률은 89.0%로 나타났다. 0~2세 아동의 보육교육시설 등록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2010년도에 50.5%에서 2019년에 80.5%까지 상승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72.1%로 약간 하락하였다. 2020년도에 시설 등록률이 하락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 돌보는 아동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3~5세 아동의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록률도 증가하여 2010년 84.6%에서 2017에 94.6%까지 증가하였다. 2020년도에 3~5세 등록률은 92.2%로 0~2세 등록률인 이 하락한 것에 비해 큰 하락을 보이지 않았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보육통계는 소득 수준과 모의 교육수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용 시간도 제공하지 않는다.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는 소득수준을 조사하지만 소득 수준을 3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아 OECD Family database 지표와 비교가 어렵다. 모의 교육수준별로 시설 이용 비중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OECD Family database 지표 자료를 산출할 수 없다. 이용 시간을 연령별로 제공하지 않고 보육시설, 유치원 등 이용 기

관별로 제공하고 있어 0~2세의 평균 시설 이용 시간을 알기 어렵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1a). 2020년 보육통계.

### 3. PF3.3 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

#### 가. 정의 및 방법론

비공식 보육은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정의에 따라 낮 시간의 주된 양육자가 부모의 형제자매, 친조부모, 외조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인 경우로 보았다.

#### 나. 주요 결과

비공식 보육을 통해 양육되는 아동의 비중은 0~2세 아동은 7.9%, 3~5세 아동은 4.1%로 나타났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비공식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구소득을 3분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소득 액수별로 9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어 OECD Family database 지표와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비공식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모의 학력별로 이용 비중을 산출하고 있지 않다. 비공식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집단별로도 이용 비중을 산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식 보육 혹은 비공식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 4. PF3.4 Childcare support

### 가. 정의 및 방법론

동 지표의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나. 주요 결과

2세와 3세 두 명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닐 때 지불하는 보육 비용이 평균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4%이다. 부모들은 보육 비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다른 관련 비용도 지출한다. 종일제로 일하는 맞벌이 부부(한 사람은 평균 임금의 100% 소득, 다른 한 사람은 평균 임금의 67% 소득)의 보육에 대한 순 지출이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이다. 순 가구소득에서 보육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이다. 평균 임금의 50%를 버는 한 부모의 경우 보육에 대한 순 지출이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가 되지만, 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로 상승한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OECD Family database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OECD. (2021a). OECD Family database.

## 제4절 보육 체계 유형

### 1. PF4.1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한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는 크게 영유아 보육 서비스와 유아 교육으로 구분된다. 보육 서비스는 보육 시설에서 제공하며 0~5세가 이용한다. 유아 교육은 유치원에서 3~5세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보육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유아 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6세부터 초등학교에서 시작된다.

### 2. PF4.2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 가. 정의 및 방법론

조기유아교육 서비스(pre-primay education)는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0~2세 대상 보육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조기아동교육발달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services)는 유치원이 제공하는 3~5세 대상 유아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 나. 주요 결과

어린이집에서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12.7명이며, 유치원에서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5.4명이다. 교사의 학력 기준은 최소 2년제 대학 졸업이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OECD Family database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국제 비교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OECD. (2021a). OECD Family database.

### 3. PF4.3 Out-of-school-hours care

#### 가. 정의 및 방법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 방과후 활동(생활) 수요 및 현황 조사」를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에 무슨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본 조사 자료에 따라 방과후 서비스 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초등학교 1~3년 학생은 오후 2시대 수업을 마치고, 초등학교 4~6년 학생은 오후 3시대 수업을 마치고 가장 많이 있는 장소가 학교(초등돌봄, 방과후 학교), 교과목 관련 학원, 태권도장, 예체능학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도서관 등 공공시설, 동네 독서실, 공부방인 경우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였다.

#### 나. 주요 결과

초등학교 1~3학년의 방과후 서비스 이용 비중은 75%, 초등학교 4~6학년의 방과후 서비스 이용 비중은 62.9%로 나타났다. 방과후 서비스들은 각각의 교사 대 학생 비율 규정을 가지고 있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아동의 연령이 아닌 학년에 따라 이용률을 조사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방과후 서비스를 하루에 몇 시간 이용하는지 이용 시간을 조사하고 있지 않다. 방과후 서비스 이용률을 소득 수준 혹은 모의 학력별에 따라 조사하지 않고 있다.

학년과 함께 연령별 방과후 서비스 이용 현황, 방과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조사할 필

요가 있으며, 방과후 서비스 이용을 소득 수준별 그리고 모의 학력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 문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청소년 방과후 활동(생활) 수요 및 현황 조사.

## 제5절 소결

가족과 아동 정책에 해당하는 총 94개 표와 도표 중에서 한국 자료가 모두 제공이 가능한 지표는 71개(75.5%), 부분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지표는 5개(5.3%), 제공이 불가능한 지표는 18개(19.1%)로 나타났다. 자료 생산이 불가능한 주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조사 자료들이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의 자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조사가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OECD Family database의 보육 관련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다. OECD Family database의 영유아보육교육 지표는 한국의 보육 정책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OECD Family database 지표의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한국과 OECD 회원국 간의 비교가 가능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 영유아보육교육 정책의 위치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전국보육실태조사」는 OECD Family database의 영유아보육교육 관련 지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분석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생활) 수요 및 현황 조사」도 OECD Family database의 방과후 활동 관련 지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과 분석 방법에서 개선이 요청된다.

둘째, 해당 정책의 현황에 대한 국내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지급하는 양육비를 얼마나 많은 수의 한부모가 지급받고 있는지, 평균적으로 받는 양육 액수가 얼마인지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배우자출산휴가제를 사용하는 사람

들의 숫자가 집계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자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휴직을 사용하는지 사용한 전체 휴직 일수도 알 수 없다.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전체 수만 제공되고 있고 연령별로 보호 아동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셋째, 국제 조사의 경우 너무 오래된 조사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WHO가 제공하는 의도적인 아동 사망률과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률 자료는 2006년도 자료가 제공되고 있어 보다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 제 5 장      한국의 아동의 성과

OECD Family database의 네 번째 대분류인 아동의 성과는 아동 보건(Child Health), 아동 빈곤(Child Poverty), 교육 및 문해력(Education/Literacy),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의 네 가지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 보건에는 영아사망, 기대여명, 저체중아, 예방접종율, 모유수유, 당뇨병 및 천식 유병률, 과체중 및 비만, 흡연, 장애아동 관련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 빈곤에는 가구 유형별 소득 불평등도 및 소득 수준, 아동 빈곤, 자녀가 있는 가구의 물질적 박탈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교육 및 문해력에는 학력 수준, 성별 전공 분야, 10세 및 15세 아동의 문해력, 니트(NEET), 이주 배경 아동의 교육 성과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참여에는 청소년의 자원봉사 및 NGO 활동, 최초 선거 참여율, 음주 및 대마초 사용 경험, 청소년 자살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아동 성과의 지표에 포함된 표와 도표 수는 총 94개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표와 지표의 한국 자료 현황을 검토하고 가용한 한국 자료를 이용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 제1절 아동 건강

#### 1. CO1.1 Infant mortality

##### 가. 정의 및 방법론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출생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청의 영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에 대한 정의는 OECD Family database와 동일하다.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1년 이내 사망한 수, 신생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8일 이내 사망한 수, 후기 신생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8일부터 1년 이내 사망한 수이다. 통계

청은 infant mortality와 post-neonatal mortality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neonatal mortality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하여 작성하였다.

## 나. 주요 결과

영아 사망률은 2.7명, 신생아 사망률은 1.5명, 후기 신생아 사망률은 1.2명으로 나타났다. 영아사망률은 과거에는 출생아 1,000명당 10명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에 출생아 1,000명당 10명 이하로 낮아졌으며, 최근에는 2.7~2.8 수준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한국의 영아 사망의 정의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여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통계청. (2021h). 2020년 출생통계.

OECD. (2021c). OECD Health Statistics 2021.

## 2. CO1.2 Life expectancy at birth

### 가. 정의 및 방법론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의 정의는 통계청과 WHO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절에서 보고한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의 정의와 방법론은 통계청과 WHO의 정의와 방법론을 따랐다.

## 나. 주요 결과

출생 시 기대여명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9년에는 남성도 처음 80세를 넘겨 남녀 모두 80세 이상을 기록하였다. 건강기대수명은 기대수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9년 건강 기대수명은 73세로 기대수명 83세보다 10세 낮다. 이는 평균적으로 볼 때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10년을 더 산다는 것을 말한다. 남성은 기대수명 80세, 건강 기대수명은 71세로 9년 동안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고, 여성은 기대수명 86세, 건강 기대수명 75세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11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 자료는 통계청과 WHO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비교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 문헌

HALE 외: 통계청. (2020e). 생명표.

HALE: WHO. (2021). Global Health Observatory.

## 3. CO1.3 Low birth weight

### 가. 정의 및 방법론

저체중아는 몸무게가 2,500g(그램) 미만으로 출생한 출생아를 말한다. 통계청의 정의를 따랐다.

### 나. 주요 결과

저체중아 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93년 2.6%에서 2019년 6.6%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모의 평균 출산연령이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다.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3년 27.55세에서 2019년 33.01세로 5세 이상 증가하였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저체중아 정의는 국제적인 기준을 따랐으므로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통계청. (2021h). 2020년 출생통계.

### **4. CO1.4 Vaccination rates**

#### **가. 정의 및 방법론**

백신 접종률은 OECD Health Statistics의 정의를 따랐다.

#### **나. 주요 결과**

DPT(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와 홍역 백신 접종률은 대체로 97~98% 정도로 매우 높다. 높은 백신 접종률로 백일해와 홍역 발병률은 매우 낮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OECD Health Statistics로부터 자료를 구하였으므로 국제적인 비교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OECD. (2021c). OECD Health Statistics 2021.

## 5. CO1.5 Breastfeeding rates

### 가. 정의 및 방법론

모유 수유 경험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의 모유 수유 경험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 나. 주요 결과

모유수유경험률은 2018년 94.2%였다. 완전모유수유율은 3개월 30.5%, 4개월 26.4%이나 6개월에는 2.3%로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동의 월령이 각각 다르다. 한국의 경우 조사 당시 0~32개월까지의 아이가 있는 경우 모유 수유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2018년 조사 당시 2015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경우이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6. CO1.6 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 가. 정의 및 방법론

아동청소년(0~19세) 제1형 당뇨 유병률은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자료를 참고하였다. 알레르기 질환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ISAAC(The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를 통해 공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최근 조사가 2010년에 이루어졌다. 향후 1~2년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2010년이 마지막 자료라 시기적으로 오래되어 13~14세의 경우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 나. 주요 결과

아동(0~19세) 10만 명당 제1형 당뇨 유병자 수는 28.6명이다. 천식 유병률은 아동(6~7세)은 19.2%, 아동(13~14세)은 이보다 낮은 15.4%이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OECD Family database 지표는 '지금까지 천식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데,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의사에게 천식이라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서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제1형당뇨: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IDF). <http://www.diabetesatlas.org>.

천식: 질병관리청. (2010). 어린이·청소년 알레르기 질환 조사.

질병관리청. (2020).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7. CO1.7 Overweight and obesity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 가. 정의 및 방법론

한국의 경우 체질량지수(BMI)를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의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 도표에 대비하여 95백분위수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과체중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OECD Family database에서는 성별 연령별 BMI 중앙값에서 1 표준편차 초과 시 과체중으로, 2 표준편차 초과 시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 나. 주요 결과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과체중 이상 비율이 높다. 여학생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과체중 비중이 증가하나, 남학생들은 과체중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한국과 OECD Family database 간의 과체중과 비만에 대한 정의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11, 13, 15세를 남녀를 구분할 경우 표본 크기가 너무 작아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비만의 가족 영향 정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아 가족 영향 정도에 따른 비만 발생률 정도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 11세, 13세, 15세 아동 중 BMI 자료가 없는 아동의 비중은 산출하고 있지 않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교육부. (2020). 2019년 전국 초·중·고등학생 건강검사 결과분석.

## 8. CO1.8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 가. 정의 및 방법론

현재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 담배를 흡연한 사람의 비율”로 정의하였으며, 매일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매일 일반 담배를 흡연한 사람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 나. 주요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흡연자 비중은 증가하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흡연율이 높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OECD Family database는 ‘정기적인 흡연자(Regular smoker)’를 일주일에 한번 이상 흡연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한국과의 비교가 어렵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11, 13, 15세를 남녀를 구분할 경우 표본 크기가 너무 작아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OECD는 연령 집단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은 학년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을 13세 결과로, 중학교 3학년을 15세 결과로 제공하였다. 청소년 흡연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을 조사하고 있지 않아 가족 영향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정기적인 흡연자 비중 차이를 구하기 어렵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질병관리청. (2020).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9. CO1.9 Child disability

### 가. 정의 및 방법론

장애아동 비율은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수’를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교육수준으로 저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중간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고학력에는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 나. 주요 결과

아동 및 청년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장애가 있는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 비율이 높다. 전체 등록장애인의 경우에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아동 및 청년의 경우 연령이나 성별 상관없이 심하지 않은 장애에 비해 심한 장애 비율이 높다.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이와 반대로 심하지 않은 장애가 62.6%로 심한 장애 37.4%에 비해 많다.

청소년(15~29세)은 전체 집단에 비해 장애가 있는 경우 고용률이 매우 낮으며, 실업률도 높다. 청소년(18~29세)의 교육수준도 전체 집단에 비해 장애가 있는 경우 교육수준이 낮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본 자료에서는 등록된 장애아동만 포함되어 실제 장애가 있는 아동수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에 장애에 대한 문항은 제한적이며, 표본 크기도 너무 작다. 따라서, 전체 등록장애인 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교육수준별 장애인 비중은 「2015년 인구총조사」 2% 표본 자료를 분석하였다. 센서스에서 장애가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반드시 등록장애인인 경우는 아니다.

고용률과 실업률 자료는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이며, 전체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로 자료 출처가 다르다.

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비장애인의 고용률과 실업률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연령도 OECD Family database의 18~29세가 아닌 15~29세로, 학령인구가 많이 포함되어 고용률이 낮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21b). 장애인 등록 현황(2020년).
- 통계청. (2020a). 인구동향조사-주민등록연앙인구.
- 통계청. (2021d). 인구주택총조사, 2015.
- 통계청. (2021f).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2절 아동 빈곤

### 1. CO2.1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ce household types

#### 가. 정의 및 방법론

OECD 기준에 따라서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을 작성하였다.

#### 나. 주요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이 낮아져서 불평등도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2011년 이전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를 결합하여 기존 OECD 작성기준(Wave6)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최근 OECD 작성기준(Wave7)에 따라 작성하였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비교가 가능하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비교하기 어렵다.

가구형태에 따른 상대 가처분소득(Chart CO2.1.B.)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로 산출 가능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구원 정보에 대한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산출하기 어렵다. 가구형태에 따른 상대가처분 소득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 가구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2011년 이전: 통계청. (2011).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2011). 농가경제조사.

2011년 이후: 통계청. (2020f). 가계금융복지조사.

## 2. CO2.2 Child poverty

### 가. 정의 및 방법론

아동의 상대소득빈곤율은 0~17세 아동 중 균등화 가처분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비중으로 빈곤선은 중위가처분 소득의 50%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율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취업 상태별 빈곤율 모두 OECD Family database 기준에 부합하게 산출하였다.

### 나. 주요 결과

전체 인구의 빈곤율에 비해 아동빈곤율은 낮은 편이다. 2015년 이후의 자료를 보면, 빈곤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아동빈곤율의 감소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동수당이

도입된 2018년은 전년보다 아동빈곤율이 1.9% 포인트 감소하였다.

아동이 있는 가구 중 한부모가구, 일하지 않는 가구의 빈곤율이 부부 가구나 일하는 가구의 빈곤율보다 4배 이상 높다.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은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일하지 않는 가구의 빈곤율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2015년부터는 과거와 소득 정의가 달라 시계열적인 비교가 어렵다.

#### **라. 출처 및 참고자료**

OECD. (2021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 **3. CO2.3 Material deprivation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 **가. 정의 및 방법론**

본 절의 자료는 OECD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로부터 구하였다. 따라서 지표의 정의와 방법론은 OECD Family database와 동일하다.

#### **나. 주요 결과**

해당 교육 자원을 모두 갖추고 있는 아동의 비중은 46%이다. 책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의 비중은 32.1%로 적지 않다.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의 비중은 13.5%이다.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 비중은 5.3%이다. 교육 소프트웨어, 인터넷, 사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의 비중은 매우 낮다. 학교 교과서는 모든 아동이 가지고 있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PISA의 한국자료는 가구 용품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지수(McLoones)는 제공하고 있지만 각 가구용품 항목별로 아동이 가지고 있지 않은 비중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교육 자원(Table CO2.3.B : Material deprivation based on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에 대해서는 2018년 PISA 조사에서도 관련 문항이 있으나 보고서에 결과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2013년 자료를 기초로 제공하였다. 보다 최근의 자료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OECD. (2013).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 제3절 교육 및 문해력

#### 1. CO3.1 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and expected years in full-time education

##### 가. 정의 및 방법론

본 절의 자료는 OECD Education at a Glance로부터 구하였다. 따라서 지표의 정의와 방법론은 OECD Family database와 동일하다.

##### 나. 주요 결과

한국의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은 25~34세인 경우 97%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이 약간

낮지만 그래도 9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인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이 더 높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은 25~34세의 경우 남성 64.1%, 여성 75.7%로 여성이 더 높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이 떨어진다. 여성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교육받은 비율이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남성보다 낮지만 젊은 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자녀의 학력이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가 80%를 넘게 차지한다. 부모의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가 높은 학력을 갖는 비중은 낮아진다. 본국 태생 부모의 자녀가 외국 태생 부모의 자녀보다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더 높다. 외국 태생 부모의 자녀는 본국 태생 부모의 자녀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더 높다. 부모의 학력별 자녀의 학력 수준을 자녀 성별로 비교해 보면, 부모가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자녀가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지는 비중은 남녀 모두 80% 이상으로 높다. 하지만 부모가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가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지는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 이는 고학력 부모의 경우 자녀의 성별과 무관하게 대학 교육에 투자하는 반면에, 저학력 부모는 딸 보다 아들의 대학 교육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OECD Education at a Glance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국제적인 비교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 문헌

OECD. (2019c). Education at a Glance, 2019.

## 2. CO3.2 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 of study

### 가. 정의 및 방법론

본 절의 자료는 OECD Education at a Glance 자료로부터 얻었다. 따라서 지표의 정의와 방법론은 OECD 정의에 부합한다.

### 나. 주요 결과

학문 분야별 대학 졸업생의 경우 예술이나 인문학 분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으며, 경영이나 법학 분야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고, 공학이나 제조, 건축 분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네 배 많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OECD Education at a Glance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므로 국제적인 비교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OECD. (2019c). Education at a Glance, 2019.

## 3. CO3.3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0

### 가. 정의 및 방법론

본 절의 자료는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의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지표의 정의와 방법론은 OECD

와 동일하다.

## 나. 주요 결과

수학이 과학보다 약간 더 점수가 높지만 큰 차이는 없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과학과 수학 과목 모두 점수가 높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한국은 PIRLS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 PIRS 관련 지표의 자료를 생산하기 어렵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IEA. (2019). TIMSS 2019.

## 4. CO3.4 Literacty scorea by gender at age 15

### 가. 정의 및 방법론

본 절의 자료는 OECD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로부터 구하였다. 따라서 지표의 정의와 방법론은 OECD와 동일하다.

### 나. 주요 결과

15세 학생의 경우 읽기 과목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점수가 매우 높으나 수학과 과학 과목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점수가 약간 더 높다. 2009년도와 비교하여 2019년도에 읽기, 수학, 과학의 점수가 대부분 하락하였는데 특히 읽기 부분의 점수 하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생의 읽기 과목 점수가 높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PISA 점수이므로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OECD. (2018). PISA.

### 5. CO3.5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

#### 가. 정의 및 방법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OECD 기준과 동일하게 NEET 비중을 추정하고 있다.

#### 나. 주요 결과

15~29세 NEET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NEET 비율이 높다. 15~19세보다 20~24세에서 NEET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성별연령별, 가구 유형별 NEET현황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NEET).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 6. CO3.6 Proportion of immigran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outcomes

동 절의 자료는 OECD PISA에서 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이주 배경 학생 수가 매우 적어 이주 배경 학생들의 PISA 결과가 산출되지 않고 있다.

### 제4절 사회참여활동

#### 1. CO4.1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s NGOs for young adults. 15-29

##### 가. 정의 및 방법론

World Value Survey에서 조사된 자원봉사활동을 기초로 산출하였다. 기타 단체 참여는 전문가 협회, 소비자 단체, 자활이나 공제, 계 모임, 여성운동 단체와 그 이외의 기타 단체 중 하나 이상 참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 나. 주요 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단체에 참여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교회, 예술, 음악, 교육 기관에 참여하는 비중이 많다. 자원봉사의 경우 15~29세의 젊은 연령 층이 30~49세 중장년층보다 참여율이 더 높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어 지난 한 달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자료

World Values Survey. (2018). World Values Survey Wave7, 2017-2020.

통계청. (2019b). 2019년 사회조사.

## 2. CO4.2 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 가. 정의 및 방법론

OECD Family database가 지표 생산을 위해 활용한 자료인 IDEA(Introducing Electronic Voting)의 Voter turnout database와 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지표의 정의와 방법론은 OECD Family database와 동일하다.

### 나. 주요 결과

2020년 투표 연령의 투표율은 66.5%로 나타나며, 남성과 여성의 투표율은 거의 비슷하다. 연령별로는 18~24세가 25~50세에 비해 약간 더 투표율이 높다. 전체 연령층보다 15~29세 젊은 층에서 정치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OECD Family database가 활용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OECD 국가와 비교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IDEA. (2020). Voter turnout databas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분석.

World Values Survey. (2018). World Values Survey Wave7, 2017-2020.

### **3. CO4.3 Alcohol and cannabis consumption by young people, by gender**

#### **가. 정의 및 방법론**

음주 경험은 “평생동안 술을 마셔 본 경험”으로 측정하였다.

#### **나. 주요 결과**

한국의 13세 음주 경험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다. 가족이 음주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와 적은 영향을 미친 경우, 음주 경험률의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음주 경험에 대한 OECD 지표의 정의는 지금까지 취한 적이 두 번 이상 있는 경우이나, 한국의 경우 평생동안 술을 마셔본 적 있는지(평생 음주 경험률)이다. 따라서 한국의 수치가 OECD의 정의를 따르는 다른 국가들보다 높을 수 있다. 연령 기준도 한국은 13, 15세만 제공하고 11세 조사 결과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대마초의 경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질병관리청. (2020).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4. CO4.4 Teenage suicides

##### 가. 정의 및 방법론

자살에 대한 정의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의 기준을 따랐으며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한다.

##### 나. 주요 결과

15~19세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6~10명 내외로 큰 변동은 없으나 최근 2018년, 2019년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비교 가능성 및 자료 제공 이슈

자살에 대한 지표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므로 국제 비교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 라. 출처 및 참고문헌

통계청. (2020g). 사망원인통계.

### 제5절 소결

아동의 성과에 해당하는 총 94개 표와 도표 중에서 한국 자료가 모두 제공이 가능한 지표는 72개 (76.6%), 부분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지표는 10개(10.6%), 제공이 불가능한 지표는 12개(12.8%)로 나타났다. 자료 생산이 불가능한 주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아동 보건 관련 지표의 정의가 OECD Family database와 다르기 때문에 OECD Family database에 부합하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어렵다. 천식 경험률, 과체중과 비만, 정기적인 흡연자, 음주 경험 등의 한국 정의가 OECD Family database의

정의와 다르다. 국제적인 표준에 맞게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한지, 한국의 상황에 따라 국제적인 표준과 다른 독자적인 정의를 가져야 할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연령과 분류 기준이 OECD Family database와 다르다. NEET 현황을 분석하는데 한국은 성별·연령별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와 연령 집단 기준이 다르거나 연령이 아닌 학년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OECD Family database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셋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해당 자료의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 Family database는 흡연, 음주, 비만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이 주는 차이를 비교하고 있으나 국내 조사에서는 가족의 영향력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 장애 정도를 구분함에 있어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 이외 핵심적인 활동에는 제약이 없고 학습하는 데만 제약이 있는 아동을 구분하고 있는데 국내 조사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아동의 성과 영역에서도 OECD Family database는 가족 유형별로 현황을 분석하는 지표가 많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족 유형별로 아동 성과를 구분하여 제공하는 자료 많지 않다. 예를 들어 OECD Family database는 빈곤율을 가족 유형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가구원 중에서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장애인 가구원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빈곤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빈곤율을 자세한 가구 특성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국제조사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조사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며, 설문 대상자 수가 적고, 최근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다. PIRLS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관련 지표의 산출이 어렵다. PISA에는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가구 용품의 박탈 상태에 대해 항목별 비중 자료가 누락되어 있고, 교육 자원의 박탈 상태에 대한 최근 자료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World Value Survey의 경우 한국 응답자 수가 매우 적어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문화적으로 OECD 국가와 달라서 산출이 어려운 지표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이주 배경 아동의 수가 매우 적어서 이주 배경 아동의 PISA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 한국은 대마초를 피우는 청소년이 적어서 해당 질문을 설문지에 포함하는 것이 어렵다.



## 3부

###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 및 아동 비교 분석

제6장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의 구조

제7장 아태지역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제8장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과 아동 정책

제9장 아태지역 국가의 아동 성과



---

## 제 6 장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의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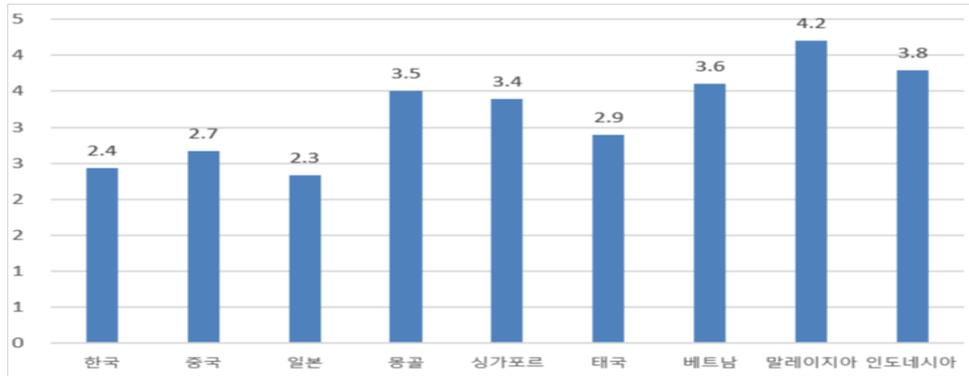
### 제1절 가족과 아동

#### 1. 평균 가구원 수

아태지역 국가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 수준을 보인다([그림 6-1]).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약 4명 수준으로 가장 많다. 몽골, 싱가포르, 베트남이 약 3.5명 내외 그리고 중국과 태국이 3명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원 수를 보인다. 평균 가구원 수는 한국과 일본이 약 2명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태지역 국가에서는 평균 가구원 수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그림 6-2]).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가구원 수는 4명을 넘는 수준을 보였으나, 최근 연도에 와서는 2~3명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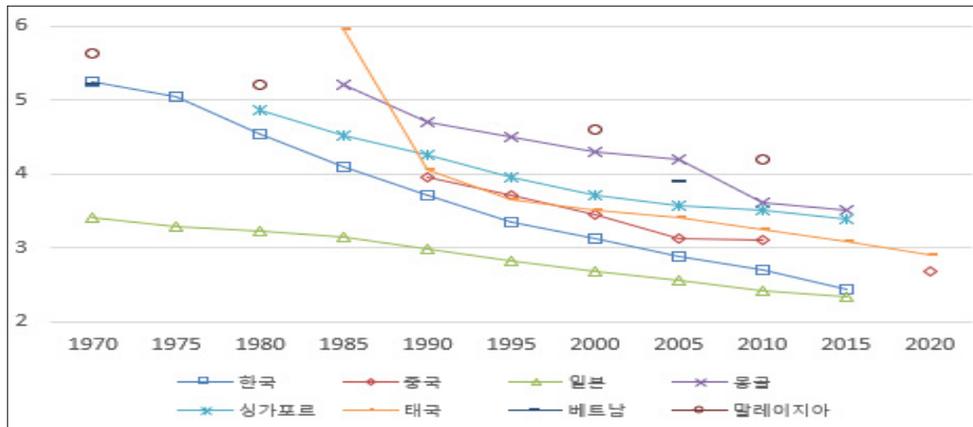
[그림 6-1] 아태지역 국가의 평균 가구원 수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SF1.1.A. Average size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 2015  
 2. 한국 2015년, 중국 2010년, 일본 2015년, 몽골 2020년, 싱가포르 2015년, 태국 2020년, 베트남 2019년, 말레이시아 2010년, 인도네시아 2015년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중국: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NBS). Census 2010, 일본: Statistics Bureau of Japan(SBJ). Population Census 2015, 몽골: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Mongolia(NSO). Statistical Yearbook 2019,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Data,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DOS), 태국: National Statistics Office Thailand(NSO). Labor Force Survey (Quarter 3) 2020, 베트남: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9, 말레이시아: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DOSM).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0,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National Socio-Economic Survey, 2015.

[그림 6-2] 아태지역 국가의 평균 가구원 수 변화(1970~2020년)



주: OECD Family database 지표: Average size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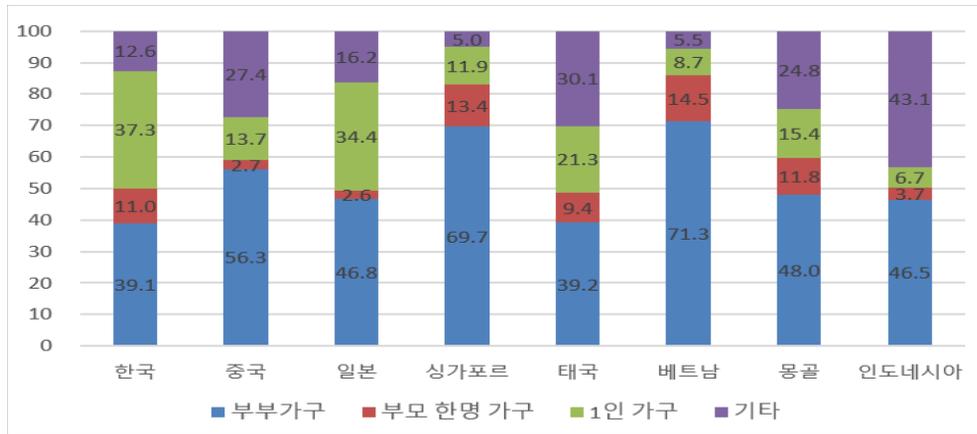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각 연도), 중국: NBS. Census 1990, 2000, 2010; NBS. 1% National Population Sample Survey 1995, 2005, 일본: SBJ. Population census 2005, 2010, 2015, 몽골: NSO. Statistical yearbook 1992, 1996, 1998, 2001, 2005, 2009, 2019, 싱가포르: DOS. General Household Survey 2005, 2015, Census of Population 2000, 2010, 태국: NSO. Labour Force Survey (Quarter 3) 1985-2020, 베트남: GSO. Census 1979, 1989, 1999, 2009 and 2019; GSO. Population dynamics and family planning 2005, 2013; GSO.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2012. 말레이시아: DOSM.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70, 1980, 1991, 2000, 2010.

## 2. 가구 구성

아태지역 가구의 구성을 보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인 부부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6-3). 3세대 가구가 포함된 기타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몽골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과 비교하여 3세대 이상의 가구원이 같은 가구에서 거주하는 전통적인 유형의 가구를 유지하고 있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태국에서도 1인 가구 비중은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많은 부분이 노인 가구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한국, 일본, 태국에서 인구 고령화가 다른 국가보다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림 6-3] 아태지역 국가의 가구 구성 비중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Table SF1.1.A. Types of household,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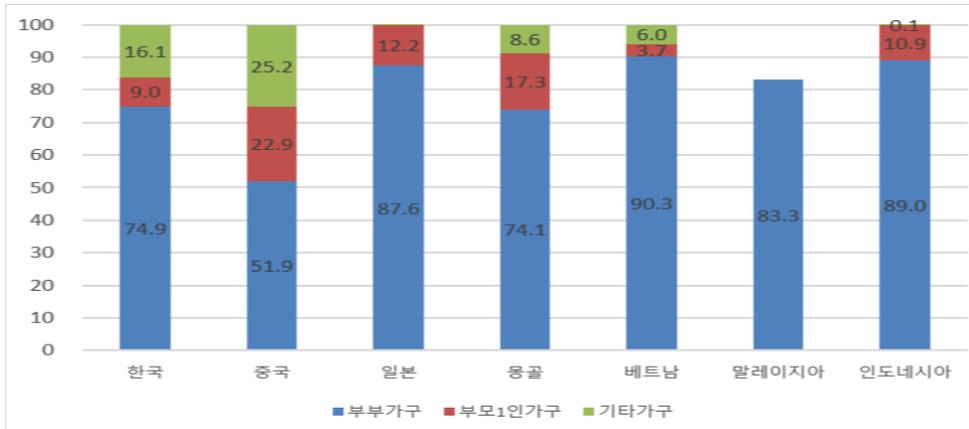
2. 한국 2015년, 중국 2010년, 일본 2015년, 몽골 2020년, 싱가포르 2015년, 태국 2020년, 베트남 2019년, 인도네시아 2015년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중국: NBS. Census 2010을 이용하여 계산함(Yuesheng(2014)에서 인용), 일본: Population Census 2015, 몽골: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20, 싱가포르: General Household Survey 2015, 태국: NSO. Labor Force Survey (Quarter 3) 2020, 베트남: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9,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National Socio-Economic Survey, 2015.

아태지역 국가 0~17세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4]). 부모 1인 가구 혹은 기타 가구에서 살고 있는 비중은 크지 않다. 한편, 중국은 0~17세 아동이 부부 가구에서 살고 있는 비중은 약 절반에 가깝고 나머지 절반은 부모 1인 가구<sup>1)</sup> 혹은 기타 가구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자료를 비교함에 있어 자료의 원천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인 반면에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서베이 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이다. 인구센서스 자료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로 간주할 수 있으나, 서베이 자료는 국가를 대표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 분석 결과를 국가 간에 비교하고 해석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6-4] 아태지역 국가의 0~17세 아동 가구 유형 비중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SF1.2.A.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2018

2. 한국 2015년, 중국 2018년, 일본 2018년, 몽골 2018년, 베트남 2020년, 말레이시아 2010년, 인도네시아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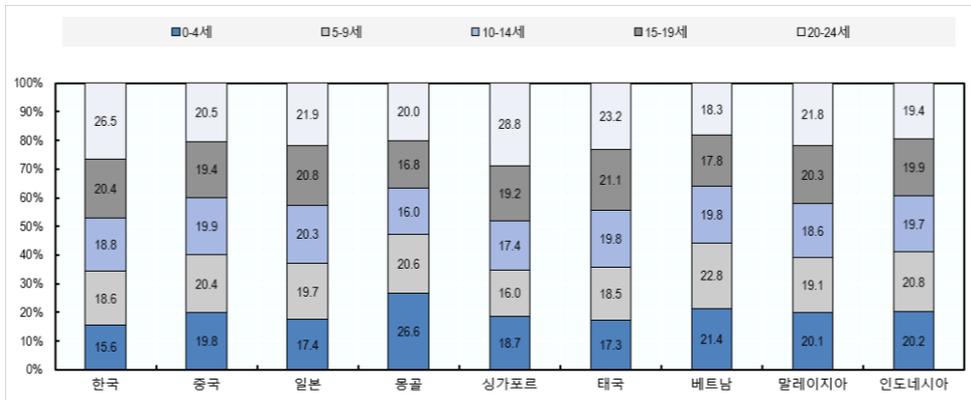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중국: ISSS(Institute of Social Science Survey, Peking University). China Family Panel Studies(CFPS) 2018, 일본: Statistics of Japan, 몽골: NSO. Social Indicator Sample Survey 2018, 베트남: Sample Survey 2020, 말레이시아: DOSM.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0,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7.

1) “부모 1인 가구”는 아동이 부모 중에서 모 혹은 부 한 사람하고 해당 가구에서 사는 경우를 말한다. 부모가 모두 있으나 주거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 1인 가구”를 “한부모 가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 3. 아동 수와 유소년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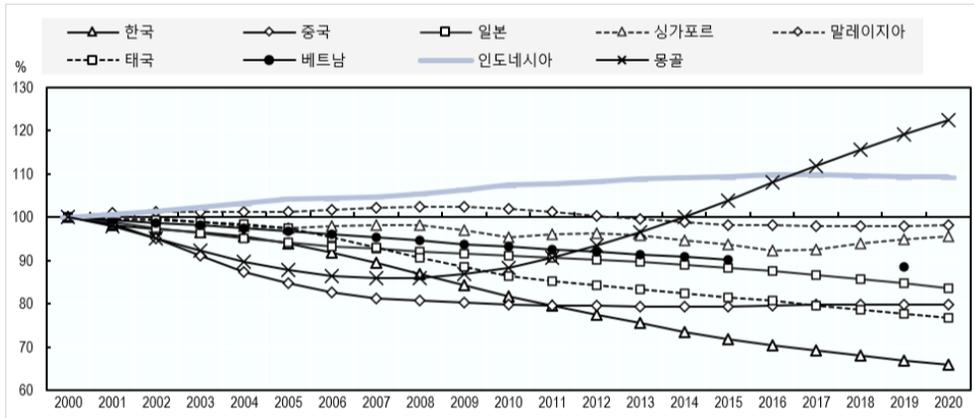
아태지역 국가의 2020년 현재 0~24세 인구의 연령 집단별 비중을 보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이 0~4세와 5~9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20~24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몽골은 0~4세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데 이는 몽골에서 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은 [그림 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도 0~14세 아동 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한국, 태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몽골은 2000년대 후반 이후에 아동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유소년 부양비는 0~14세 아동 수가 감소함에 따라 역시 감소하고 있다([그림 6-6]). 유소년 부양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0년까지 하락한 후 2050년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6-5] 아태지역 국가의 0~24세 인구의 연령 집단별 비중 (2020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SF1.4.B. Age distribution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2015  
 자료: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베트남: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9.

[그림 6-6] 아태지역 국가의 0~14세 아동 수 추이 (200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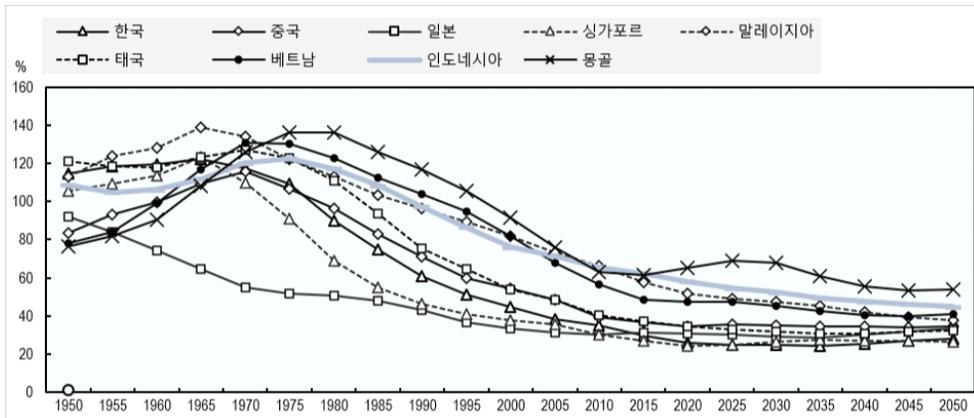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SF1.4.C. Trends in the child population, selected Asia-Pacific countries

2. 2000년도 0~14세 아동 수 = 100

자료: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베트남: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9.

[그림 6-7] 아태지역 국가의 유소년 부양비 추이 (1950~2050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SF1.4.E. Estimated (1950-2015) and projected (2016-2050) youth dependency ratios

2. 유소년 부양비는 20~64세 성인 백명 당 0~20세 아동이 차지하는 수

자료: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싱가포르: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인도네시아: World Bank.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 4. 자료의 제약

아태지역 국가 중에서 부부 가구를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가구와 사실혼 관계의 부부 가구로 구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는 없다(SF1.2 Children in Families). 아동을 연령 집단(0~5세, 6~11세, 12~17세), 빈곤 여부, 모의 교육 수준별로 구분하여 부부 가구, 부모 1인 가구, 기타 가구에 사는 비중을 제공하는 국가(SF1.3 Further Information on Living Arrangement of Children)도 많지 않다. 아동이 밀집된 가구에 살고 있는지, 기본적인 위생 시설을 갖춘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지, 환경적인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도 많지 않다(SF1.5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 제2절 출산

### 1.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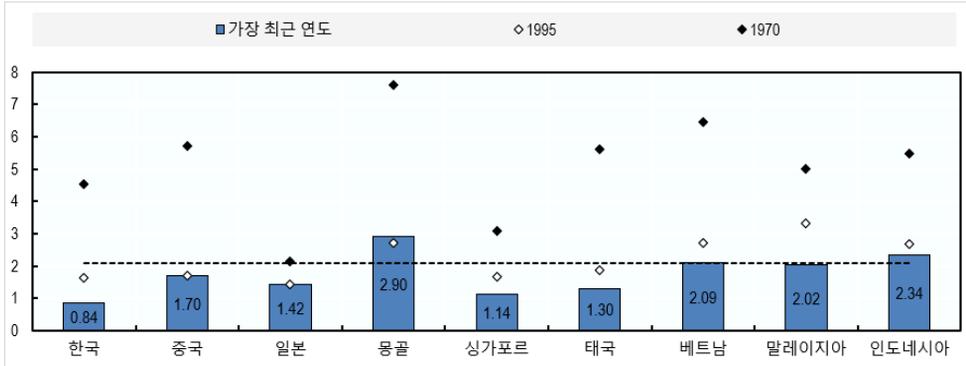
현재 아태지역 국가의 출산율은 초저출산 수준 혹은 그 이하를 보이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인구대체수준 혹은 그 이상인 국가도 있다. 아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 수준은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간 합계출산율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약 1명 내외로 가장 낮으며, 일본과 태국은 초저출산 수준인 1.3명 내외이다(그림 6-8). 중국은 인구대체수준인 2.1명보다 약간 낮으며,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인구대체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몽골과 인도네시아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을 웃돌고 있다.

아태지역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자료 수집이 가능한 196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속하게 하락하여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6-9). 일본은 1960년대에 다른 아태지역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약 2명 수준을 보였으며, 이후 2명 이하로 하락하고 현재까지 유사하게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아태지역 국가 중에서 하락한 출산율이 반등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몽골

은 2005년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 반등하여 현재 약 3명에 가까운 기간 합계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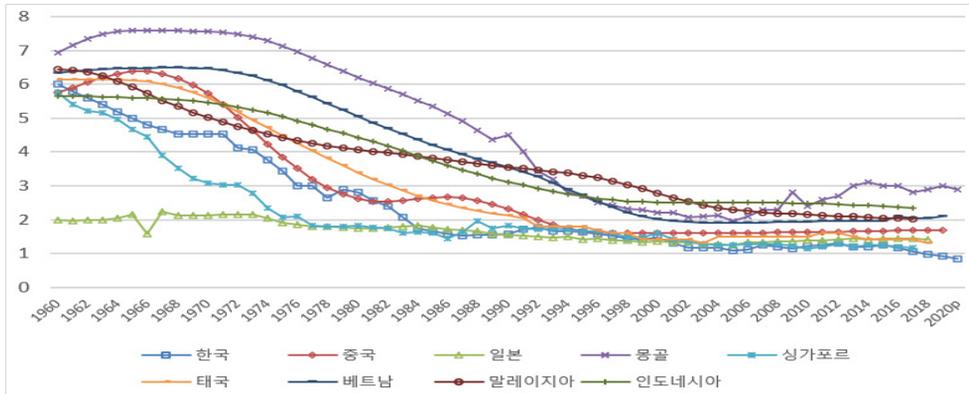
[그림 6-8] 아태지역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 (1970, 1995년, 가장 최근 연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SF2.1.A. Total fertility rate, 1970, 1995 and 2018  
 2. 한국 2020년, 중국 2019년, 일본 2019년, 몽골 2020년, 싱가포르 2019년, 태국 2019년, 베트남 2019년, 말레이시아 2019년, 인도네시아 2019년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일본: Ministry of Health and Labour and Welfare(MHLW), 몽골: National Statistics Office(NSO), 태국: Department of Health, Ministry of Public Health, 베트남: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GSO. Population Census 2019.

[그림 6-9] 아태지역 국가의 기간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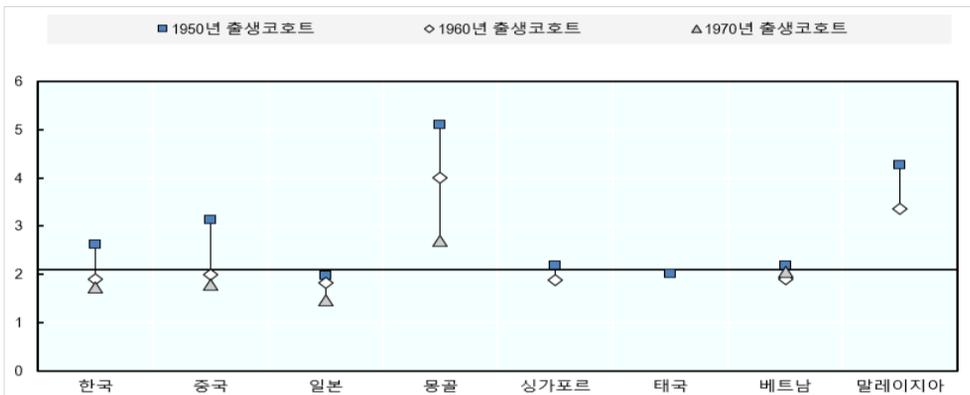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Total fertility rate, 1960~2019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일본: Ministry of Health and Labour and Welfare(MHLW), 중국, 싱가포르: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각 연도), 몽골: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1960~1990); National Statistics Office(1990~2020), 태국: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1960~1991), Department of Health, Ministry of Public Health(1992~2018), 베트남: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1960~2015), General Statistical Office(2016~2019).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는 평균적인 자녀 수인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 약 2명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6-10).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말레이시아에서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오면서 하락하고 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은 1970년대 출생한 여성들이 가임 기간 동안 낳는 자녀 수가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는 자녀 수가 최근 세대로 오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1950년 출생 코호트, 1960년 출생 코호트, 1970년 출생 코호트 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약 2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림 6-10] 아태지역 국가의 코호트 합계출산율 (1950, 1960, 1970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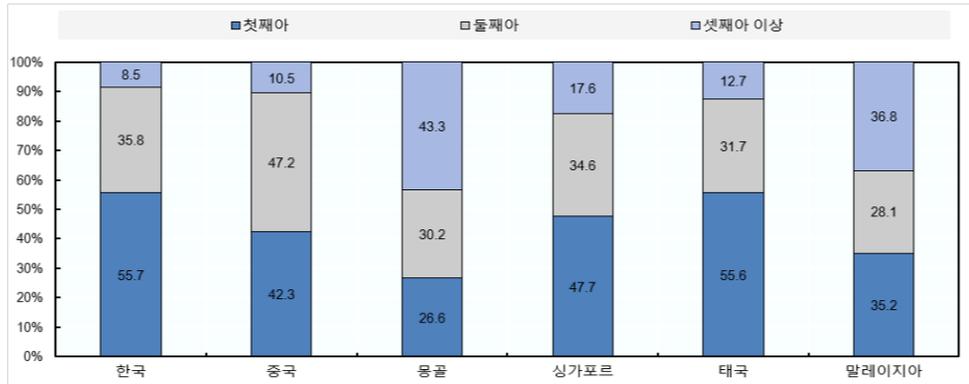
주: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SF2.1.B. Completed cohort fertility for women born in 1950, 1960 and 1970 or latest available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중국: Zhong & Wang, 2015, 일본: The Human Fertility Database, 몽골: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싱가포르: Myrskylä, Goldstein & Cheng, 2012, 태국: N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 Thailand 2010, 베트남: GSO. Population dynamics and family planning, 말레이시아: DOSM. 2015 Malaysia Economic Statistics, Time Series.

전체 출생아 중에서 첫째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기간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 이하로 하락한 한국, 태국, 싱가포르에서 약 50% 내외로 높게 나타나고, 셋째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6-11).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을 보이는 몽골과 말레이시아는 총 출생아 중에서 셋째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첫째아 출산과 셋째아 이상 출산이 총 출생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첫째아 출산 비중은 증가하고 있고 셋째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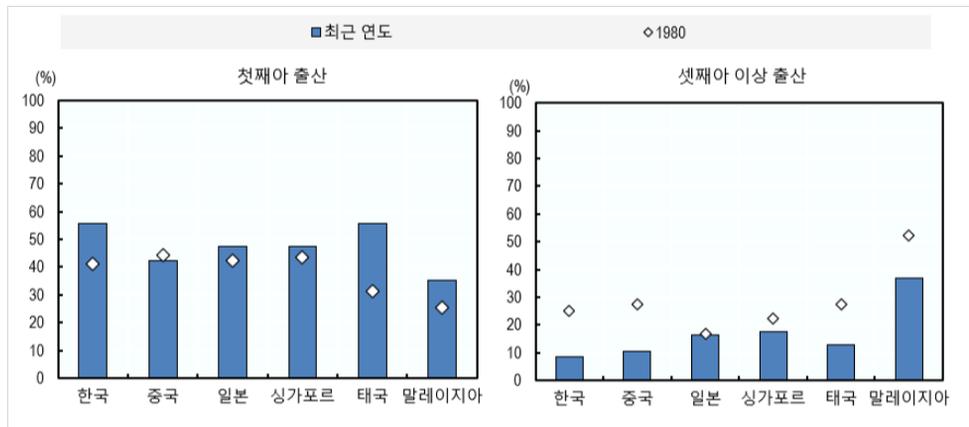
상 출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림 6-12]). 이는 전반적으로 아태지역 국가에서 기간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림 6-11] 아태지역 국가의 순위별 출생아 비중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SF2.1.D.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2018  
 2. 한국 2019년, 중국 2019년, 몽골 2019년, 싱가포르 2020년, 태국 2019년, 말레이시아 2016년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국: NBS. 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s Yearbook 2020, 몽골: NSO(2020), 싱가포르: Registry of Births and Deaths Immigration and Checkpoint Authority Singapore. Report on Registration of Births and Deaths, 2020, 태국: Ministry of Public Health(MOPH). Public Health Statistics, 말레이시아: DOSM. Vital Statistics.

[그림 6-12] 아태지역 국가의 순위별 출생아 비중 (1980년, 가장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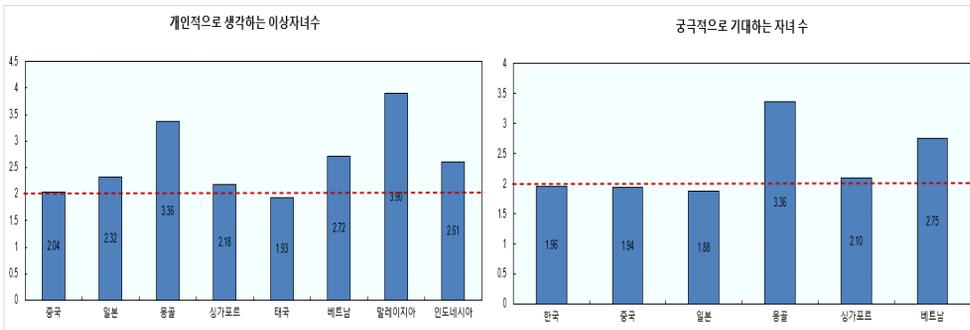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SF2.1.C.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1980 and 2018  
 2. 한국: 1981년~2019년, 최근 연도는 중국 2019년, 일본 2014년, 싱가포르 2015년, 태국 2019년, 말레이시아: 1991년~ 2016년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국: NBS. China Population Statistical Yearbook 1989; 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al Yearbook 2020, 싱가포르: Registry of Births and Deaths Immigration and Checkpoint Authority Singapore. Report on Registration of Births and Deaths, 2016, 태국: Ministry of Public Health(MOPH). Public Health Statistics, 말레이시아: DOSM. Vital Statistics.

## 2.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

아태지역 국가의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는 2~3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 모두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는 현재 각 국가가 보이고 있는 기간 합계출산율 수준보다 높다. 이는 아태지역 국가에서 원치 않는 자녀의 출산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약 2명으로 나타나, 초저출산 수준으로 출산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자녀 출산에 대한 규범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중국에서도 개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와 궁극적으로 낳기를 기대하는 자녀 수 모두 2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합계출산율이 2명 혹은 그 이상을 보이는 국가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상 자녀 수 혹은 기대 자녀 수는 그보다 높은 약 3명 혹은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6-13] 아태지역 국가의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SF2.2.A. Mean personal ideal number of children, 2011, Chart SF2.2.C. Mean ultimately intended family size,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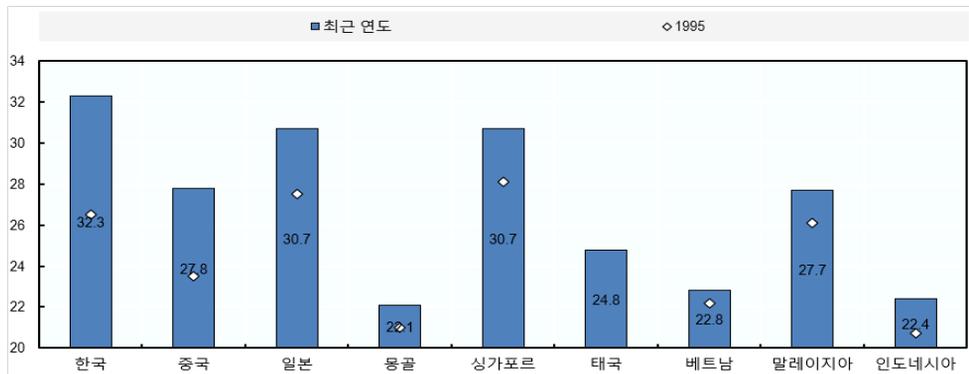
2. 한국 2015년, 중국 2019년, 일본 2015년(이상자녀수), 2011년(기대자녀수), 몽골 2013년, 싱가포르 2013년, 태국 2009년, 베트남 2020년, 말레이시아 2014년, 인도네시아 2017년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중국: National Survey Research Center (NSRC)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China General Social Survey(CGSS) 2019, 일본: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he 15th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 몽골: World Bank. Social Indicator Sample survey 2013, 싱가포르: Institute of Policy Studies(IPS). IPS Perception of Policies in Singapore(POPS) Survey 6: Perceptions of Singles on Marriage and Having Children, 2013, 태국: NSO. Report of 2009 Reproductive Health Survey, 베트남: Sample Survey 2020,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7.

### 3. 출산 연령

아태지역 국가 여성들의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은 합계출산율 수준이 낮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가 30세 이상으로 높다(그림 6-14).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인 중국에서도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은 약 28세로 높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 혹은 그 이상을 보이는 국가인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첫째아 출산 연령은 20대 초반으로 낮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이 높거나, 반대로 합계출산율이 높다고 해서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이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 수준이 저출산 수준으로 낮은 태국에서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은 약 25세로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을 보인다. 또한 출산율 수준이 인구대체수준을 보이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첫째아 출산 연령은 약 28세로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보다 높다.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이 국가마다 다른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은 증가하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6-15).

[그림 6-14] 아태지역 국가의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 (1995년, 가장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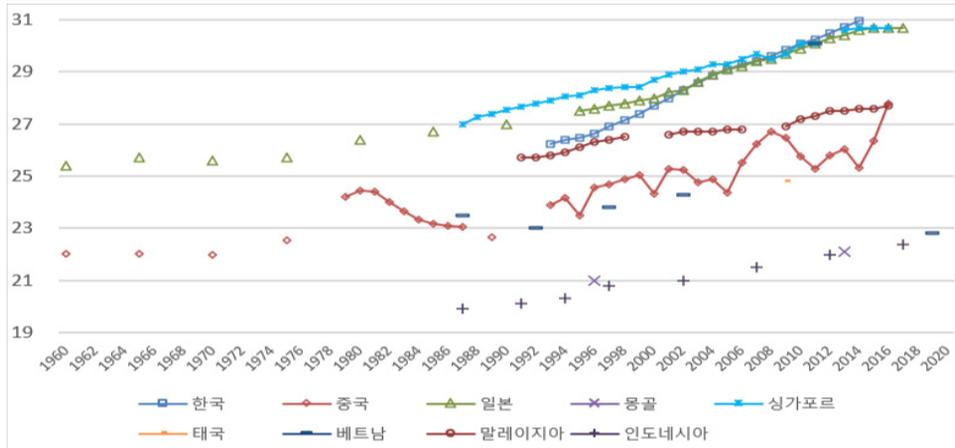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SF2.3.B. Mean age of women at first birth, 1995 and 2017 or latest available

2. 최근 연도는 한국 2020년, 중국 2016년, 일본 2017년, 몽골 2017년, 싱가포르 2016년, 태국 2017년, 베트남 2019년, 말레이시아 2016년, 인도네시아 1994년, 2017년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국: NBS.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s Yearbook 1996, and 2017, 일본: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MHLW), 몽골: World Bank. Social Indicator Sample survey 2013, 싱가포르: 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Population in Brief, 태국: NSO. Report of 2009 Reproductive Health Survey, 베트남: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9, 말레이시아: DOSM. Vital Statistics,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1994, 2017.

[그림 6-15] 아태지역 국가의 평균 첫째아 출산 연령 (196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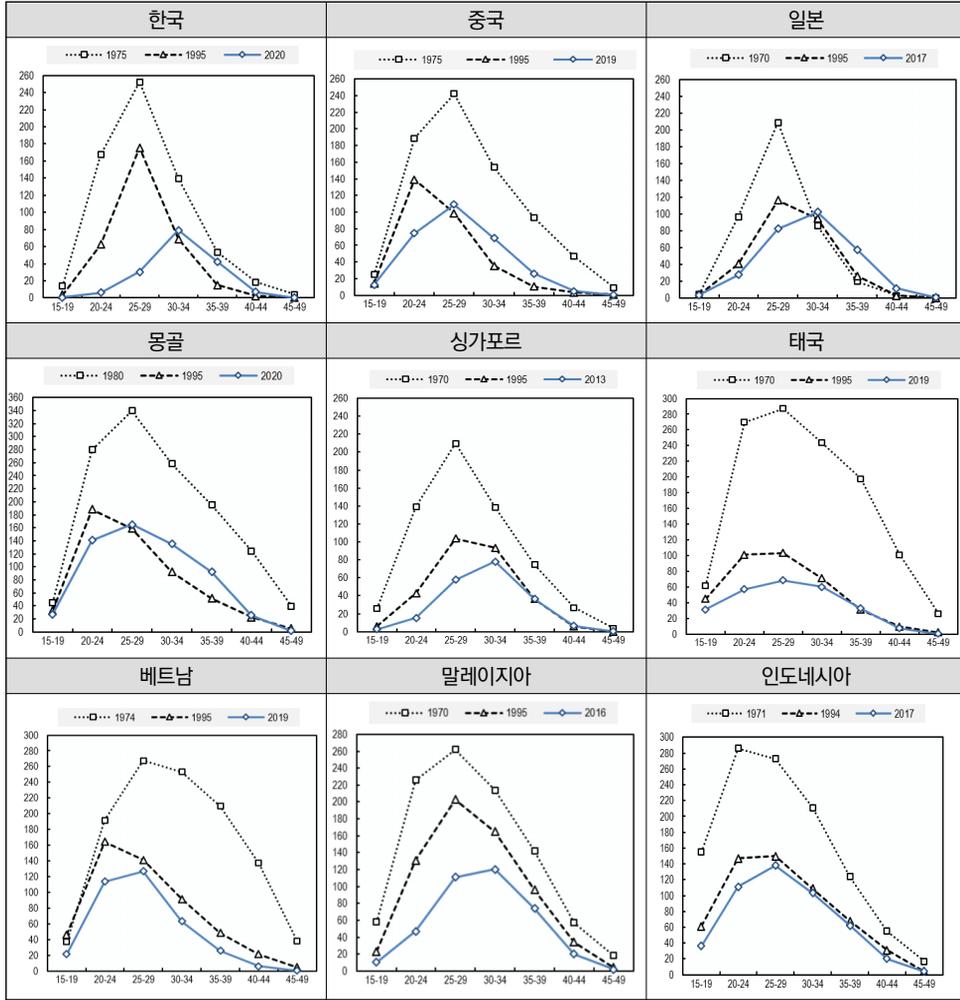


주: OECD Family database 지표: Mean age of women at the birth of the first child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국: 1960-1987년 자료는 Chen(1991), 1989-2016년 자료는 NBS. Chinese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al Yearbook 1988-2017, 일본: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MHLW), 몽골: World Bank. Social Indicator Sample survey 2013, 싱가포르: 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Population in Brief, 태국: NSO. Report of 2009 Reproductive Health Survey, 베트남: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9, 말레이시아: DOSM. Vital Statistics,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앞서 살펴본 양적인 측면에서 출산율 변화와 시기적 측면에서의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의 변화는 [그림 6-16]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의 변화에 잘 나타나 있다. 출산율이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출산 연령도 급속하게 상승한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연령별 출산율 그래프가 최근 연도로 올수록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래프의 높이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출산율은 하락하였으나 출산 연령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태국의 경우 연령별 그래프가 최근 연도로 올수록 높이가 상당히 낮아진 반면에 그래프의 위치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출산율은 하락하고 자녀 출산 연령에서도 큰 상승을 보이지 않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는 그래프의 높이가 낮아졌지만 위치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자녀 출산 연령이 상승한 말레이시아는 그래프의 높이가 낮아짐과 동시에 그래프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은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여 최근 연도에서 30대 이상의 출산아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 출산 여성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16] 아태지역 국가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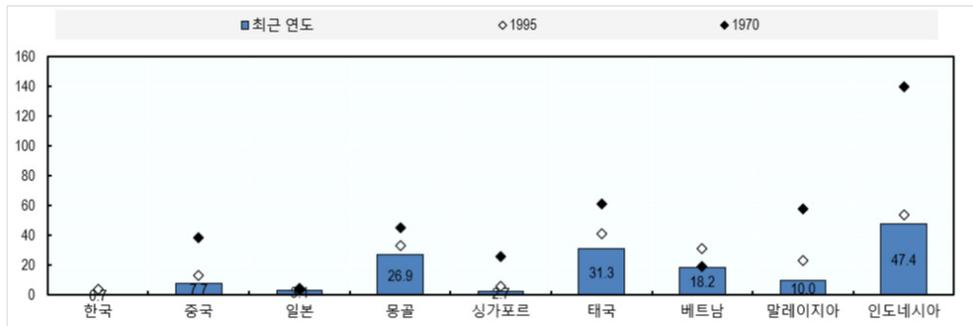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SF2.3.D. Age-fertility profiles, 1970, 1995 and 2017 or latest available

2. 연령별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출산아 수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국: 1960~1987년 자료는 Chen(1991), 1989~2016년 자료는 NBS. Chinese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al Yearbook 1988-2017, 일본: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MHLW), 몽골: World Bank. Social Indicator Sample survey 2013, 싱가포르: 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Population in Brief, 태국: NSO. Report of 2009 Reproductive Health Survey, 베트남: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9, 말레이시아: DOSM. Vital Statistics,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아태지역 국가의 청소년 출산율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매우 낮은 반면에,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6-17).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소년 출산율은 최근 연도로 올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는 아태지역 국가의 조혼 관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17] 아태지역 국가의 청소년 출산율 추이 (1995, 1970년, 가장 최근 연도)



-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SF2.3.C. Adolescent fertility rate, 1970, 1995 and 2017 or latest available
- 2. 청소년 출산율은 15~19세 여성 1,000명당 출산아 수
- 3. 최근 연도는 한국 2020년, 중국 2019년, 일본 2017년, 몽골 2017년, 싱가포르 2013년, 태국 2017년, 베트남 2018년, 말레이시아 2016년, 인도네시아 2012년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국: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일본: United Nations. World Fertility Data 2017.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ealth statistics, 태국: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MOPH. Statistics on Adolescent Births Thailand 1995, 2019, 싱가포르: United Nations. World Fertility Data 2017. 베트남: Health Statistics 2019, 말레이시아: DOSM. Vital Statistics(각 연도), 인도네시아: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tatistics Indonesia.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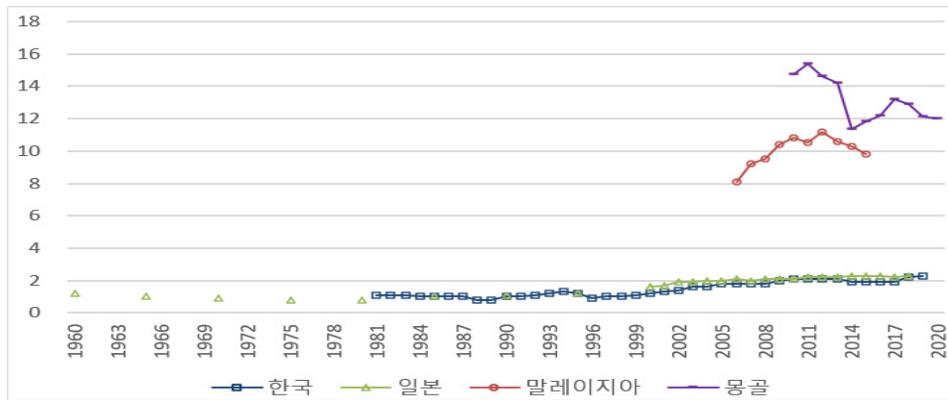
#### 4. 혼외 출산

아태지역 국가에서 혼외 출산율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자료를 제공한 제한된 국가만 가지고 볼 때 한국과 일본은 2% 내외로 매우 낮고, 말레이시아와 몽골은 10%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혼외 출산율이 매우 낮은 한국과 일본은 최근 연도로 오면서 약간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몽골과 말레이시아의 혼외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다.

국가 간 자료를 비교함에 있어 혼외 출산에 대한 정의도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혼인 상태가 등록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자녀를 출

산한 경우를 혼외 출산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한국 및 일본과 유사하게 혼외 출산을 정의하고 있으나 무슬림 부부에 대해서는 결혼한 지 6개월 이내 출산한 경우를 혼외 출산으로 보고 있다. 몽골은 OECD 정의에 따라서 출산 당시 모의 혼인 상태가 기혼이 아닌 경우를 혼외 출산으로 보았다. 혼외 출산 현황에 대한 아태지역 자료가 매우 부족하므로 현재 자료가 수집된 국가 이외 다른 아태지역 국가에서도 혼외 출산에 대한 자료가 수집될 필요가 있다.

[그림 6-18] 아태지역 국가의 혼외 출산율 추이 (196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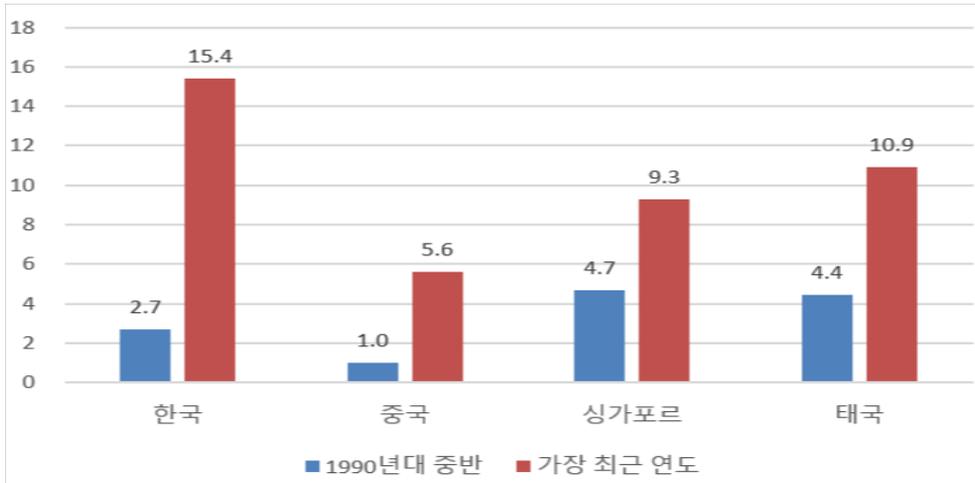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SF2.4.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2. 혼외출산율은 자녀 출산 시 모의 혼인상태가 기혼이 아닌 출산아 수가 전체 출산아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일본: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statistics. 말레이시아: National Registration Department.

## 5. 무자녀

무자녀에 대한 자료는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국가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 중국, 싱가포르, 태국의 모든 국가에서 40~44세 여성 중에서 자녀를 낳지 않은 여성의 비중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5% 미만으로 낮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한국, 싱가포르, 태국에서는 10% 내외로 상승하였으며, 중국에서도 5% 이상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출산이 완료된 코호트를 중심으로 무자녀 비중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출생 코호트별 출산 현황에 대한 자료는 아태지역 국가에서 충분하게 수집되고 있지 않다. 향후 출산과 관련하여 기간 자료뿐만 아니라 양질의 코호트 자료가 아태지역에서 수집될 필요가 있다.

[그림 6-19] 아태지역 국가의 무자녀 비중 현황 (1990년대, 가장 최근 연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Table SF2.5.A. Childless women at age 40-44a, mid-1990s and 2010 (or latest available year)  
 2. 무자녀 비중은 40~44세 여성 중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비중  
 3. 한국: 1990, 2015년, 중국: 1995, 2015년, 싱가포르: 1990, 2010년, 태국: 1980, 2010년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 2015, 중국: NBS. 1% National Population Sample Survey 1995, 2005, 싱가포르: 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Population in Brief 2011; DOS. General Household Survey 2015, 태국: N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80, 2010.

### 제3절 혼인과 이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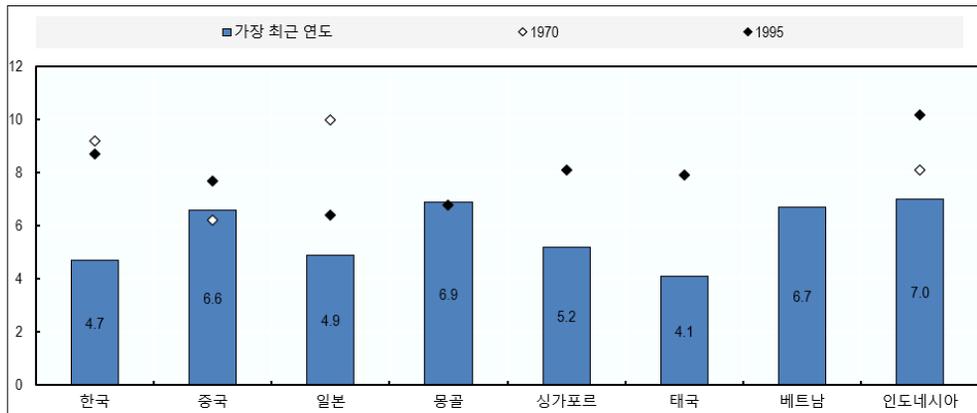
#### 1. 조혼인율

아태지역 국가의 조혼인율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과 같이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4~5건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을 넘는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약 7건으로 상대적으로 높다([그림 6-20]).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보다는 낮지만, 조혼인율은 이들 국가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아태지역 조혼인율의 변화를 보면 매우 낮은 속도이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6-21]). 이는 아태지역 국가들에서 과거와 비교하여 혼인하는 사례가 미약하지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몽골의 경우 2005년~2009년

기간에 혼인 건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다시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다. 몽골의 합계출산율도 2005년도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후 다시 반등하여 3명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합계출산율 증가에 혼인 건수의 급작스러운 증가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2005년에 몽골에서 어떠한 사회경제적 그리고 제도적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6-20] 아태지역 국가의 조혼인율 (1970, 1995년, 가장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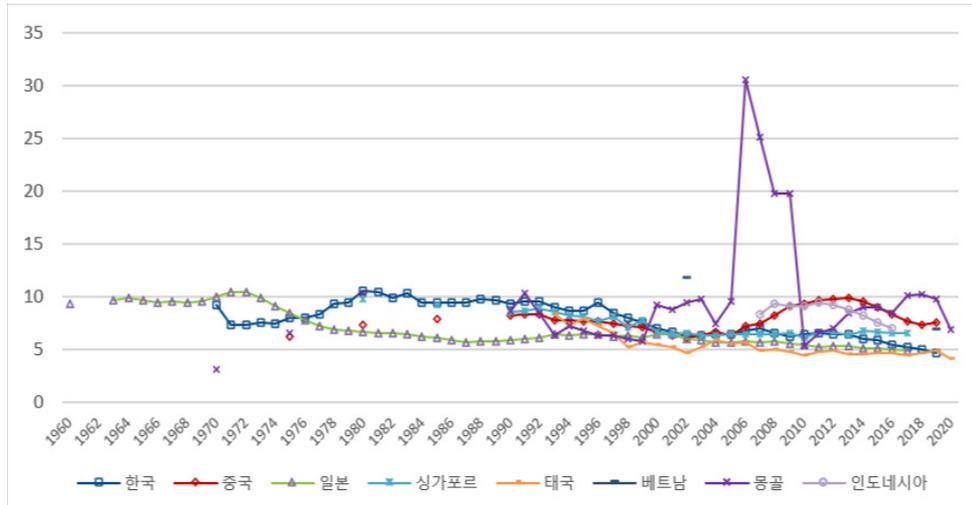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SF3.1.A. Crude marriage rate, 1970, 1995 and 2017 or latest available year

2. 조혼인율은 1,000명당 혼인 건수

3. 가장 최근 연도는 한국 2019년, 일본 2017년, 몽골 2020년, 싱가포르 2020년, 태국 2020년, 베트남 2011년, 인도네시아 2016년, 중국은 1975년, 1995년, 2019년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국: Ministry of Civil Affairs. China Civil Affairs Statistical Yearbook 2020, 일본: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Population Statistics,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statistics, 싱가포르: DOS, Statistics on Marriages and Divorces, 태국: Department of Provincial Administration, Ministry of Interior, 베트남: Statistics on Marriages & Divorces, 2011,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그림 6-21] 아태지역 국가의 조혼인율 추이 (1960~2020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rude marriage rates

2. 조혼인율은 1,000명당 혼인 건수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국: Ministry of Civil Affairs, China Civil Affairs Statistical Yearbook 1990-2020, 일본: Statistics Bureau Japan,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statistics, 싱가포르: DOS, Statistics on Marriages and Divorces, 태국: Department of Provincial Administration, Ministry of Interior, 베트남: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Number of Marriages, Divo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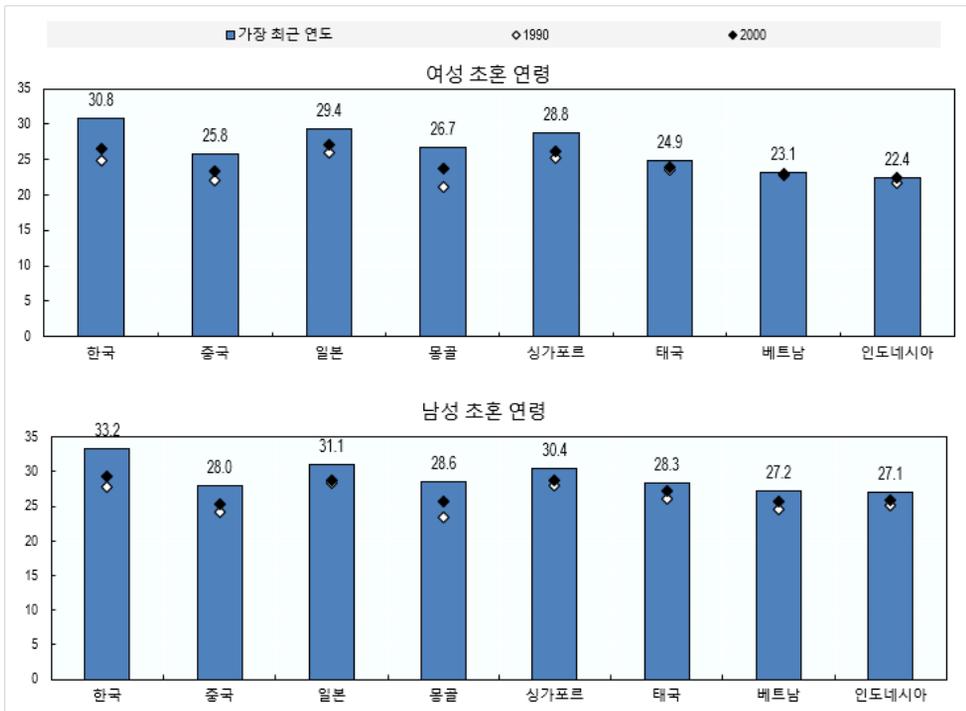
## 2. 초혼 연령

아태지역 국가의 초혼 연령은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으로 하락한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약 30세에 가까운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출산율이 하락한 것은 여성들의 초혼 연령이 상승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에서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도 30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혼을 거의 30세에 가까운 연령에 하기 때문이다. 주어진 가임 기간 때문에 여성이 첫째아를 낳는 연령이 늦어질수록 여성들이 평생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도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으로 하락한 태국은 초혼 연령이 24.9세로 다른 초저출산 국가보다 낮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국의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이 낮은 것도 초혼 연령이 낮기 때문이다. 초혼 연령과 첫째아 출산 연령이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기간 합계출산율이 하락한 태국은 출산율 하락이 출산 지연에 따른 ‘템포 효과’보다는 출산아 수 감소에 따른 ‘퀀텀 효과’에 기인된 바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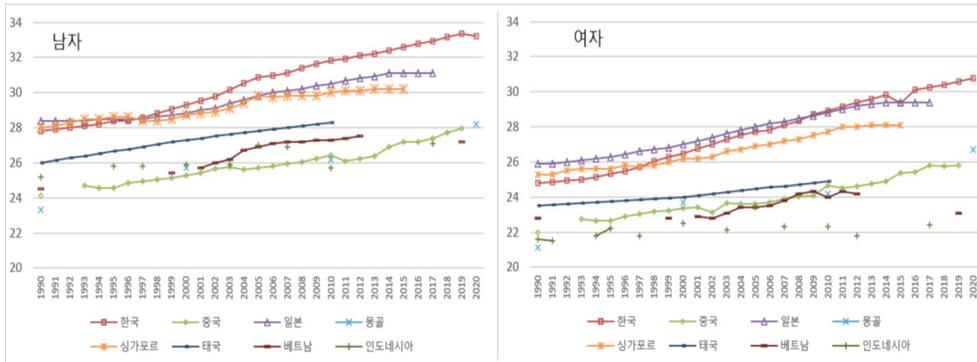
남성 초혼 연령은 초저출산 국가인 한국, 일본, 싱가포르가 30세가 넘고,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에서 남성의 초혼 연령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초혼 연령의 변화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23]).

[그림 6-22] 아태지역 국가의 초혼 연령 (1990, 2000년, 가장 최근 연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SF3.1.B. 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1990, 2000 a and 2017 or latest available year  
 2. 가장 최근 연도는 한국 2020년, 중국 2019년, 일본 2017년, 싱가포르 2020년, 태국 2010년, 인도네시아 2017년, 몽골 1989, 2000, 2010년, 베트남 1989, 1999, 2019년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국: NBS. 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al Yearbook 1991, 2011, 2020, 일본: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Population Statistics, 몽골: N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89, 싱가포르: DOS, Statistics on Marriages and Divorces., 태국: N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베트남: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89, 1999, 2019, 2000, 2010, 인도네시아: World Bank, various sources.

[그림 6-23] 아태지역 국가의 초혼 연령 추이 (199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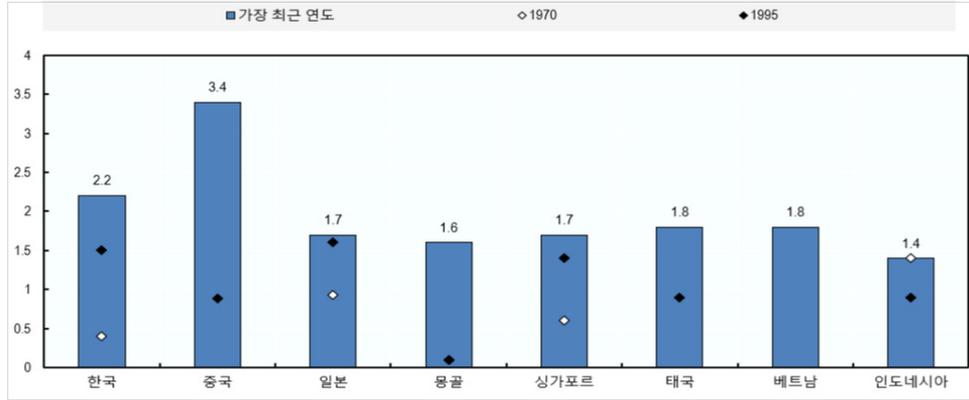


주: OECD Family database 지표: Mean age at first marriage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국: NBS. 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al Yearbook 1991, 2011, 2020, 일본: Statistics Bureau Japan, 몽골: N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89, 2000, 2010, 싱가포르: DOS, Statistics on Marriages and Divorces; 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Population in Brief 2016, 태국: N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베트남: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89, 1999, 2009, 2019, 인도네시아: World Bank.

### 3. 조이혼율

아태지역 국가의 조이혼율은 약 2건 내외의 수준을 보인다. 중국이 3.4건으로 다른 국가보다 조이혼율이 높다(그림 6-24).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이혼율을 상승하고 있다(그림 6-25). 한국과 일본은 2000년대 초반까지 조이혼율이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조이혼율이 다른 국가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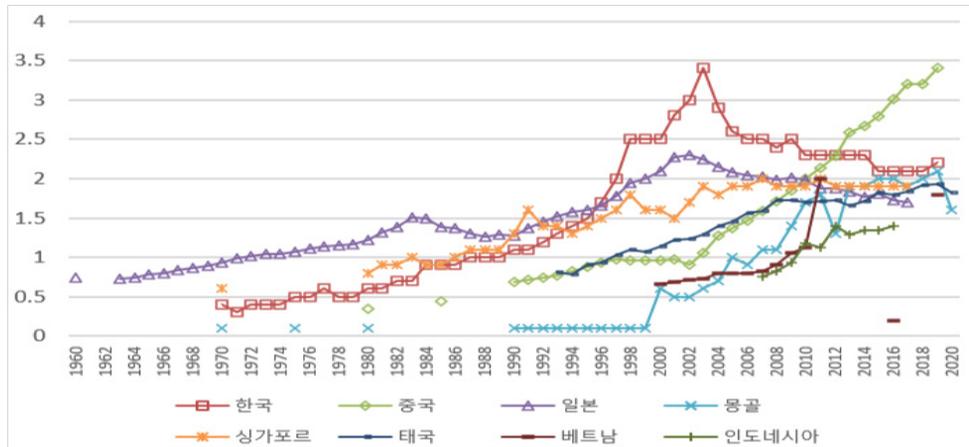
[그림 6-24] 아태지역 국가의 조이혼율 (1970, 1995, 가장 최근 연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SF3.1.C. Crude divorce rate, 1970, 1995 and latest available year  
 2. 조이혼율은 1,000명당 이혼 건수  
 3. 가장 최근 연도는 한국 2019년, 중국 2019년, 일본 2017년, 몽골 2020년, 싱가포르 2020년, 태국 2017년, 베트남 2019년, 인도네시아 2016년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국: Ministry of Civil Affairs, China Civil Affairs Statistical Yearbook 2020, 일본: Statistics Bureau Japan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statistics, 싱가포르: DOS. Statistics on Marriages and Divorces, 태국: Department of Provincial Administration, Ministry of Interior, 베트남: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9,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그림 6-25] 아태지역 국가의 조이혼율 추이 (1960~2020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rude divorce rates  
 2. 조이혼율은 1,000명당 이혼 건수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국: Ministry of Civil Affairs, China Civil Affairs Statistical Yearbook 2020, 일본: Statistics Bureau Japan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statistics, 싱가포르: DOS, Statistics on Marriages and Divorces, 태국: Department of Provincial Administration, Ministry of Interior, 베트남: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9,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아태지역 국가에서는 조이혼율 이외 이혼과 관련한 상세한 지표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이혼 건수를 혼인 유지 기간별로 구분한 비중,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한 건수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한 건수의 비중,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이혼 당시 자녀 수별 비중에 대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SF3.2. Family dissolution and Children). 이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국가들 중에서 국가 혼인 통계에 기반하여 자료를 제공한 국가(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가 있는 반면에,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한 국가(중국, 인도네시아)도 있다. 각 국가가 이용한 자료 원천의 유형이 달라서 국가 간의 비교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4. 자료의 제약

아태지역 국가에서 동거혼과 관련한 자료는 수집되지 않고 있다(SF3.3.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가족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자료도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 가족 폭력에 대한 정도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F3.4. Family Violence).

### 제4절 소결

아태지역의 가족과 출산 현황은 국가마다 다른 모습과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족 규모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유사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과 출산과 관련된 인구 행동인 혼인과 출산 연령도 현재 아태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혼인이 감소하고, 이혼이 증가하며, 혼인 연령과 출산 연령이 상승해 가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혼인이 감소하고 이혼이 증가한다는 것은 아태지역에서 향후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아태지역 국가에서 혼인 연령과 출산 연령의 증가로 인해 향후 출산율이 점차 더 하락할 것으로 예견된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아태지역의 선진국가 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가에서도 핵가족

이 대표적인 가족의 유형으로 자리잡았으나, 전통적인 가족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3세대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국가에서는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전반적으로 아태지역 국가에서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가 각 국가의 합계출산율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대상 아태지역 국가에서 원치 않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진 것을 반영한다. 또한 청소년 출산율도 하락하고 있어 조혼 관행도 점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찰은 아태지역에서 기본적인 생식 보건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아직도 보다 차원 높은 수준에서 아동과 가족의 안녕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는 수집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밀집된 가구, 위생 시설이 갖추어진 가구, 환경적인 위험에 노출된 가구에서 살고 있는 아동의 비중에 대한 자료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또한 가족 폭력의 현황에 대한 자료도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생식 보건 수준과 함께 OECD Family database 지표를 통해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아동과 가족의 안녕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요청된다.

출산, 아동 수, 혼인 건수와 같이 기본적인 인구 통계에 대한 자료는 아태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으나 가족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태지역의 가족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함께 살고 있는 가구 유형의 비중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며, 또한 빈곤 여부, 모의 교육 수준별로 아동이 살고 있는 가구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마련이 필요하다. 선진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 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가족의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는 비단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몇몇 선진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가족의 유형을 분석함에 있어 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의 유형을 분석한 국가도 있었다. 센서스 자료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 생산이 가능하여 가족의 유형을 분석하는데 이상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서베이 자료의 경우 전국 대표적인 표본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서 한 국가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생산이 가능할 경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지역 혹은 특정 표본에 대해서만 수행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표의 자료를 생산한 경우,

한 국가의 대표적인 가족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경우 해당 자료가 국가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분석 결과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 7 장

# 아태지역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 제1절 아동 및 가족 유형별 고용 상태

#### 1. 성별 연령별 고용률

아태지역 남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입직 연령인 25~29세까지 급속도로 증가하고 은퇴 연령인 55세까지 동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이후에 하락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국가마다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 고용률이 경제 상황과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국가마다 서로 다른 성역할과 가족 구조, 돌봄 지원 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아태지역 국가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M자형으로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해당한다. M자형 연령별 고용률은 25~29세까지 고용률이 증가하다가 30대에 하락하고 40대에 다시 상승하지만 20대에 보인 고용률만큼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연령별 고용률이 M자형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이 학업을 마치고 20대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지만 30대 초반에 결혼과 자녀 출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탈퇴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인 40대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나타나는 사회에서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M자형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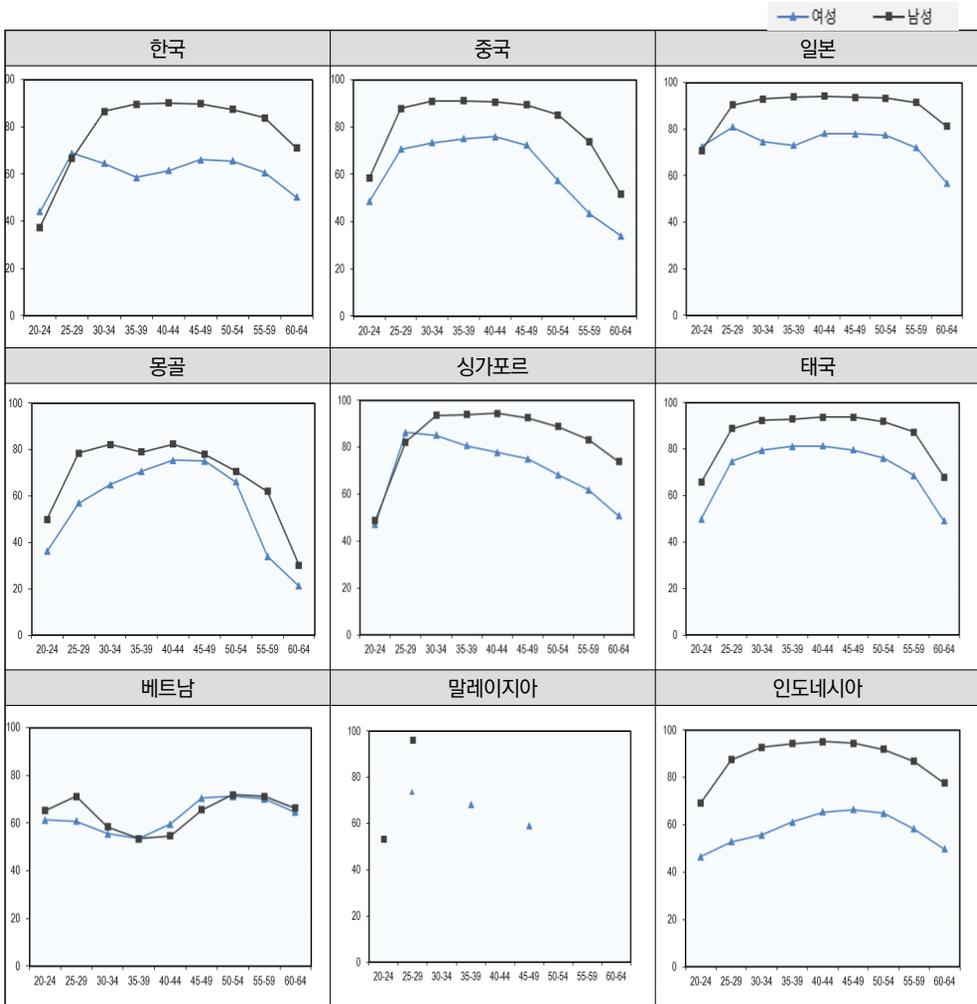
둘째, 고원형으로 25~29세까지 고용률이 증가하고 그 수준이 은퇴시점까지 유지되다가 하락하는 모습이다. 태국과 중국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 이 유형에서 여성 연령별 고용률은 남성 연령별 고용률과 패턴은 유사하지만 남성보다 고용률의 절대적인 수준이 낮고 노동시장에서 탈퇴하는 은퇴시점도 남성보다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우측 비대칭형으로 몽골과 인도네시아가 해당된다. 여성 고용률이 20대부터 40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50대 은퇴시점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유형이다.

넷째, 이민국가형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해당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는 국가인지 혹은 외국으로 근로자를 유출하는 국가인지에 따라 그래프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싱가포르의 여성 연령별 고용률은 20대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말레이시아도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모습을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여성 고용률이 20대에 급속하게 상승하고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서비스업과 돌봄 노동 등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에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내국인 여성 근로자가 노동시장을 탈퇴하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베트남의 여성 고용률은 20대부터 30대까지 하락하다가 40대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고용률 패턴은 남성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0~30대의 젊은 인력이 외국으로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젊은 연령대의 고용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1]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 연령별 고용률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LMF1.4.A. Age-employment profiles by sex,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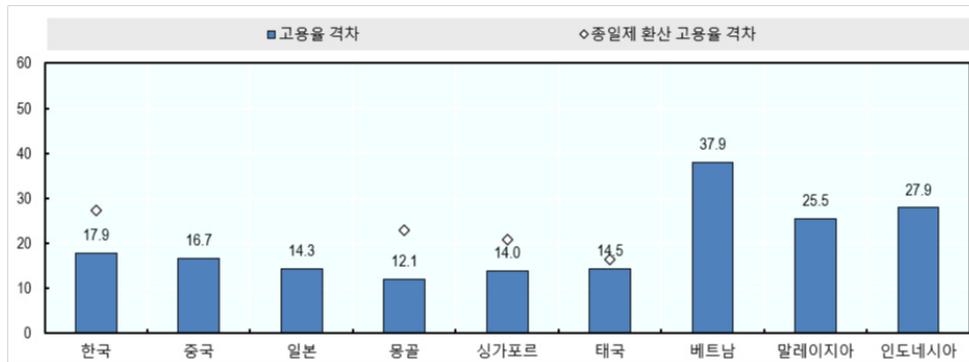
2. 한국 2020년, 중국 2015년, 일본 2018년, 몽골 2019년, 싱가포르 2020년, 태국 2020년, 베트남 2018년, 인도네시아 2018년

자료: 한국: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국: NBS. 1% National Population Sample Survey 1995, 2005, 2015, NBS. Census 2000, 2010, 일본: OECD Employment Database,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on service. Labor force statistics, 싱가포르: Ministry of Manpower. (2020). Labour Force in Singapore: Impact of COVID19 on the Labour Market, Table 17, 태국: National Statistical Office. Labour Force Survey (Quarter 3) 2020, 베트남: GSO.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2018, 말레이시아: DOSM. Labour Force Survey 2019, 인도네시아: ILOSTAT Database.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 2. 고용에서의 성별 격차

아태지역 국가의 고용률에서도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2]).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베트남으로 남성 고용률이 여성 고용률보다 약 38% 포인트 정도 높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남성 고용률도 여성 고용률보다 약 25% 포인트 높다. 그 외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에서 남성 고용률은 여성 고용률보다 약 15% 포인트 정도 높다. 제한된 자료이지만 종일제로 고용률을 환산하면 성별 고용률 격차는 더 커진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말하며 [그림 7-3]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그림 7-2] 아태지역 국가의 고용률 성별 격차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LMF1.6.A. Gender gaps in employment rates and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s

2. 한국 2019년, 중국 2015년, 일본 2018년, 몽골 2019년, 싱가포르 2020년, 태국 2020년, 베트남 2018년, 말레이시아 2016, 인도네시아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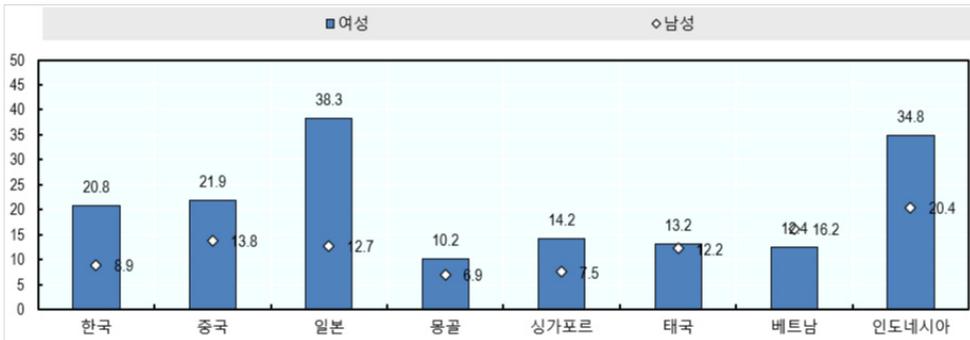
3. 고용률 격차 = 남성 고용률 - 여성 고용률

자료: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OECD Employment Database, 중국: NBS. 1% National Population Sample Survey 2015,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Labour Force Survey 2019, 싱가포르: Ministry of Manpower. (2020). Labour Force in Singapore: Impact of COVID19 on the Labour Market, Table 70, Table 17, 태국: National Statistical Office. Labour Force Survey (Quarter 3) 2020, 베트남: GSO.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2018, 말레이시아: ILOSTAT Database.

전체 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태국과 베트남을 제외하고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그림 7-3]). 전체 여성 근로자 중 시간제 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38.3%, 인도네시아가 34.8%로 높다. 한국과 중국에서 전체 여성 근로자 중 시간제 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내외로 나타난다. 몽골,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서는 전체 여성 근로자 중 약 10%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시간제 고용자의 비중은 한국, 일본, 베트남에서 높게 증가하였으며, 남성 근로자보다 특히 여성 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7-4).

[그림 7-3] 아태지역 국가의 전체 고용자 중에서 시간제 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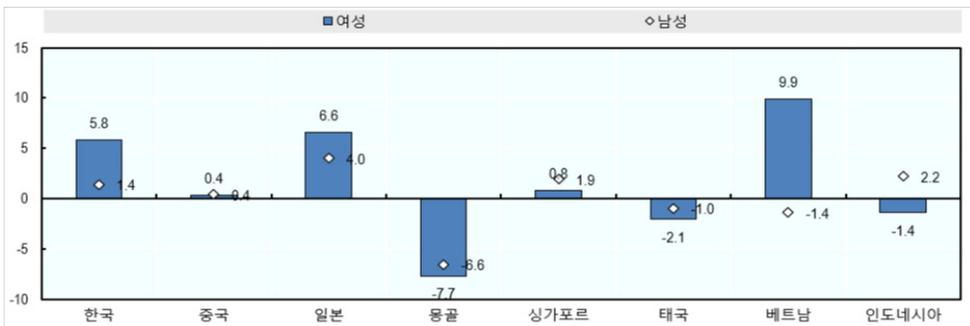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LMF1.6.B. Gender differences in part-time employment

2. 한국 2019년, 중국 2010년, 일본 2018년, 몽골 2018년, 싱가포르 2020년, 태국 2020년, 베트남 2018년, 말레이시아 2016, 인도네시아 2017년

자료: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OECD Employment Database, 중국: NBS. Census 2010,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Labour Force Survey 2018, 싱가포르: Ministry of Manpower. (2020). Labour Force in Singapore: Impact of COVID19 on the Labour Market, Table 53, 태국: NSO. Labour Force Survey (Quarter 3) 2020, 베트남: GSO. Labour and Employment Survey 2018.

[그림 7-4]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 시간제 고용률의 변화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LMF1.6.C. Change in part-time employment

2. 한국, 중국, 일본, 태국: 2005~2018년, 몽골: 2004~2014, 싱가포르: 2010~2020년, 베트남: 2004~2018년, 인도네시아: 2005~2017년

자료: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OECD Employment Database, 중국: NBS. 1% National Population Sample Survey 2005, NBS. Census 2010,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Labour Force Survey 2007, 싱가포르: Ministry of Manpower. (2020). Labour Force in Singapore: Impact of COVID19 on the Labour Market, Table 57, 2018, 태국: NSO. Labour Force Survey (Quarter 3) 2020, 베트남: GSO. Labour and Employment Survey 2018.

교육 수준 집단별 고용률의 성별 격차를 국가 간 비교해 보면 한국과 중국은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집단이 중등교육 이하 집단보다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더 크다(표 7-1)). 태국은 반대로 중등교육 이하 집단이 중등교육 이상 집단보다 성별 고용률 격차가 더 크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교육 수준 집단별로 성별 고용률 격차에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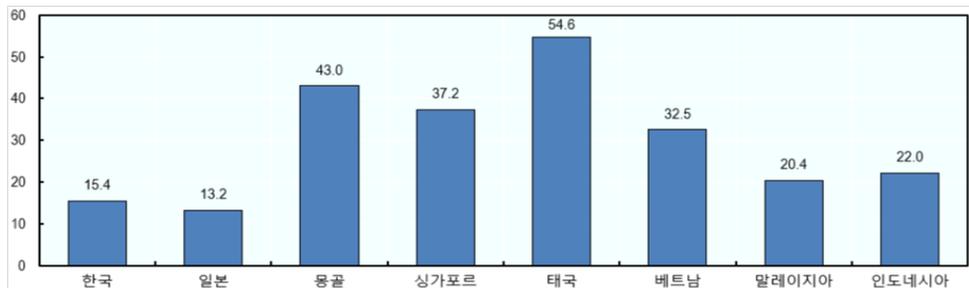
〈표 7-1〉 교육 수준별 고용률 성별 격차

	중등교육 이하			중등교육 이상 대학교육 이하			대학교육		
	남성	여성	성별격차	남성	여성	성별격차	남성	여성	성별격차
한국	72.2	57.8	14.4	82.9	61.1	21.8	87.7	66.2	21.8
중국	84.1	66.9	17.2	80.6	51.5	29.1	88.9	80.2	29.1
몽골	75.3	60.6	14.7	70.3	56.1	14.2	81.6	66.9	14.2
태국	72.7	52.4	20.3	77.4	63.3	14.1	81.1	78.6	14.1
베트남	92.4	88.3	4.1	85.7	80.1	5.6	87.9	82.6	5.6
인도네시아	91.3	56.7	34.6	90.8	52.4	38.4	91.9	78.5	38.4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Table LMF1.6.A. Gender gap in employment rates by educational attainment  
 2. 한국 2019년, 중국 2018년, 몽골 2019년, 싱가포르 2020년, 베트남 2018년, 인도네시아 2017년  
 자료: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OECD Employment Database, 중국: National Survey Research Center (NSRC)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China General Social Survey(CGSS) 2019,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Labour Force Survey 2019, 태국: NSO. Labour Force Survey (Quarter 3) 2020, 베트남: GSO. Labour and Employment Survey 2018.

전체 관리직 종사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태국이 약 55%로 가장 높으며, 몽골과 싱가포르에도 약 40% 수준에 가깝게 높다. 한국과 일본은 전체 관리직 종사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 내외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그림 7-5〕 아태지역 국가의 관리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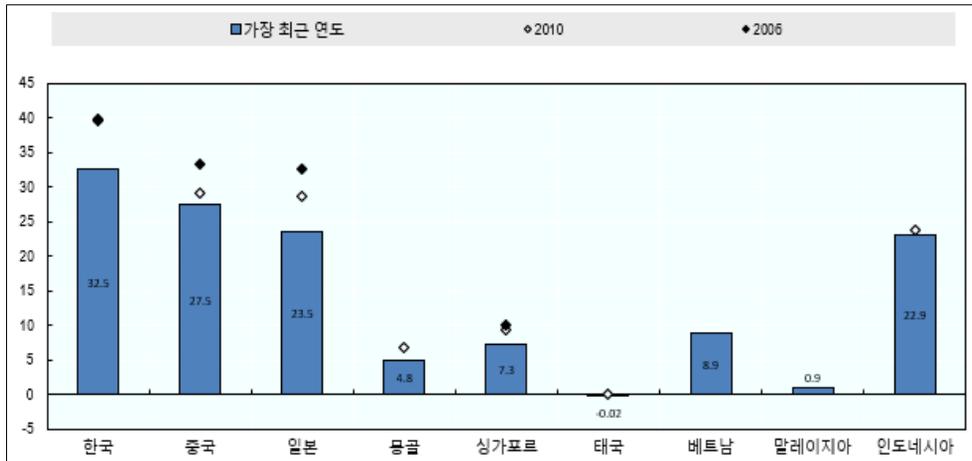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LMF1.6.D. Women's share of managerial employment  
 2. 한국 2019년, 일본 2017년, 몽골 2019년, 싱가포르 2020년, 태국 2020년, 베트남 2018년, 말레이시아 2016년, 인도네시아 2015년  
 자료: 한국: OECD Employment Database, 일본: SBJ. Labor Force Survey 2015,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Labour Force Survey 2019, 태국: NSO. Labour Force Survey (Quarter 3) 2020, 베트남: GSO. Labour and Employment Survey 2018, 말레이시아: ILOSTAT Database, 인도네시아: ILOSTAT Database.

### 3. 임금에서의 성별 격차

아태지역 국가들은 임금에서도 성별 격차가 존재하여 대부분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높다. 임금에서의 성별 격차에서 국가별 차이가 발견된다.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는 약 20~30% 정도 남성의 임금이 여성의 임금보다 높다. 몽골, 싱가포르, 베트남은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약 10% 이내에서 더 높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임금에서 성별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림 7-6] 아태지역 국가의 임금 성별 격차 (2006, 2010년, 가장 최근 연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LMF1.5.A. 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2006, 2010, and 2018 or latest available

2. 임금 성별 격차 =  $100 \times (\text{남성 중위 임금} - \text{여성 중위 임금}) / \text{남성 중위 임금}$

3. 한국 2006년, 2010년, 2019년, 중국: 2006년, 2010년, 2018년, 일본: 2002년, 2010년, 2018년, 몽골: 2006년, 2010년, 2018년, 싱가포르: 2004년, 2010년, 2020년, 태국: 2008년, 2020년, 베트남 2016년, 말레이시아 2019년, 인도네시아: 2010년, 2020년

자료: 한국, 일본: OECD Employment Database, 중국: National Survey Research Center (NSRC)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China General Social Survey(CGSS) 2006, 2011, 2019, 싱가포르: Ministry of Manpower, Manpower Research and Statistics Department. (2021). Statistical Table: Income Median Gross Monthly Income from Work of Full-Time Employed Residents by Occupation. 태국: NSO. Labour Force Survey (Quarter 3) 2020, 베트남: ILO. (2018). Global Wage Report 2018/19,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Labour Force Survey, 말레이시아: ILOSTAT Database. Labour Force Survey 2019, 인도네시아: ILOSTAT Database.

#### 4. 자료의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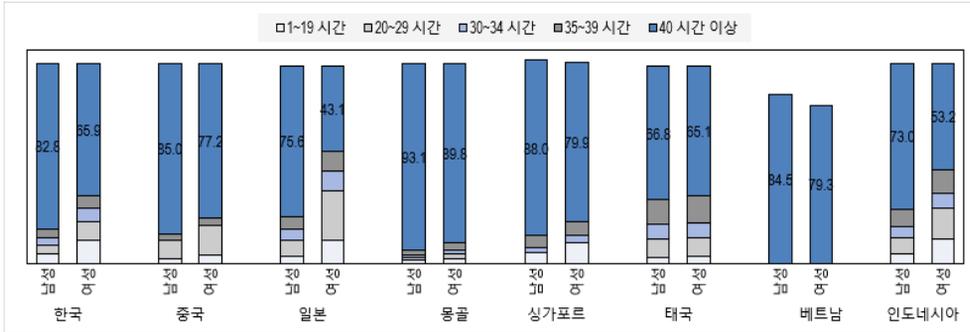
대부분의 국가가 성별·연령별 고용률 이외 가족 특성별 고용률 자료는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0~14세 자녀 유무별 여성의 고용률(LMF1.2 Maternal employment)과 배우자 유무별 고용률(LMF1.3 Maternal employment by partnership status) 자료는 매우 제한적인 국가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아동을 기준으로 하여 0~14세 아동 중에서 종일제 혹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중(LMF1.1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에 대한 자료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생산되고 있다.

### 제2절 근로 시간 및 돌봄 시간

#### 1. 총 근로 시간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사람들은 대부분 40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 일하고 있다([그림 7-7]). 남성 근로자 중에서 40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 일하는 비중은 한국,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몽골이 80% 이상으로 높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남성 근로자 중에서 40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 일하는 비중은 70% 이상이다. 여성 근로자 중에서 40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 일하는 비중은 싱가포르, 베트남, 몽골, 중국이 약 70~80% 이상으로 높고,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가 50~60% 수준이다. 일본 여성 근로자 중에서 40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 일하는 비중은 40% 정도로 다른 국가들보다 낮다. 이는 일본 여성 근로자 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근로자 중에서 40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과 여성 모두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감소하였지만, 중국, 베트남, 몽골에서는 증가하였다.

[그림 7-7]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 근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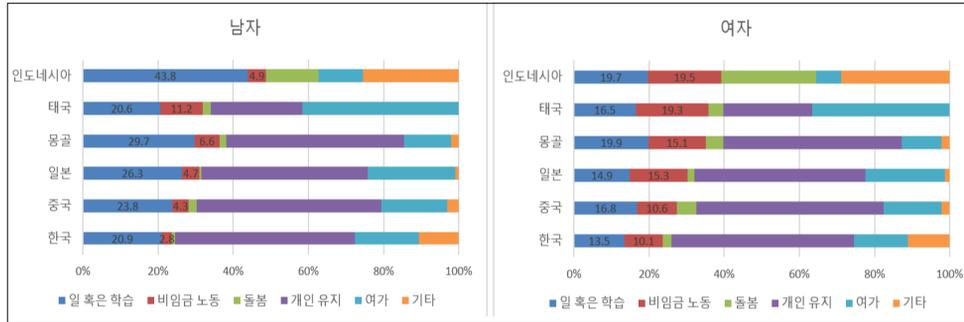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LMF2.1.A. Distribution of the employed by usual weekly working hours bands and gender, 2017 or latest available  
 2. 한국 2019년, 중국 2010년, 일본 2017년, 몽골 2019년, 싱가포르 2020년, 태국 2020년, 베트남 2018년, 인도네시아 2016년

자료: 한국, 일본: OECD Employment Database, 중국: NBS. Census 2010,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Labour Force Survey, 2019, 싱가포르: Ministry of Manpower. (2020). Labour Force in Singapore: Impact of COVID19 on the Labour Market, Table 68, 태국: NSO. Labour Force Survey (Quarter 3) 2020, 베트남: GSO. Labour and Employment Survey 2018, 인도네시아: ILOSTAT Database.

## 2. 돌봄 시간과 근로 시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급 노동과 학습에 소요하는 시간 비중이 높다. 여성들은 비임금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 비중이 남성들보다 높다([그림 7-8]). 출퇴근 시간에 소요하는 시간은 태국과 베트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그림 7-9]). 태국과 베트남은 출퇴근에 소요하는 시간이 남성과 여성 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출퇴근 시간을 자녀 유무별로 살펴보면 한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자녀가 없는 여성들 보다 출퇴근 시간이 더 짧다(<표 7-2>).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직장에서 보다 가까운 거리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한국을 제외하고 자녀가 없는 남성보다 자녀가 있는 남성이 출퇴근 시간이 더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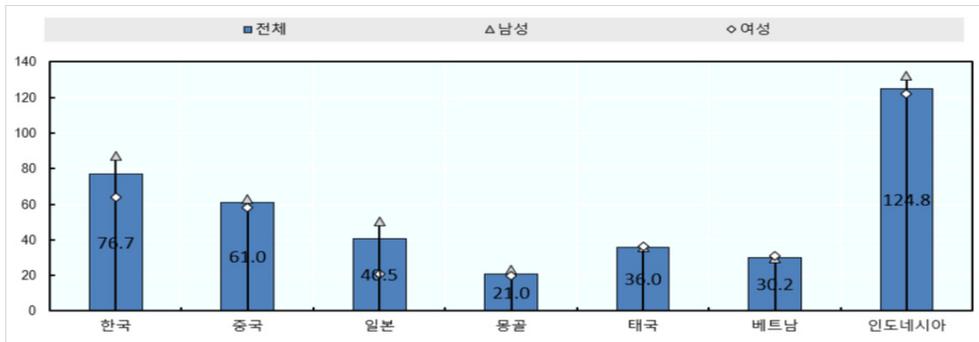
[그림 7-8]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 생활시간 비중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Table LMF2.5.A: Time allocated in main activities, by gender, 1999-2012/2013  
 2. 한국 2019년, 중국 2018년, 일본 2011년, 몽골 2019년, 태국 2015년, 인도네시아 1998년  
 자료: 한국: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중국: NBS, National Time Use Survey Bulletin 2018, 일본: SBJ, National Time Use Survey, 몽골: NSO, Time Use Survey 2019, 태국: NSO, Time use survey 2015,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United Nations, 1998 Pilot Survey from 100 villages.

[그림 7-9]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 출퇴근시간

(단위: 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LMF2.6.A: Average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1999-2014  
 2. 한국 2019년, 중국 2018년, 일본 2011년, 몽골 2019년, 태국 2017년, 베트남 2018, 인도네시아 1994년  
 자료: 한국: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중국: NBS, National Time Use Survey Bulletin 2018, 일본: SBJ, National Time Use Survey 2011, 태국: NSO, Migration Survey 2017, 베트남: GSO,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2018, 몽골: NSO, Time Use Survey 2019, 인도네시아: Greater Jakarta Area Commuter Survey 2014.

〈표 7-2〉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자녀 유무별 출퇴근시간

	남성				여성			
	전체	자녀 없음	미취학 자녀	학령기 자녀	전체	자녀 없음	미취학 자녀	학령기 자녀
한국	87.1	83.1	97.3	98.8	63.9	64.9	57.1	58.9
중국	53.5	59.7	56.6	53.8	54.9	68.3	53.9	51.7
태국	35.7	37.5	34.0	33.9	36.4	39.2	33.8	33.4
인도네시아	132.0	130.4	124.6	128.9	122.1	126.8	116.5	124.9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Table LMF2.6.A: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by gender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2008-2010

2. 한국 2019년, 중국 2010년, 태국 2017년, 인도네시아 19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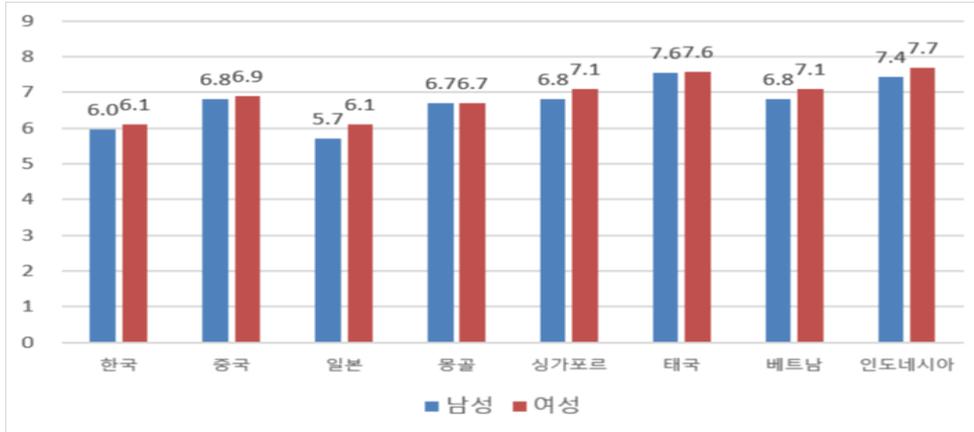
자료: 한국: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중국: NBS, Chinese Women's Social Status Survey 2010, 태국: NSO. Migration Survey 2017,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Greater Jakarta Area Commuter Survey 2014.

한편, 국가별 비교를 함에 있어 자료를 수집한 조사 자료의 유형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루 동안 보낸 시간을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조사한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국가 있는 반면에, 면접 조사를 통해 소요한 시간을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 국가도 있다.

### 3.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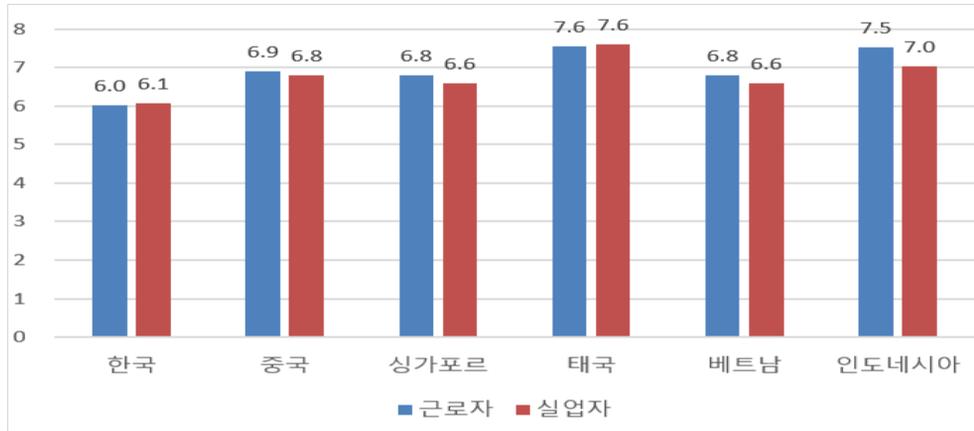
삶의 만족도 수준에서 큰 성별 격차를 보이지 않지만,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7-10). 근로자와 실업자 간에도 삶의 만족도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근로자가 약간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그림 7-11).

[그림 7-10]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 삶의 만족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2.7.C: Life satisfaction by gender, 2015 or last year available  
 2. 한국 2019년, 중국 2012년, 일본 2014년, 몽골 2018년, 싱가포르 2012년, 태국 2013년, 베트남 2012년, 인도네시아 2018년  
 3. 삶의 만족도 수준은 1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응답함  
 자료: 한국: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중국, 태국, 베트남: World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4, 일본: World Gallup Survey, 2013-2015(version Sep 2015), 몽골: NSO. Social Indicator Sample Survey 2018, 인도네시아: World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020.

[그림 7-11] 아태지역 취업별 삶의 만족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2.7.D: Life satisfaction by employment status, 2015  
 2. 한국 2019년, 중국 2012년, 싱가포르 2012년, 태국 2013년, 베트남 2012년, 인도네시아 2018년  
 3. 삶의 만족도 수준은 1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응답함  
 자료: 한국: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중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World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4, 인도네시아: World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020.

#### 4. 자료의 제약

자녀 특성별 혹은 가구 특성별 근로 시간 유형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아태지역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0~14세)가 있는 가구의 근로 시간 유형(LMF2.2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s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과 한부모의 근로 유형과 근로 시간(LMF2.3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single parents)에 대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자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돌봄 노동에 소요한 시간에 대해서도 자녀 유무별, 자녀 수별, 막내 자녀 연령별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LMF2.5. 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가족 친화적 근로 환경의 현황(LMF2.4.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에 대한 자료도 아태지역 국가에서 수집되지 않고 있다.

### 제3절 소결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으며, 임금 수준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유급 노동 및 학습에 소요하는 시간 비중이 더 크고 여성들이 비임금 노동에 소요하는 시간 비중이 더 크다. 이는 아태지역 전반에 걸쳐 남성이 여성보다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것을 전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남성의 연령별 고용률 그래프의 형태는 모든 국가에서 전형적인 “역 U자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그래프의 형태는 국가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이 특정한 유형으로 수렴되고 있는 경향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각 국가가 직면한 노동시장 여건이 서로 다르고 성역할에 대한 태도, 여성 고용에 대한 시각과 입장이 국가마다 차별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성 고용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직면한 경제적인 상황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본

다. 이는 시간제 고용률도 어떤 국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반면, 남녀 간에 유사한 국가도 있고, 남성의 시간제 고용률이 여성보다 높은 국가도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아태지역 전반에 걸쳐 40시간 이상 일하는 비중이 가장 많으나 최근에 와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저출산에 직면한 국가에서 그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 몽골, 베트남 등 개발 도상 국가를 중심으로 40시간 이상 일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아태지역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녀가 있는 성인이 자녀가 없는 성인 보다 출퇴근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여 자녀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태지역 국가는 기본적인 고용률과 돌봄 시간에 대한 자료만을 제공할 뿐, 보다 세부적으로 가구원 특성별 혹은 자녀 특성별로 고용률, 근로 시간 유형, 돌봄 시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돌봄 시간에 대한 자료도 시간일지 작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생활시간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서베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한 국가도 적지 않았다. 아태지역 국가 사람들이 활용하는 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아태지역 국가 전반에 걸쳐 생활시간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족 친화적 근로 환경에 대해서는 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아태지역 국가에서 가족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러한 움직임은 있으나 자료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아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제 8 장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과 아동 정책

### 제1절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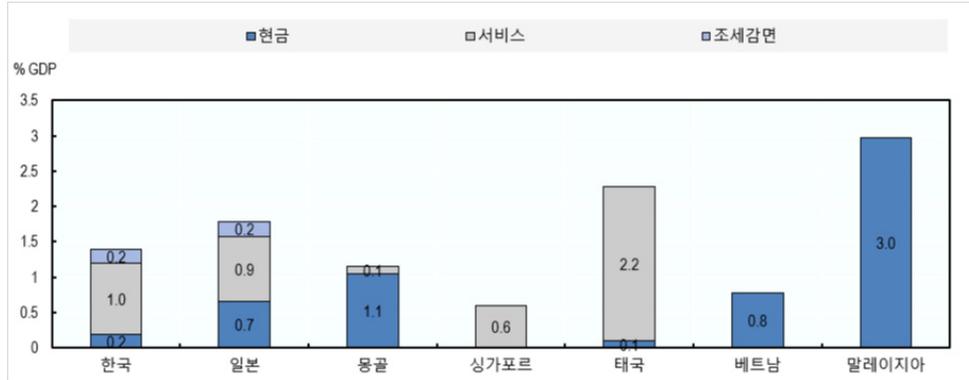
#### 1.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OECD 회원국가들은 OECD Social Expenditure 기준에 따라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작성한다. OECD 회원국가가 아닌 아태지역 국가들은 각 국가의 통계청 혹은 예산처와 같은 국가 공식 기관이 제공하는 예산 지출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자료를 제공하였다(그림 8-1).

아태지역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되지 않았고, 포함된 정책의 내용도 국가 간에 달라서 국가 간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몽골의 경우 현금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로 높는데 이는 현금 지출에 장애인 가구원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현금 지원, 노인 가구원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현금 지원 등 장애인 지원 정책과 노인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태국 역시 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로 높는데 이는 0~15세 아동에 대한 교육 시설 지원이 서비스 지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태지역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를 국가 간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족 지출에 포함되는 항목을 통일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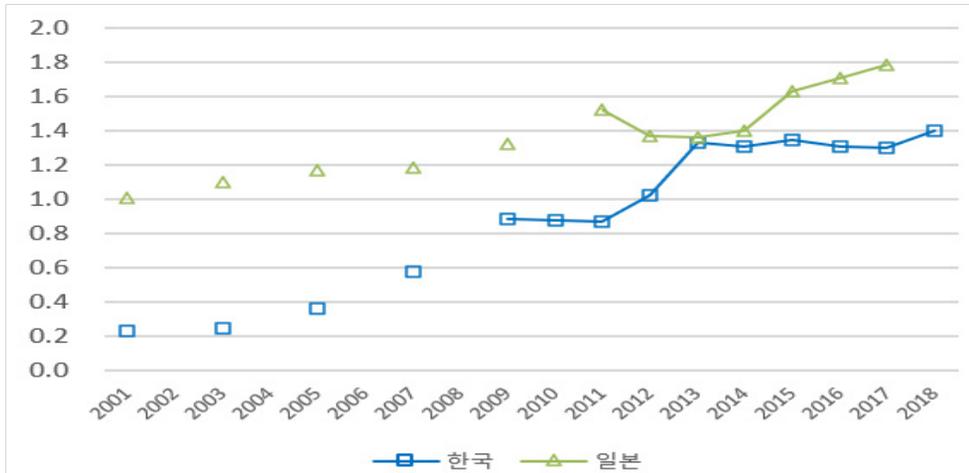
OECD 회원국가로서 OECD Social Expenditure 기준에 따라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자료를 제공하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GDP에서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0.9%이고 현금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어느 정도 균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로서 현금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0.2%보다 월등하게 높다. 한국과 일본 모두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그림 8-2).

[그림 8-1]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PF1.1.A.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2. 한국 2018년, 일본 2017년, 몽골 2019년, 싱가포르 2015년, 태국 2020년, 베트남 2011년  
 자료: 한국과 일본: OECD. (2019e).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몽골: NSO. Statistical Yearbook 2019, 싱가포르: Singapore Government. (2016). Analysis of Revenue and Expenditure (Table 3.6B), 태국: Bureau of the Budget Office, Budget in Brief;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Child Support Grant Project, 베트남: GSO. Statistical Yearbook 2012, 말레이시아: Government of Malaysia. Annual Budget 2021; Economic Planning Unit, Prime Minister's Department. Eleventh Malaysia Plan 2016-2020.

[그림 8-2] 한국과 일본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연도별 변화 (2001~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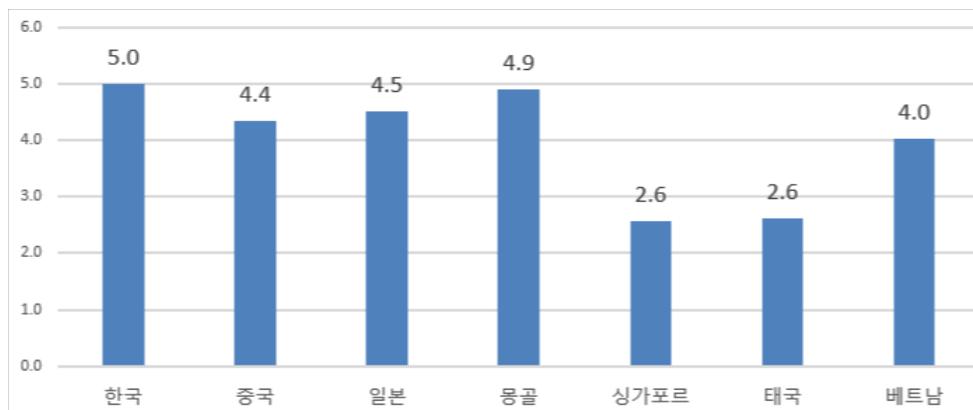


주: OECD Family database 지표: Public spending on families over time  
 자료: OECD. (2019e).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 2.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교육까지 공공과 민간이 지출한 총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이 약 4~5%를 차지하며, 싱가포르와 태국은 약 2% 수준을 보인다(그림 8-3). 교육에 대한 지출을 공공지출과 민간지출로 구분해 볼 때 공공지출의 많은 부분은 초중등 교육에 사용되고 있으며, 민간지출의 많은 부분은 대학 교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그림 8-4). 교육에 대한 지출 현황은 한국과 일본은 OECD, 인도네시아는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중국, 몽골, 싱가포르, 태국은 해당 국가의 통계청이나 교육부 등 공식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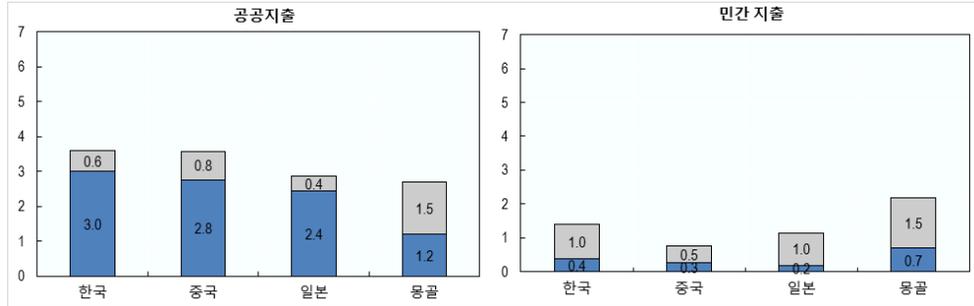
[그림 8-3] 아태지역 국가의 교육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PF1.2.A 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GDP, by level of education and source of funds, 2017

2. 한국 2017년, 중국 2018년, 일본 2017년, 몽골 2020년, 싱가포르 2014년, 태국 2020년, 베트남 2020년  
 자료: 한국, 일본: OECD. Education at a Glance, 중국: NBS. Chinese Educational Yearbook 2019, Source of Educational Fund and Expenditure for Education in Various Schools: NBS. 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s Yearbook 2020, Table 1-33, 몽골: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싱가포르: DOS. (2016).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태국: Bureau of the budget, Thailand's Budget in brief fiscal year 2020, 인도네시아: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그림 8-4] 아태지역 국가의 교육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공공지출과 민간지출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PF1.2.A 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GDP, by level of education and source of funds, 2017  
 2. 막대그래프의 파란색 부분은 초등 및 중등교육에 지출한 비중, 회색 부분은 대학교육에 지출한 비중  
 3. 한국 2017년, 중국 2018년, 일본 2017년, 몽골 2020년  
 자료: 한국, 일본: OECD. Education at a Glance, 중국: NBS. Chinese Educational Yearbook 2019, Source of Educational Fund and Expenditure for Education in Various Schools; NBS. 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s Yearbook 2020, Table 1-33, 몽골: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 3. 가족 급여 현황

아태지역 국가들은 일반적인 유형의 가족과 취약 가정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 현금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 연령 혹은 학교 재학과 같은 아동의 특성과 부모의 근로 상태를 고려하여 현금급여 혹은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가족 급여가 가구의 소득 수준, 가족 유형, 자녀 연령, 자녀 수별로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OECD Family database 지표: “PF1.3. Family Cash Benefit”).

### 4.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비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부가 이혼할 때 부모 혹은 법원이 개입하여 자녀 양육비를 결정한다. 부부가 양육비 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 법원은 이혼한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양육비는 대부분 자녀 연령이 18세 될 때까지 지급된다. 모든 나라에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OECD Family database 지표: “PF1.5. Child Support”).

## 5.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전하는 법적 연령

아태지역 국가에서 아동의 의무교육 연령과 근로 가능연령은 15세 (중국과 베트남의 근로 가능 연령은 16세)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인, 형법적 책임 연령, 음주, 주류 구매,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성인 연령은 중국, 몽골, 베트남이 18세, 한국 19세, 일본과 태국이 20세, 인도네시아가 21세이다.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연령은 인도네시아가 12세로 가장 낮고 한국, 중국, 일본이 14세, 태국 15세, 몽골 16세, 베트남이 18세이다. 혼인 가능 연령은 한국과 몽골이 18세로 가장 낮고, 베트남은 여성은 18세, 남성은 20세, 인도네시아는 19세, 중국은 여성 20세, 남성 22세, 일본과 태국은 20세이다. 음주 가능 연령과 술 구매 가능 연령은 성인 연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다.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은 일본 13세, 중국 14세, 태국 15세, 한국, 몽골, 베트남 16세, 인도네시아 18세이다.

〈표 8-1〉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전하는 법적 연령

	성인	형법상 책임	혼인	의무교육	근로	음주	주류 구매	성관계
한국	19세	14세	18세	15세	15세	19세	19세	16세
중국	18세	12~14세	20세(여) 22세(남)	15세	16세	18세	18세	14세
일본	20세	14세	20세	15세	15세	20세	20세	13세
몽골	18세	16세	18세	15세	15세	21세	21세	16세
태국	20세	15세	20세	15세	15세	20세	20세	15세
베트남	18세	18세	18세(여) 20세(남)	15세	16세	18세	18세	16세
인도네시아	21세	12세	19세	15세	15세	21세	21세	18세

주: OECD Family database 지표: Table PF1.8.A. Age of majority, Table PF1.8.B.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able PF1.8.C. Minimum age for marriage, Table PF1.8.D. School leaving age and Employment age, Table PF1.8.E. Minimum age to consume and purchase alcohol, Table PF1.8.G. Minimum age for sexual consent

자료: 한국: 민법, 제4조(2011), 형법, 제9조(1953), 교육기본법, 제8조(2007), 근로기준법, 제65조(200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2013), 중국: Civil Code(2020), Criminal Law Amendment (2020), Marriage and Family Law (2020), Minors Protection Law (2020), 일본: OECD. OECD Family database, 몽골: Law on Criminal, Law on Family, Law on Labor, Law 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on the fight against alcohol, 태국: 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Labour, The office of Alcohol Control Committee, Ministry of Public Health, 베트남: Civil Law(2019), Marriage and Family Law(2020), Education Law(2019), Law on prevention of harmful effects of alcohol(2019), Criminal Law(2017), 인도네시아: Singh & Jooee. (2018). Age of Consent: Ethical, Cultural and Social Review-Indonesia Country Report 2018, Marriage Law 2019, Presidential Instruction No. 1 of 1994 on Compulsory Educati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Ministry of Trade Regulation,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 6. 자료의 제약

OECD가 각 회원국가로부터 기초적인 자료를 받아서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는 지표인 “PF1.4. Neutrality of Tax-Benefit System”에 대한 자료는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수집하기 어렵다. 동 지표는 정부로부터 받는 조세 및 현금 지원이 맞벌이와 홑벌이가구의 가구 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맞벌이를 할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조세와 현금 지원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는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지향하는 OECD 회원국가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아동 연령별 공공 지출에 대한 자료도 아태지역 국가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다 (“PF1.6 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동 지표는 아동 연령별로 공공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유용한 지표로서 아동의 각 발달 단계별로 적절하게 공공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향후 아태지역 국가에서도 아동 연령별로 공공지출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가 수집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결속에 대한 자료도 아태지역 국가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다 (“PF1.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제6장의 가족의 유형에서 살펴보았듯이 아태지역 국가에서는 아직도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가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한 아태지역 국가에서 세대 간 결속은 OECD 회원국가보다 강할 수 있다. 아태지역 국가에서 세대 간 결속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보다 자세한 자료가 수집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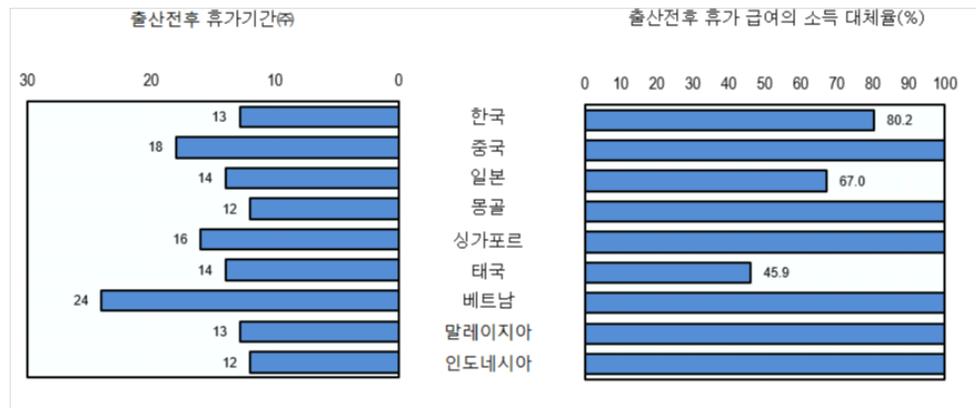
아태지역 국가에서 학대에 의해 사망한 아동 혹은 의도적인 사고로 인해 사망한 아동에 대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용인 정도에 대한 자료도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이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 학대 등 아동 인권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구축하고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아태지역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제2절 자녀 관련 휴가 정책

### 1. 출산전후휴가

아태지역 국가의 대부분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베트남이 24주로 가장 길고 중국이 18주이다. 한국, 일본, 몽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12~14주 기간의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한다. 중국, 몽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유급의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한다. 한국, 일본, 태국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만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제공한다.

[그림 8-5] 아태지역 국가의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급여의 소득 대체율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PF2.1.A. Paid maternity leave  
 자료: 한국: 고용노동부(2021), 중국: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pecial Provisions on Labor Protection of Female Employees, 일본: Blum, Koslowski, Macht, & Moss, 2018, 몽골: Law on Labor, 싱가포르: 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Population in Brief, 태국: Social Security Fund, Civil Service Commission regulations for support time to mother, father and children, 베트남: Social Insurance Law 2014, 인도네시아: Addati, Cassirer, & Gilchrist, 2014.

### 2. 육아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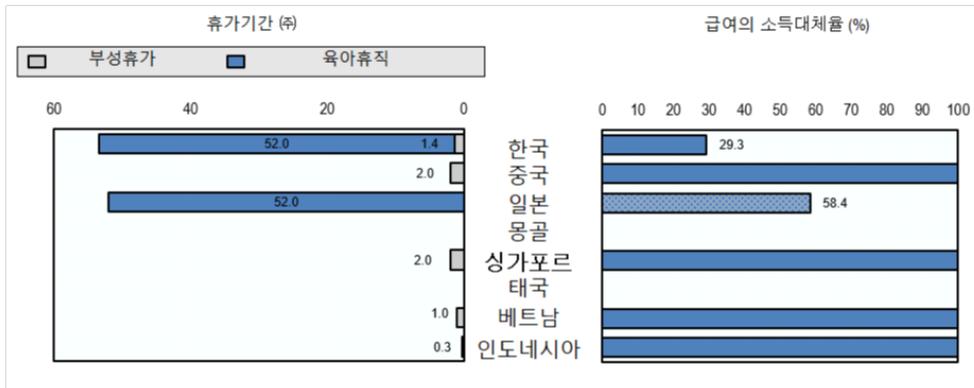
아태지역국가에서 출산전후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과 일본의 육아휴직 기간은 각각 52주와 44주이며 동 기간 각각 급여의 28.5%와 59.9%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까지 합한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자녀 출산

이후에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총 휴가기간은 각각 64.9주와 58주이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합한 기간 동안 제공되는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한국이 38.8%, 일본이 61.6%이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 더 긴 휴가와 낮은 소득대체율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여성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아버지에게 한국,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여성휴가를 제공한다. 여성휴가 기간은 중국과 싱가포르 2주, 한국 1.4주, 베트남 1주, 인도네시아 0.3주이다. 모든 국가에서 여성휴가는 유급으로 제공한다. 한국과 일본은 아버지에 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성휴가까지 합하여 아버지가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은 한국이 53.4주, 일본이 52주이다. 여성휴가 기간 동안 제공되는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한국이 29.3%, 일본이 58.4%로 한국이 일본보다 낮다.

[그림 8-6] 아태지역 국가의 여성휴가 기간과 급여의 소득 대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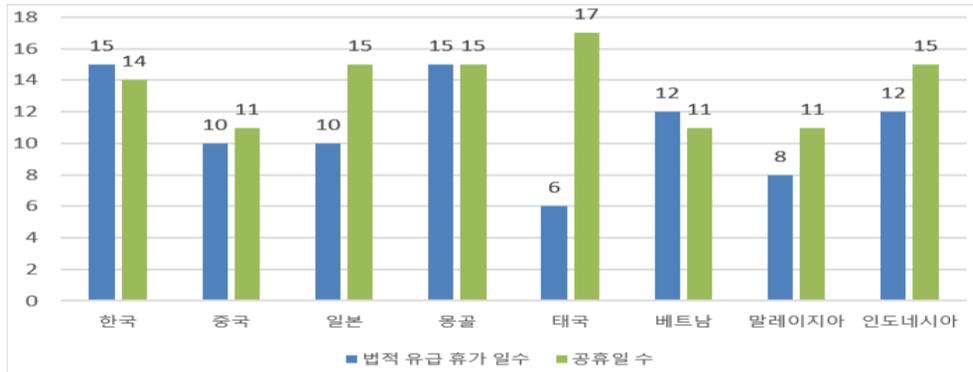


주: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PF2.1.C. Paid leave reserved for fathers  
 자료: 한국: 고용노동부(2021), 중국: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pecial Provisions on Labor Protection of Female Employees, 일본: Blum, Koslowski, Macht, & Moss, 2018, 싱가포르: 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Population in Brief, 태국: Social Security Fund, Civil Service Commission regulations for support time to mother, father and children, 베트남: Social Insurance Law 2014, 인도네시아: Addati, Cassirer, & Gilchrist, 2014.

#### 4. 법적 유급 휴가일 수와 공휴일 수

아태지역 국가의 법적 유급 휴가일 수는 태국 6일부터 한국과 몽골 15일까지 다양하다. 연간 공휴일 수는 11일부터 17일까지의 수준을 보인다.

[그림 8-7] 아태지역 국가의 법적 유급 휴가일 수와 공휴일 수



주: OECD Family database 지표: Table PF2.3.A: Statutory and collectively agreed annual leave  
 자료: 한국: 근로기준법, 제60조(20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2021), 중국: ILO. Regulations on Paid Annual Leave of Employees: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ational New Year's Day and Memorial Day Holiday Measures (Revised in 2013), 일본: World Bank. Doing Business: Measuring Business Regulation: ILO Travail Database, 몽골: Law on Labor: Law on Public Holidays and Anniversaries, 태국: Thai labour law, 베트남: Labour Law 2019, 말레이시아: Employment Act 1955, 인도네시아: Cabinet Secretary of Indonesia

#### 5. 자료의 제약

비교 대상 아태지역 국가가 대부분 출산전후휴가만 제공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육아휴직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료, 예를 들면 소득수준별 및 자녀 출산 이후 시기별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PF2.4. 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육아휴직 사용자 현황(PF2.2. Use of Childbirth-Related Leave Benefits)을 제공하기 어렵다. 아태지역 국가들이 출산전후휴가와 부성휴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 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모성휴가 일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PF2.5. Trends in Leave Entitlement around Childbirth)에 대한 자료도 수집되지 못했다. 아태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와 부성 휴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수집될 필요가 있다.

### 제3절 영유아 자녀 보육교육 정책

#### 1.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

아태지역의 영유아 보육교육체계는 전반적으로 0~2세 보육과 3~5세 유아교육으로 구분된다. 0~2세는 보육 시설이나 가정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3~5세는 유치원에서 조기 교육을 받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6세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된다.

〈표 8-2〉 아태지역 국가의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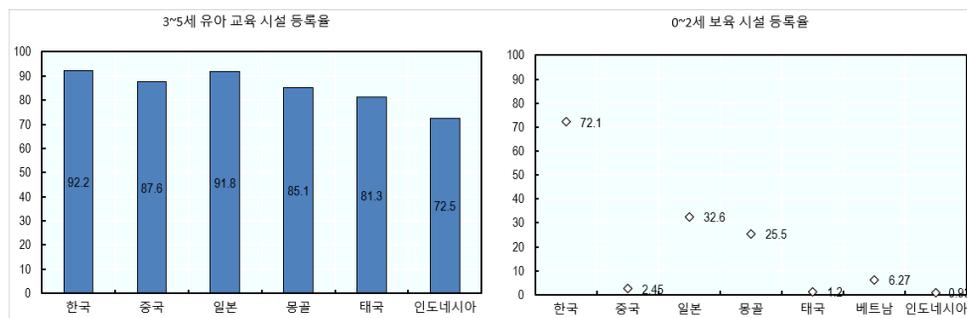
국가	아동 연령							
	0	1	2	3	4	5	6	7
한국	보육 시설			유치원				의무교육
	가정 보육 시설			유치원				
중국	가정 보육 시설			유치원				
	보육 시설			유치원				
일본	인정어린이집							
	가정 보육 시설			유치원				
몽골				유치원				
싱가포르	영아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태국	가정 보육 시설			유치원				
	Center based care			pre-school				
베트남	Family care and day care centers			Kindergartens, Day care and Pre-school				
인도네시아								
						유치원		
					놀이시설			
				보육시설				

주: OECD Family database 지표: Table PF4.1A Typology of Childcare  
 자료: 한국: 아동복지법(2021), 유아교육법(2021), 초·중등교육법(2021), 중국: NBS. Chinese Educational Yearbook 2019, NBS. 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s Yearbook 2020, 일본: OECD. OECD Family Database, 싱가포르: 전문가 자료 제공, 몽골: Law on Pre-School education, 태국: Bureau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al Statistics in Brief 2009, 인도네시아: ILO. (2020). Extending childcare services to workers in the informal economy: Policy lessons from country experiences.

## 2.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등록률

3~5세 유아 교육 시설 등록률은 한국과 일본이 90%가 넘으며, 중국, 태국, 몽골이 80% 이상이며, 인도네시아는 70% 이상의 수준을 보인다. 아태지역 국가들에서 유아교육시설 등록률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0~2세 보육 시설 등록률은 한국을 제외하고 크게 높지 않다. 일본과 몽골은 약 20~30% 수준의 0~2세 보육 시설 등록률을 보인다.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0~2세 보육 시설 등록률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8-8] 아태지역 국가의 3~5세 유아 교육시설 등록률 및 0~2세 보육시설 등록률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PF3.2.A.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 Chart PF3.2.E.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 to 5-year-olds

2. 3~5세 유아 교육 시설 등록률은 한국 2020년, 중국 2019년, 일본 2018년, 태국 2019년, 몽골 2019년, 인도네시아 2018년 자료, 0~2세 보육시설 등록률은 한국 2020년, 중국 2019년, 일본 2018년, 태국 2019년, 베트남 2017년, 몽골 2019년, 인도네시아 2019년 자료

자료: 한국: 보건복지부. (2021a). 2020년 보육통계; 중국: NBS. 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s Yearbook 2020, 일본: OECD. (2019c). Education at a Glance, 2019, 몽골: NSO. Statistical Yearbook 2019, 태국: Ministry of Education, Official statistics registration systems, Department Of Provincial Administration. Educational Statistics in Brief 2019,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National Socio-Economic Survey 2019.

## 3. 자료의 제약

아태지역 국가에서 영유아 보육교육과 관련한 자료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PF3.1.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0~2세에 대한 비공식적 보육 제공 현황(“PF3.3. 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 영유아 자녀의 보육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족이 지출하는 비용(“PF3.4. Childcare Support”), 보육교육 서비스

의 질적인 수준(“PF4.2,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방과후 학교 이용 현황(“PF4.3. Out of School Hours Care”)에 대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 제4절 소결

아태지역 국가의 대부분이 한부모 등 취약 가정을 포함하여 가족에 대해 현금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자녀 출산 이후에 여성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아버지에게 부성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3세 이상 유아에게 유치원에서 유아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3~5세 보육교육 시설 등록률도 70~80% 이상으로 매우 높다. 하지만 육아 휴직을 제공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0~2세 영아의 보육 시설 등록률은 대부분 매우 낮다.

아태지역의 가족 정책 현황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만 보고되고 있고 세부적으로 자세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 대상 현금 지원의 경우 가구의 소득 기준, 가족 유형, 자녀 연령, 자녀 수별로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출산 전후 휴가와 부성 휴가도 제도를 운영한다는 정보만 제공될 뿐, 출산 전후 휴가와 부성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와 부성 휴가가 언제부터 마련되어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비공식적 보육 서비스의 제공 현황, 보육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출 현황,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방과후 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아태지역의 가족 정책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우선적인 이유는 해당 국가에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제도는 존재하지만 OECD Family database의 가족과 아동 정책 관련한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아태지역의 가족 정책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기술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아태지역의 가족 정책에 대한 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가족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정성적인 방법으로 기술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정성적으로 작성된 각 국가의 제도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아태지역의 가족 정책을 정량적인 지표로 자료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 제 9 장 아태지역 국가의 아동 성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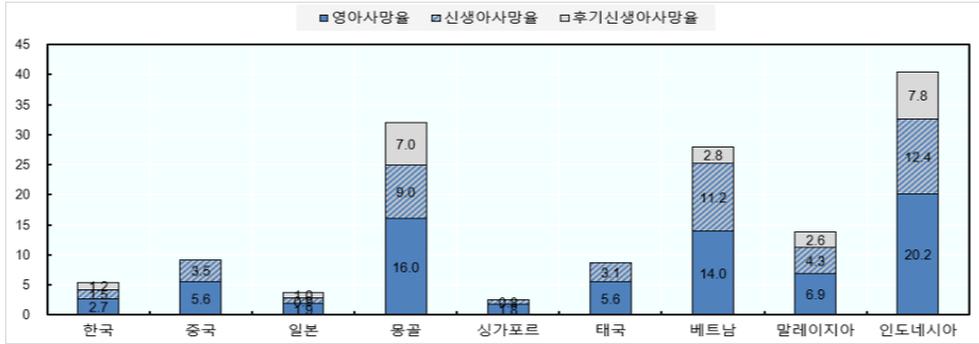
### 제1절 아동 건강

#### 1.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은 인도네시아가 20명으로 가장 높고, 베트남과 몽골이 약 15명 내외로 높다.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이 5명 내외의 수준을 보이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가 2명 내외로 낮다. 신생아 사망률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이 10명 내외로 높다.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이 3~4명 수준이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가 1명 내외로 낮다. 후기 신생아 사망률 자료를 제공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자료를 제공한 국가를 중심으로 보면 몽골과 인도네시아가 약 7명으로 많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약 3명 이하 수준이다. 한국과 일본은 1명 내외로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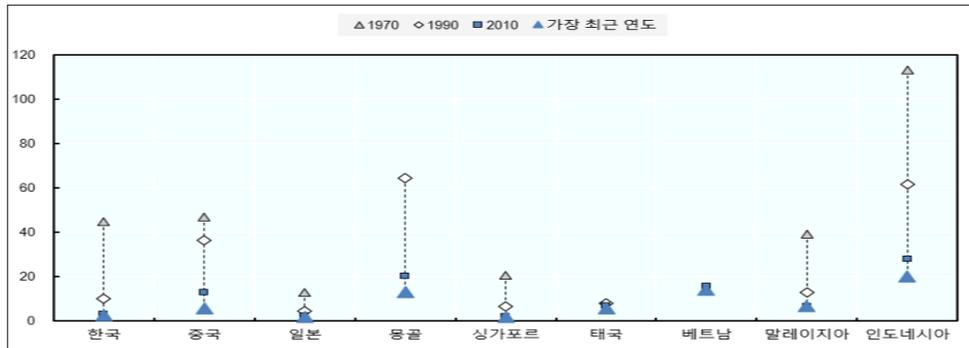
영아 사망률은 모든 국가에서 1970년 이래로 하락하고 있다([그림 9-2]).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 영아 사망률이 높은 국가에서 특히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9-3]).

[그림 9-1] 아태지역 국가의 영아 사망률·신생아 사망률·후기 신생아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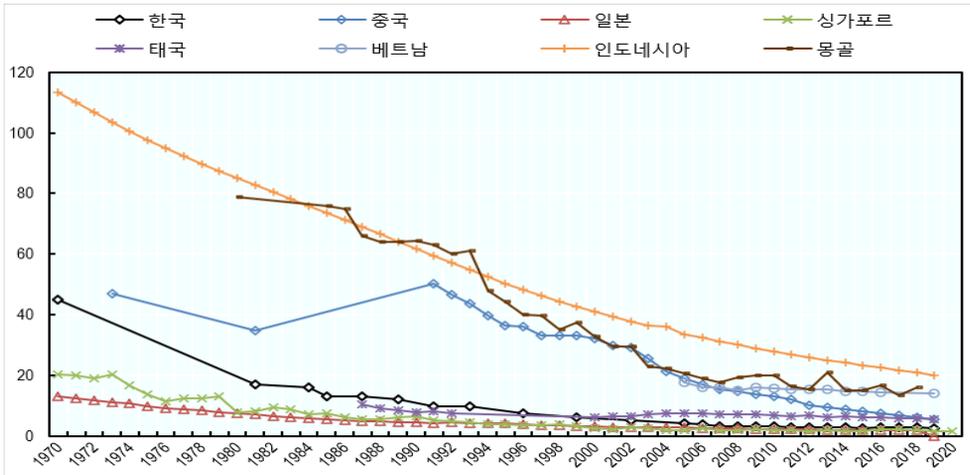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1.1.A. Infant mortalitya, neonatal mortalityb, and post-neonatal infant mortalityc rates,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2.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당 1년 이내 사망한 수, 신생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8일 이내 사망한 수, 후기 신생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8일부터 1년 이내 사망한 수  
 3. 한국 2019년, 중국 2019년, 일본 2018년, 몽골 2018년, 싱가포르 2020년, 태국 2019년, 베트남 2019년, 말레이시아 2015년, 인도네시아 2019년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일본: OECD. OECD Health Statistics, 몽골: NSO. Social Indicator Sample Survey 2018,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DOS); Immigration and Checkpoint Authority(ICA), 태국: Ministry of Public Health. Public Health Statistics 2019, 베트남: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9; Health Statistics 2019, 말레이시아: DOSM. Vital Statistics, 인도네시아: UN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

[그림 9-2] 아태지역 국가의 영아 사망률 추이 (1970, 1990, 2000년, 가장 최근 연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O1.1.C. Infant mortality rates, 1970, 1990 and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2.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당 1년 이내 사망한 수  
 3. 한국 1970년, 1991년, 2019년, 중국 1973년, 1995년, 2019년, 가장 최근 연도는 일본 2018년, 몽골 2019년, 싱가포르 2020년, 태국 2019년, 베트남 2019년, 말레이시아 2015년, 인도네시아 2019년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OECD. OECD Health Statistics, 중국: NBS. China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Statistical Yearbook 1992-2015, Table 8-1; NBS. Statistical Bulletin on Health and Family Planning in China 2016, 2017, 2019, 일본: OECD. OECD Health Statistics, 몽골: NSO. Statistical Yearbook 2019,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DOS); Immigration and Checkpoint Authority(ICA), 태국: Ministry of Public Health. Public Health Statistics 2019, 베트남: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9, 말레이시아: DOSM. Vital Statistics (각연도), 인도네시아: UN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

[그림 9-3] 아태지역 국가의 영아 사망률 추이 (1970~2020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1.1.B. Trends in infant mortality rates, 1970-2018

2.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당 1년 이내 사망한 수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OECD. OECD Health Statistics, 중국: NBS. China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Statistical Yearbook 1992-2015, Table 8-1; NBS. Statistical Bulletin on Health and Family Planning in China 2016, 2017, 2019, 일본: OECD. OECD Health Statistics, 몽골: NSO. Statistical Yearbook 1991, 1995, 1999, 2004, 2016, 2018; NSO. Social Indicator Sample Survey 2013, 2018,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DOS); Immigration and Checkpoint Authority(ICA), 태국: Ministry of Public Health. Public Health Statistics 2019, 베트남: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9, 말레이시아: DOSM. Vital Statistics(각연도), 인도네시아: UN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

## 2. 기대 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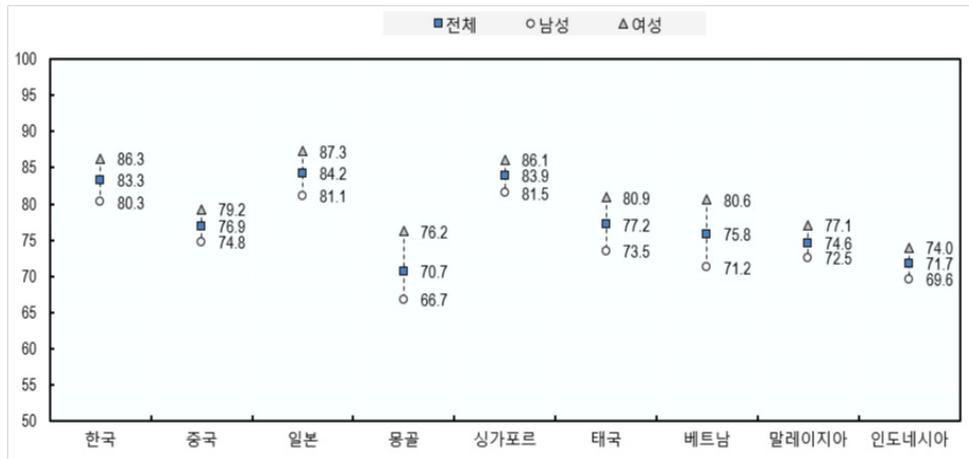
전체 인구의 출생 시 기대여명은 일본, 싱가포르, 한국이 83~84세로 다른 국가들보다 높다(그림 9-4). 중국과 태국이 약 77세로 그다음으로 높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약 75세 수준이며, 몽골과 인도네시아가 약 70세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출생 시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높다. 출생 시 기대여명은 모든 국가에서 상승하고 있다(그림 9-5).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의 기대여명이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높았으나 현재 일본, 한국, 싱가포르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기대여명을 보이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출생 시 건강조정 기대여명은 출생 시 기대여명보다 낮다(그림 9-6). 남성의 경우 출생 시 건강조정 기대여명이 출생 때 기대여명 보다 약 7~9세 정

도 낮고, 여성의 경우 약 9~12세 정도 낮다. 이는 아태지역 국가에서 남성들은 대부분 7~9년 정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남은 생애를 살고, 여성들은 대부분 9~12년 정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남은 생애를 산다는 것을 말한다.

건강수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그림 9-7]). 자료가 제공된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을 비교해 볼 때, 기대여명과 건강수명 간의 격차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남성은 약 7~8세, 여성은 10세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한국은 남성 15.7세, 여성 20.8세로 싱가포르와 베트남보다 훨씬 크다.

[그림 9-4] 아태지역 국가의 출생 시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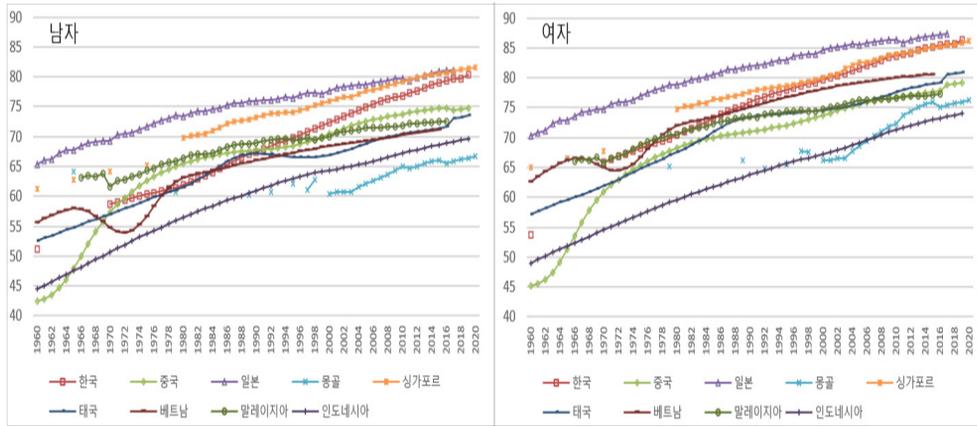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O1.2.B. 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2. 한국 2019년, 중국 2019년, 일본 2017년, 몽골 2020년, 싱가포르 2020년, 태국 2019년, 베트남 2015년, 말레이시아 2015년, 인도네시아 2019년

자료: 한국: 통계청. 생명표,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일본: OECD, OECD Health Statistics,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Statistics,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DOS), 말레이시아: DOSM. (2017). Abridged Life T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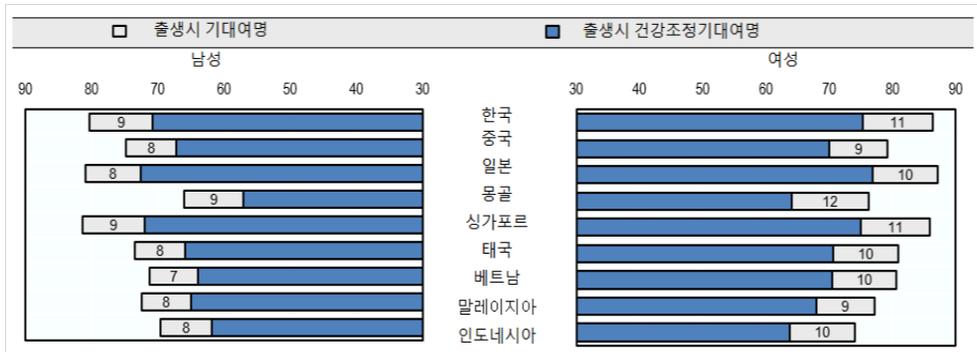
[그림 9-5] 아태지역 국가의 출생 시 기대여명 추이 (1960~2020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1.2.A. Trends in life expectancy at birth by gender, 1960-2018

자료: 한국: 통계청, 생명표,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일본: OECD, OECD Health Statistics,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Statistics,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DOS), 말레이시아: DOSM. (2017). Abridged Life Tables.

[그림 9-6] 아태지역 국가의 기대여명과 건강조정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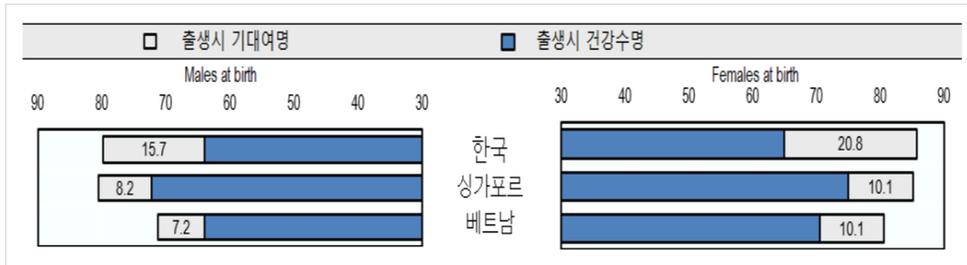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1.2.C. Life expectancy at birth and 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 (HALE) at birth, 2016 or latest available year

2. 한국 2019년, 중국 2019년, 일본 2016년, 몽골 2019년, 싱가포르 2019년, 태국 2019년, 베트남 2015년, 말레이시아 2015년, 인도네시아 2019년

자료: 한국: 통계청, 생명표,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일본: OECD, OECD Health Statistics,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Statistics,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DOS), 말레이시아: DOSM. (2017). Abridged Life Tables.

[그림 9-7] 아태지역 국가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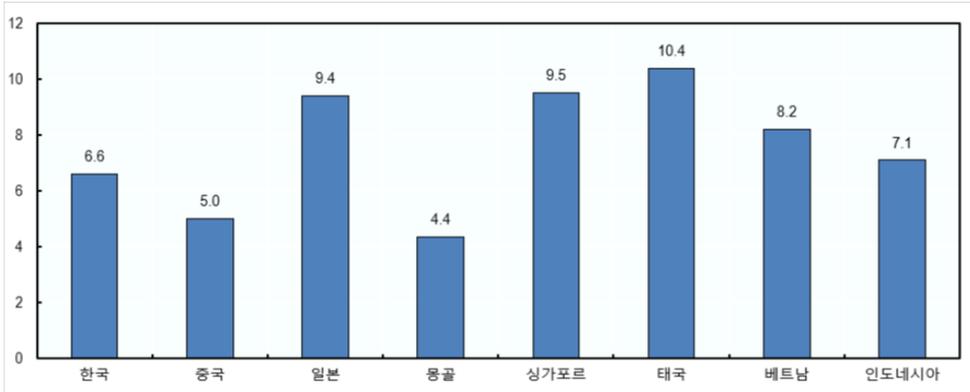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1.2.D. Life expectancy at birth and Healthy Life Years (HLY) at birth, 2018  
 2. 한국 2019년, 싱가포르 2015년, 베트남 2015년  
 자료: 한국: 통계청, 생명표, 싱가포르: Ministry of Health, Population and Vital Statistics, 베트남: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3. 저체중아

전체 출생아 중에서 저체중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 싱가포르, 태국이 약 10%로 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그림 9-8]).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저체중아 비중은 약 7~8% 수준이다. 중국과 몽골은 4~5%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저체중아 비중은 1990년도와 비교해 볼 때 최근에 증가하였다([그림 9-9], [그림 9-10]). 이는 이들 국가에서 여성의 건강과 영양 상태는 좋아졌지만,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저체중아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중국과 태국은 1990년도와 비교하여 최근에 와서 저체중아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여성의 출산 연령이 아직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가 향상됨에 따라 저체중아를 낳는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저체중아의 비중이 낮은 베트남과 몽골에서도 과거에 비해 전체 출생아 중에서 저체중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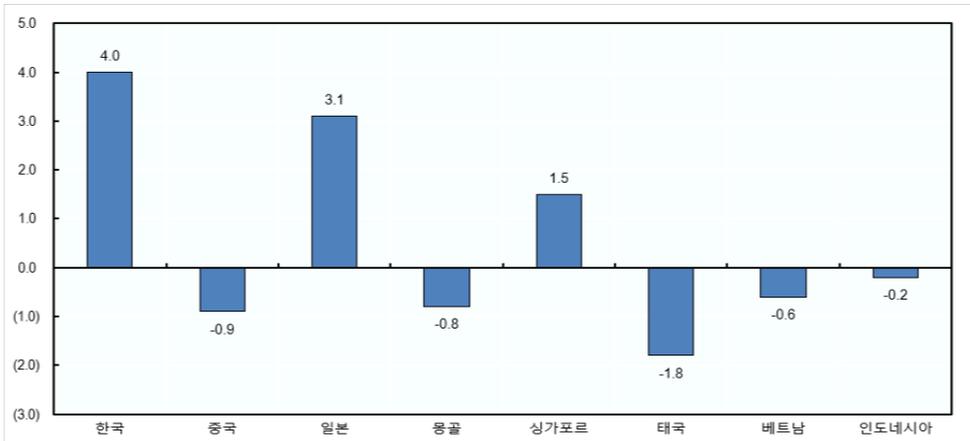
[그림 9-8] 아태지역 국가의 저체중아 비중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1.3.A. 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2. 한국 2019년, 중국 2015년, 일본 2018년, 몽골 2019년, 싱가포르 2011년, 태국 2019년, 베트남 2019년, 인도네시아 2017년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국: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일본: OECD. OECD Health Statistics, 싱가포르: World Bank Open Data, 태국: Ministry of Public Health. Public Health Statistics, 베트남: Health Statistics 2019, 몽골: NSO. Statistical Yearbook 2019,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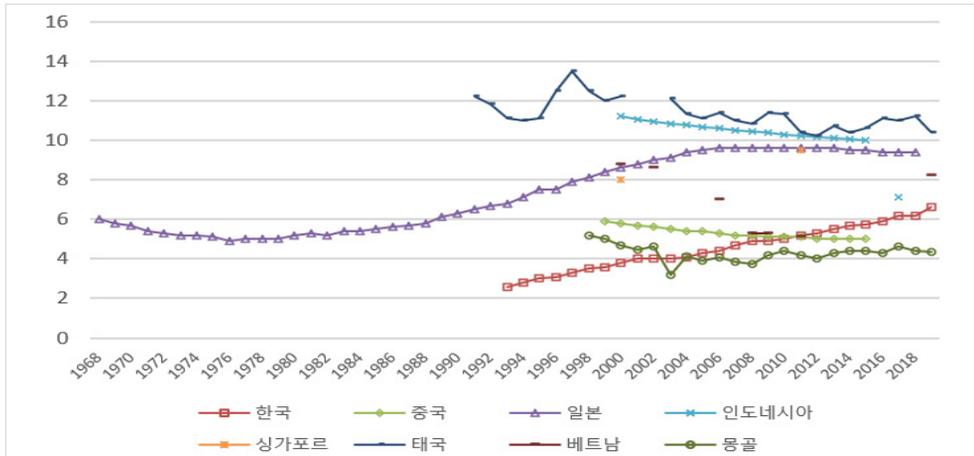
[그림 9-9] 아태지역 국가의 저체중아 비중 변화 (1990년, 가장 최근 연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1.3.B. Changes in 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1990 to 2018 or latest available year  
 2. 한국 1993, 2019년, 중국 2000, 2015년, 일본 1990, 2018년, 몽골 1998, 2019년, 싱가포르 2000, 2011년, 태국 1991, 2019년, 베트남 2000, 2019년, 인도네시아 1991, 2017년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국: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일본: OECD. OECD Health Statistics, 몽골: NSO. Statistical Yearbook 1998, 2019, 싱가포르: World Bank Open Data, 태국: Ministry of Public Health. Public Health Statistics, 베트남: Health Statistics 2019,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7.

[그림 9-10] 아태지역 국가의 저체중아 비중 변화 (1968~2019년)



주: OECD Family database 지표: Low birth weight infants as a proportion of total live births, 1960-2019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국: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일본: OECD. OECD Health Statistics, 몽골: NSO. Statistical Yearbook 1998-2006, 2016, 2019, 싱가포르: World Bank Open Data, 태국: Ministry of Public Health, Public Health Statistics, 베트남: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6, Health Statistics 2019, 인도네시아: World Bank (2000~2015), Statistics Indonesia.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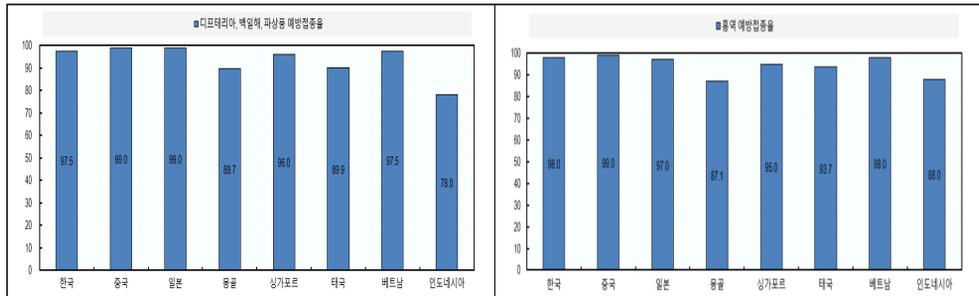
#### 4. 예방 접종률

아태지역 국가의 예방 접종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그림 9-11]).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의 예방 접종률은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100%에 가깝게 높다. 몽골과 태국도 약 90%에 가까운 접종률을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8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홍역 예방 접종률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이 약 100%에 가까운 수준을 보인다. 싱가포르와 태국의 홍역 예방 접종률도 95%의 수준을 보인다. 몽골과 인도네시아의 홍역 예방 접종률은 90%가 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예방 접종률은 모든 국가에서 상승해 왔다([그림 9-12]). 특히 1980년대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예방 접종률이 급속하게 상승하였다.

한편,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의 유병률과 홍역 유병률에 대한 자료는 많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예방 접종률에 대한 자료는 OECD(한국, 일본, 중국), WHO(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한 국

가가 있는 한편, 자국의 보건 통계 자료(베트남) 혹은 자국에서 수행한 서베이 조사 자료를 활용(몽골, 태국)하여 보고한 국가도 있다.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함에 있어 아태지역 국가들이 제공한 자료의 원천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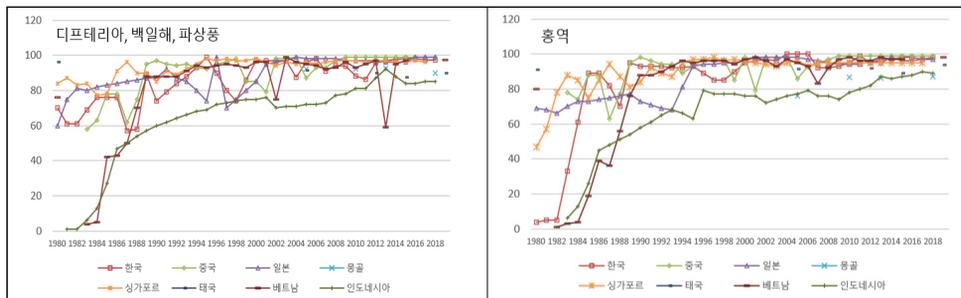
[그림 9-11] 아태지역 국가의 예방 접종률



-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O1.4.A Vaccination rates for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2018 or closest available, Chart CO1.4.B Vaccination rates for measles and the incidence of pertussis, 2018 or closest available  
 2. 한국, 일본, 몽골 2018년, 태국, 베트남 2019년, 중국 2018, 2017년, 싱가포르 2017, 2019년, 인도네시아 2020, 2019년

자료: 한국, 일본: OECD. OECD Health Statistics, 중국: OECD. OECD Health Statistics; NBS. China Health and Family Planning Statistical Yearbook 2019, Table 10-1-3, 몽골: NSO. Social Indicator Sample Survey 2018, 싱가포르: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태국: UNICEF. The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 2019, 베트남: Health Statistics 2019, 인도네시아: World Health Organization.

[그림 9-12] 아태지역 국가의 예방 접종률 추이 (1980~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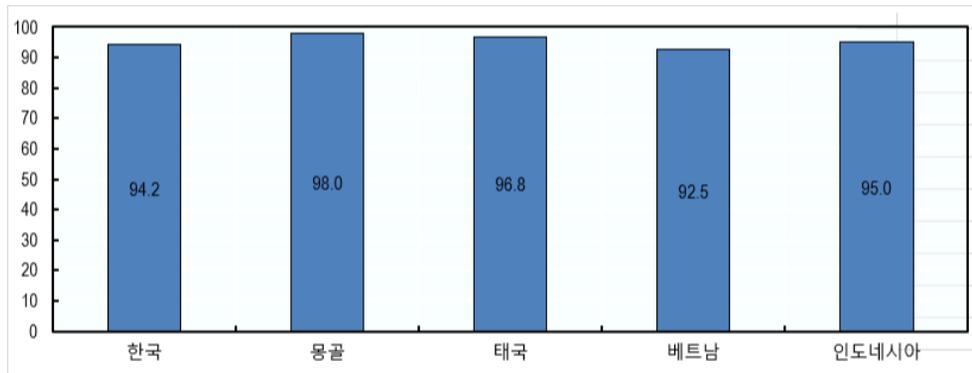


- 주: OECD Family database 지표: Vaccination rates for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and for measles, 1980-2018, Incidence of pertussis and measles, 1980-2019  
 자료: 한국, 일본: OECD Health Statistics, 중국: OECD. OECD Health Statistics; NBS. China Health and Family Planning Statistical Yearbook 2019, Table 10-1-3, 몽골: NSO. Child Development Survey 2005, 2010; NSO. Social Indicator Sample Survey 2013, 2018; NSO. Statistical Yearbook, 1995, 1998, 2002, 2006, 2016, 2019;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statistics, 싱가포르: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Health Observatory;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태국: UNICEF. The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 2019, 인도네시아: WHO, UNICEF.

## 5. 모유 수유 경험률

모유 수유 경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모든 국가에서 모유 수유 경험률을 90% 이상으로 높다. 모유 수유 경험을 생후 3개월, 4개월, 6개월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국가도 많지 않다([그림 9-13]).

[그림 9-13] 아태지역 국가의 모유 수유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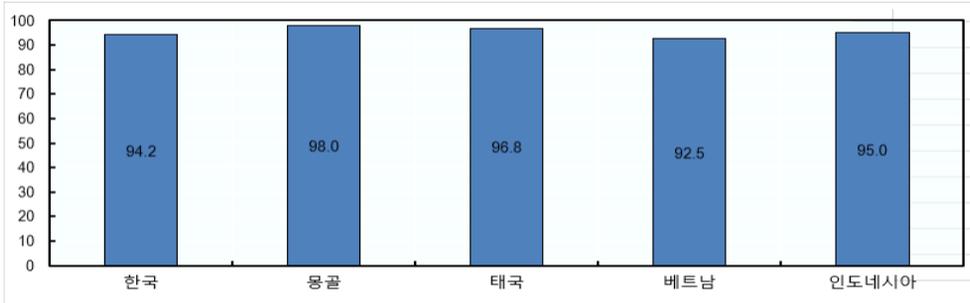
주: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1.5.A: Proportion of children who were "ever breastfed", around 2005

자료: 한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몽골: NSO. Social Indicator Sample Survey 2018, 태국: UNICEF. The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 2019, 베트남: Health Statistics 2019,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7.

## 6. 제1형 당뇨 유병률과 천식 경험률

제1형 당뇨 유병률과 천식 경험률 자료를 제공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볼 때 제1형 당뇨 유병률은 상대적으로 몽골이 높고 베트남이 낮다. 인도네시아의 제1형 당뇨 유병률은 10명 미만으로 비교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천식 유병률은 한국이 일본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보다 높다.

[그림 9-14] 아태지역 국가의 제1형 당뇨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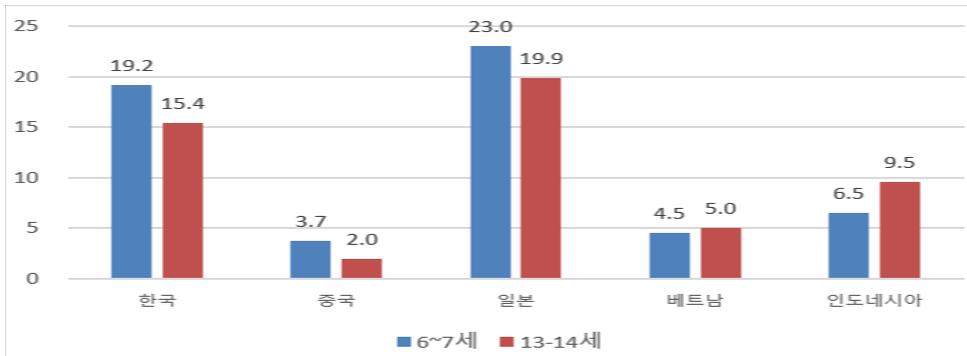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1.6.A. Estimated prevalence of type 1 diabetes in children, 2017.

2. 제1형 당뇨 유병률: 0~19세 아동 100,000명 당 제1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 아동 비중

3. 한국 2019년, 중국 2019년, 일본 2017년, 몽골 2017년, 인도네시아 2019년

자료: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IDF).

[그림 9-15] 아태지역 국가의 천식 유병률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1.6.B. 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6-7, around 2002, Chart CO1.6.C. Prevalence of asthma in children age 13-14, around 2002

2. 한국 2010년, 중국 2010년, 일본 2002, 2012년, 베트남 2010년, 인도네시아 2016/2017, 2011/2013/2016년

자료: 한국: 질병관리청. (2010). 어린이·청소년 알레르기 질환 조사, 중국: National Cooperative Group on Childhood Asthma,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and Related Product Safety, 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Third nationwide survey of childhood asthma in urban areas of China. 일본: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ISAAC), 베트남, 인도네시아: Global Asthma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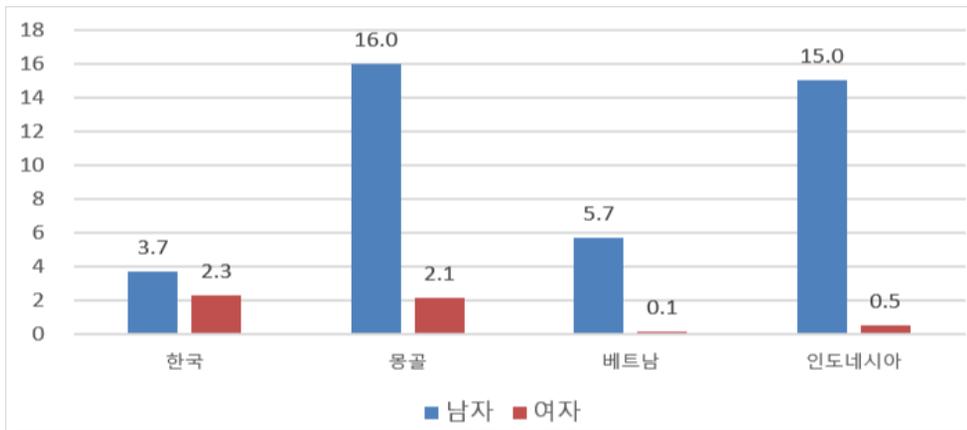
## 7.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흡연율 자료를 제공한 국가를 중심으로 보면 한국과 베트남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흡연율이 모두 5% 내외로 낮다([그림 9-16]). 몽골과 인도네시아는 여학생의 흡연율은 낮

으나 남학생의 흡연율은 15% 이상으로 높다.

한편, 정기적인 흡연자에 대한 정의가 국가마다 다른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OECD Family database는 정기적인 흡연자를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흡연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정기적인 흡연자를 “한 달 동안 하루 이상 흡연자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몽골은 “지난 한 달간 언제라도 흡연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가족이 청소년 흡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조사하지 않고 있다.

[그림 9-16] 아태지역 국가의 청소년 흡연율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1.8.A. Regular smokers at ages 11, 13 and 15 by gender,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2. 한국 15세, 2020년, 몽골 15세, 2018년, 베트남 11세, 2015년, 인도네시아 15세, 2019년  
 자료: 질병관리청. (2020).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몽골: NSO, Social Indicator Sample Survey 2018, 베트남: The Global Adult Tobacco Survey(GATS) 2015, 인도네시아: Global Youth Tobacco Survey(GYT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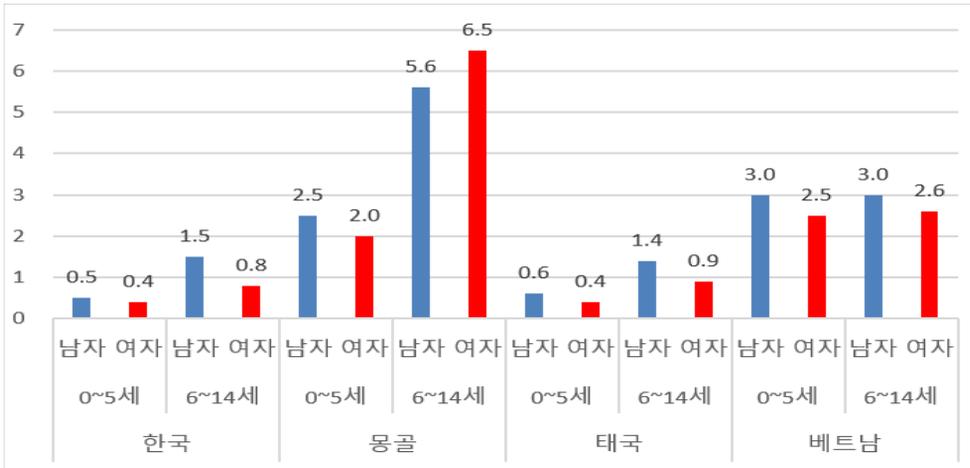
## 8. 아동 장애율

아동 장애율 자료를 제공한 국가를 중심으로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장애율이 더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아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9-17).

장애의 심각 정도, 연령 집단, 학력, 취업 여부, 빈곤 여부에 따라 장애아 비중을 제공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집단별 비중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작성 방식이 OECD 국가와 달라 통일적인 작성 방식이 요청된다.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몽골, 인도네시아는 장애아를 위한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9-17] 아태지역 국가의 아동 장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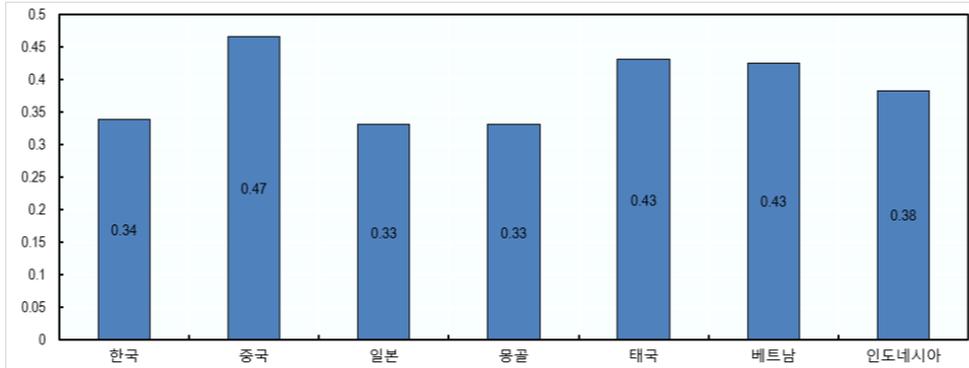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1.9.1 Boys are more likely than girls to experience a disability, 2015  
 2. 한국 2020년, 몽골 2018년, 태국 2017년, 베트남 2015년  
 3. 몽골, 태국, 베트남은 2~4세, 5~17세  
 자료: 한국: 보건복지부. (2021b). 장애인 등록 현황(2020년);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몽골: NSO. Social Indicator Sample Survey 2018, 태국: NSO. The 2017 Disability Survey, 베트남: GSO. 2018 National Survey on people with disabilities.

## 제2절 아동 빈곤

### 1. 소득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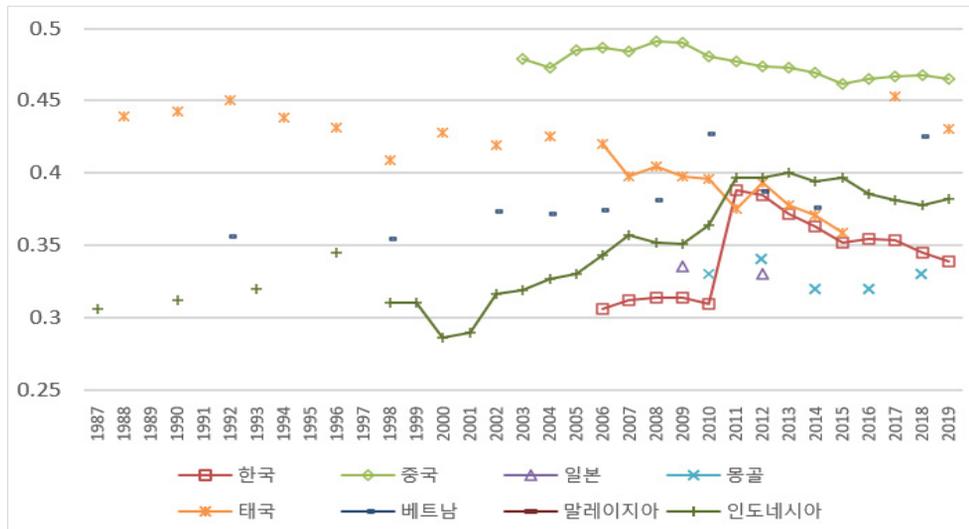
아태지역 국가의 지니계수는 중국이 0.47로 가장 높고, 태국과 베트남이 0.43 수준이며, 인도네시아가 0.38, 그리고 한국, 일본, 몽골이 0.33 수준이다([그림 9-18]). 따라서 비교 대상 아태지역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도는 중국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서로 높으며, 한국, 일본, 몽골의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태지역 국가의 지니계수의 연도별 변화를 볼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거에 불평등도가 증가하였다가 최근에 와서 감소하거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9-19]).

[그림 9-18] 아태지역 국가의 지니계수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2.1.A. Gini coefficient on disposable income, 2015 or nearest available year  
 2. 한국 2019년, 중국 2019년, 일본 2012년, 몽골 2018년, 태국 2019년, 베트남 2018년, 인도네시아 2019년  
 자료: 한국: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중국: China Yearbook of Household Survey 2020, Table 5-1, 일본: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몽골: NSO. Household Socio-Economic Survey, 태국: Office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NESDC), 베트남: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2018, 인도네시아: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그림 9-19] 아태지역 국가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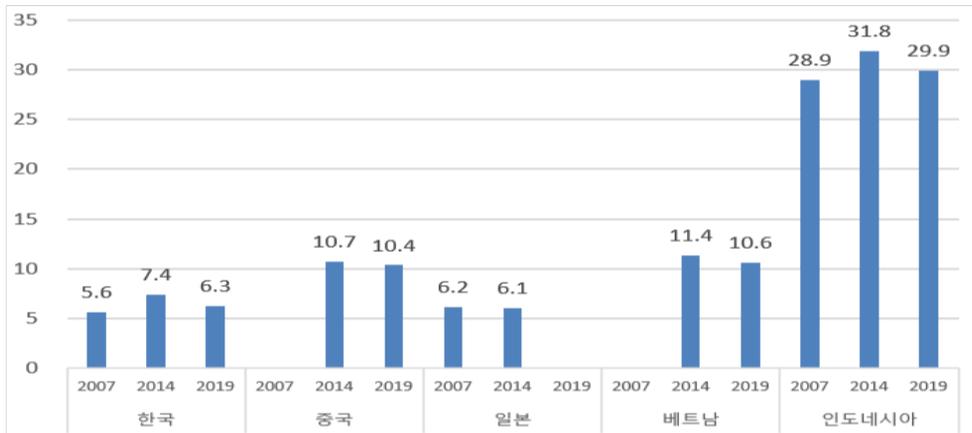


주: OECD Family database 지표: Income inequality, 1987-2016  
 자료: 한국: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2006~2010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1~2019년), 중국: NBS. China Yearbook of Household Survey 2017, Table 7-1, Table 1-1-4; China Yearbook of Household Survey 2020, Table 5-1, Table 1-1-4, 일본: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몽골: NSO. Household Socio-Economic Survey, 태국: Office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NESDC), 베트남: GSO.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1992-2014, 2018, 인도네시아: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소득 80분위와 소득 20분위의 소득 비율은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고 중국과 베트남이 그다음으로 높다(그림 9-20). 한국과 일본이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소득 80분위와 소득 20분위의 소득 비율이 가장 낮다. 이는 최상위 소득 집단과 최하위 소득 집단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베트남보다 불평등도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니계수 혹은 소득 80분위와 소득 20분위의 소득 비율의 모든 지표를 통해서도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 가구 혹은 한부모가구와 같이 가구 유형별로 상대적인 평균 가처분 소득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림 9-20] 아태지역 국가의 소득 80분위와 소득 20분위의 가처분 소득 비율 (2007, 2014, 2019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Table CO2.1.A. Measures of income inequality, 2007, 2014 and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2. 일본 2012년, 베트남은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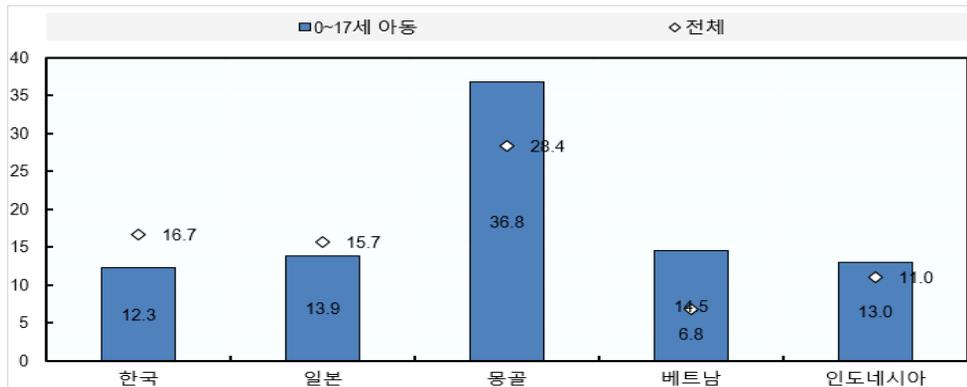
자료: 한국: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2007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4, 2019년), 중국: NBS. China Yearbook of Household Survey 2017, Table 7-1, Table 1-1-4; China Yearbook of Household Survey 2020, Table 5-1, Table 1-1-4, 일본: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베트남: GSO.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1992-2014, 2018, Indonesia: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 2. 아동 빈곤율

아동 빈곤율 자료를 제공한 국가를 중심으로 볼 때 0~17세 아동의 빈곤율은 몽골에서 가장 높고,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10~15% 내외의 수준을 보인다(그림 9-21). 0~17세 아동 빈곤율 추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추이와 유사하다(그림

9-22)]. 싱가포르와 태국의 빈곤율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빈곤율은 2015년도에 상승한 이후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빈곤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전체 빈곤율뿐만 아니라 0~17세 아동의 빈곤율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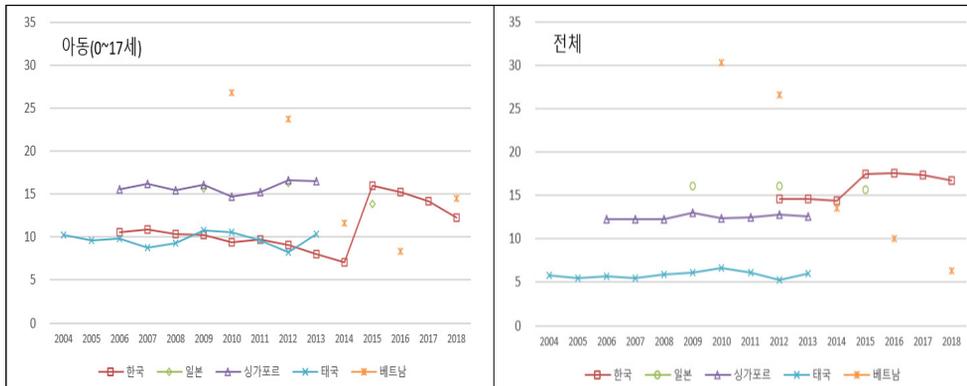
[그림 9-21] 아태지역 국가의 아동(0~17세) 빈곤율과 전체 빈곤율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2.2.A. Child income poverty rates, 2016 or nearest available year  
 2. 한국 2018년, 일본 2015년, 몽골 2018년, 베트남 2018년, 인도네시아 2016

자료: 한국, 일본: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몽골: National Statistics Office(NSO), 태국: Office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NESDC), 베트남: GSO.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2018.

[그림 9-22] 아태지역 국가의 아동(0~17세)빈곤율과 전체 빈곤율 추이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Poverty rates, 1987~2017

자료: 한국, 일본: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몽골: National Statistics Office(NSO), 태국: Office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NESDC), 베트남: GSO.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2010~2018.

한편,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 한부모 가구와 같이 가족 유형별, 취업별로 빈곤율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OECD 국가는 상대적 빈곤율<sup>2)</sup>을 빈곤율 측정 지표로 삼고 있는 반면에, 몽골은 빈곤선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인 절대적 빈곤율로 빈곤을 측정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빈곤선인 2,300위안을 기준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빈곤율 자료를 제공하였다(Chines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20). 따라서 제공된 빈곤율 자료를 국가 간 비교할 때 빈곤율을 측정하는 방식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3. 물질적 박탈 수준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가구 용품 혹은 교육 자원에 대한 박탈 수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가구 용품 혹은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불평등도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제3절 교육 및 문해력

### 1. 대학 교육 이수율

대학 교육을 받은 성인(25~64세) 비중은 일본, 싱가포르, 한국이 약 50%로 높다.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약 15% 내외이다(그림 9-23). 한국, 중국, 싱가포르는 남성의 대학 교육 이수율이 여성보다 높으나, 태국은 여성이 더 높고,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대학 교육 이수율이 남녀 간에 비슷하다. 모든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45~54세 성인에 비해 25~34세 성인의 대학 교육 이수율이 더 높다. 45~54세 성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 교육 이수율이 더 높으나, 25~34세 성인은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 교육 이수율이 더 높다. 이는 아태지역 국가에서 최근 세대로 올수록 여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2)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통계청, 2021i).

한편,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이민 여부 등 부모 배경에 따라 대학 교육 이수율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림 9-23] 아태지역 국가의 대학 교육 이수율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3.1.B. 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tertiary educ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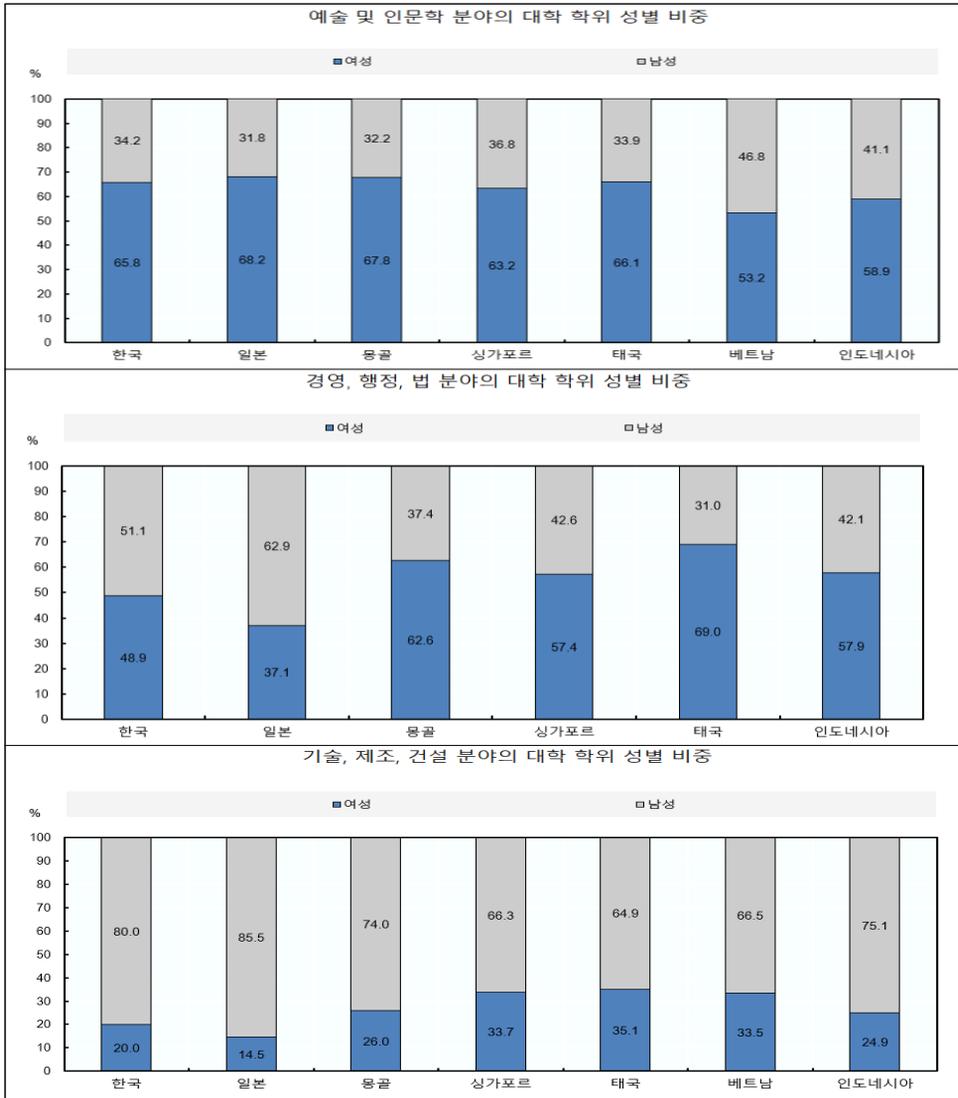
2. 한국 2018년, 중국 2015년, 일본 2018년, 싱가포르 2017년, 태국 2020년, 베트남 2018년, 인도네시아 2019년

자료: 한국, 일본: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9, 중국: NBS. 1% National Population Sample Survey 2015, Table 4-1, 싱가포르: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DOS). 태국: NSO. Labor Force Survey (Quarter 3) 2020, 베트남: GSO.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2018, 인도네시아: Statistics Indonesia. National Socio-Economic Survey 2019 (March).

## 2. 전공 분야별 대학 학위 성별 비중

아태지역 국가의 대학 학위 전공 분야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9-24]). 예술 및 인문학 분야는 모든 국가가 여성들의 전공 비중이 남성들의 전공 비중 더 높다. 경영, 행정, 법 분야는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남성들의 전공 비중이 여성들의 전공 비중보다 더 높다. 반면에 몽골,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는 여성들의 전공 비중이 남성들의 전공 비중보다 더 높다. 기술, 제조, 조선 분야는 모든 국가에서 남성들의 전공 비중이 여성들의 비중보다 더 높다. 한편 여성 중에서 기술, 제조, 조선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의 비중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30%가 넘고 있어 다른 국가보다 여성 전공자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24] 아태지역 국가의 전공 분야별 대학 학위 성별 비중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3.2.A. 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arts and humanities subjects, 2018, Chart CO3.2.B 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2018, Chart CO3.2.C Men's and women's shares of degrees awarded in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2018

2. 한국 2018년, 일본 2018년, 몽골 2019년, 싱가포르 2016년, 태국 2020년, 베트남 2017년, 인도네시아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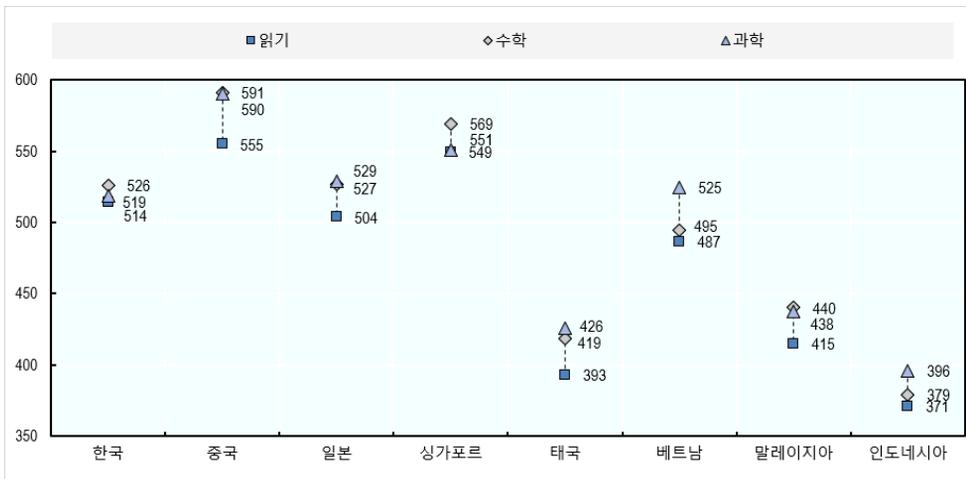
자료: 한국, 일본: OECD. Education at a Glance, 싱가포르: UNESCO UIS, 태국: Office of the Higher Education Commission, 베트남: UNESCO UIS, 몽골: NSO. Education Statistics 2019, Indonesia: OECD Statistics.

### 3.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점수

아태지역 국가에서 PISA 점수는 중국과 싱가포르가 가장 높고 한국, 일본, 베트남이 그다음으로 높다([그림 9-25]).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PISA 점수는 다른 아태지역 국가들보다 낮다. 모든 아태지역 국가에서 읽기 점수가 수학이나 과학 점수보다 낮다.

아태지역 국가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을 보다 읽기 점수가 더 높다([그림 9-25]). 수학과 과학 점수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는 여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 점수가 남학생들보다 낮다. 하지만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여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 점수가 남학생들보다 높다.

[그림 9-25] 아태지역 국가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수학, 과학 점수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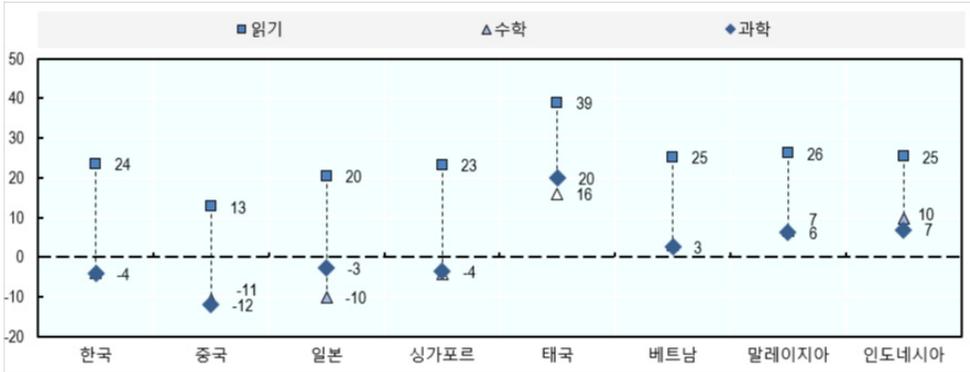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3.4.A.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2. 중국은 북경, 상해, 강소, 절강 지역에서만 PISA 시험에 참여하였음. 베트남은 2015년 자료

자료: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2015, 2018.

[그림 9-26] 아태지역 국가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수학, 과학 점수의 양성 격차 (2018년)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O3.4.B.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2. 양성 격차 = 여학생의 평균 PISA 점수 - 남학생의 평균 PISA 점수  
 3. 중국은 북경, 상해, 강소, 절강 지역에서만 PISA 시험에 참여하였음. 베트남은 2015년 자료  
 자료: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2015, 2018.

2009년과 2018년 사이의 PISA 점수의 양성 격차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의 점수가 남학생들보다 높았던 읽기 점수는 최근에 와서 양성 격차가 좁혀졌다(표 9-1)). 수학과 과학 점수의 양성 격차 변화는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읽기 점수와 다르게 양성 간의 격차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수학 점수에서 양성 격차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여학생들의 점수가 남학생들의 점수를 훨씬 앞서는 양상이 더 커지고 있다. 과학 점수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여학생들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최근에 와서 역전되어 남학생들의 점수가 여학생들보다 높게 되었다. 태국은 여학생들의 과학 점수가 남학생들보다 높았으며 최근에 와서 여학생들 점수가 남학생들 점수보다 더 높게 되어 양성 간 격차가 더 커졌다. 한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여학생들의 과학 점수가 남학생들보다 높았으나 최근에 와서 그 격차가 좁혀진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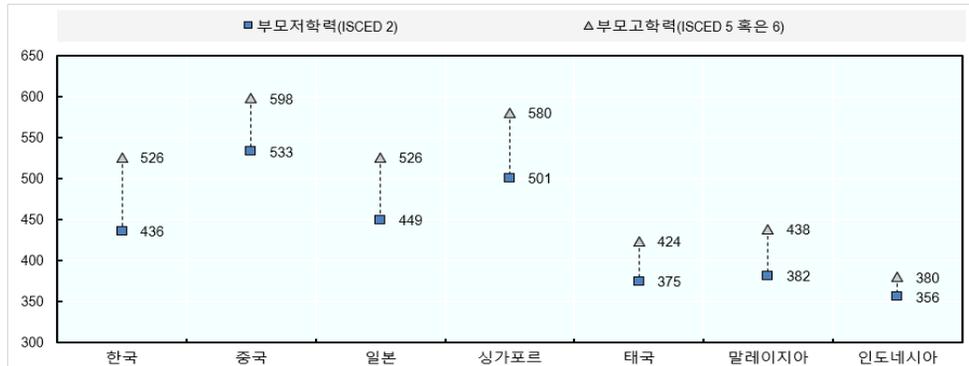
〈표 9-1〉 아태지역 국가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수학, 과학 점수의 양성 격차의 변화 (2009년, 2018년)

	읽기			수학			과학		
	2009년 양성 격차 (A)	2018년 양성 격차 (B)	B-A	2009년 양성 격차 (A)	2018년 양성 격차 (B)	B-A	2009년 양성 격차 (A)	2018년 양성 격차 (B)	B-A
한국	35.5	23.6	-11.9	-3.4	-4.0	-0.7	2.4	-4.0	-6.5
일본	38.9	20.4	-18.5	-9.4	-10.1	-0.7	11.7	-2.8	-14.4
싱가포르	31.2	23.2	-8.0	-5.2	-4.1	1.1	1.1	-3.5	-4.6
태국	37.6	38.9	1.3	-3.6	16.0	19.6	13.1	19.9	6.9
말레이시아	34.7	26.1	-8.6	2.9	6.7	3.9	10.2	6.3	-3.8
인도네시아	36.5	25.3	-11.2	1.3	9.7	8.4	8.8	6.9	-1.9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O3.4.B.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2018  
 2. 양성 격차 = 여학생의 평균 PISA 점수 - 남학생의 평균 PISA 점수  
 3. 중국은 북경, 상해, 강소, 절강 지역에서만 PISA 시험에 참여하였음. 베트남은 2015년 자료  
 자료: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2015,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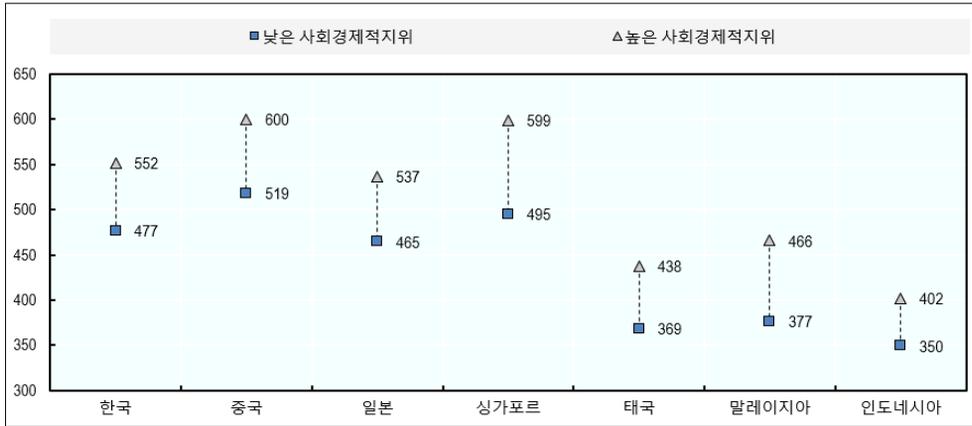
아태지역 모든 국가에서 고학력이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를 가진 학생들의 PISA 점수가 저학력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를 가진 학생들의 PISA 점수보다 높다([그림 9-27], [그림 9-28]).

[그림 9-27] 아태지역 국가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점수의 부모 학력 수준별 격차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O3.4.D. 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of parents, 2018  
 2. 중국은 북경, 상해, 강소, 절강 지역에서만 PISA 시험에 참여하였음. 베트남은 2015년 자료  
 자료: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2015, 2018.

[그림 9-28] 아태지역 국가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점수의 부모 사회경제 수준별 격차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O3.4.E. Differences in student reading performance by socio-economic status, 2015

2. 중국은 북경, 상해, 강소, 절강 지역에서만 PISA 시험에 참여하였음. 베트남은 2015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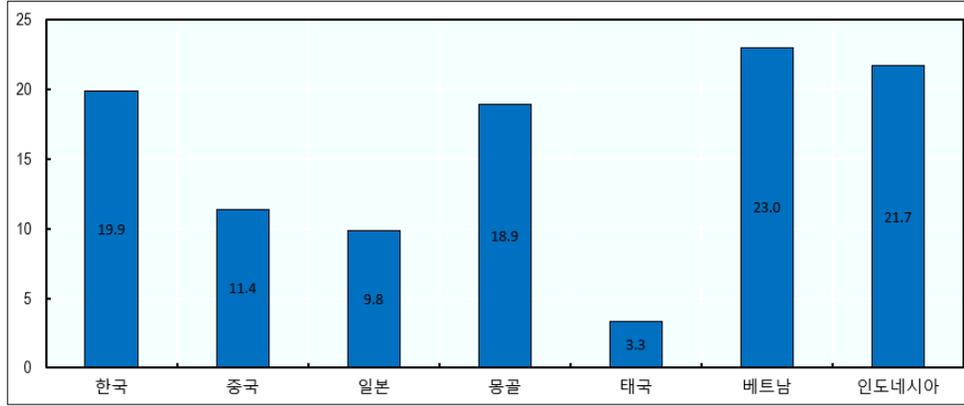
자료: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2015, 2018.

#### 4. NEET 비중

NEET 비중은 한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약 20%로 상대적으로 높고, 중국과 일본이 약 10% 내외이며, 태국이 약 3% 수준으로 가장 낮다([그림 9-29]). 여성과 남성 중 NEET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태국, 베트남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중국,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는 여성 중에서 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 중에서 니트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높다([그림 9-30]).

한편, 전체 NEET 중에서 15~19세, 20~24세, 25~29세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자료는 많은 국가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NEET의 가족 유형에 대한 자료도 모든 국가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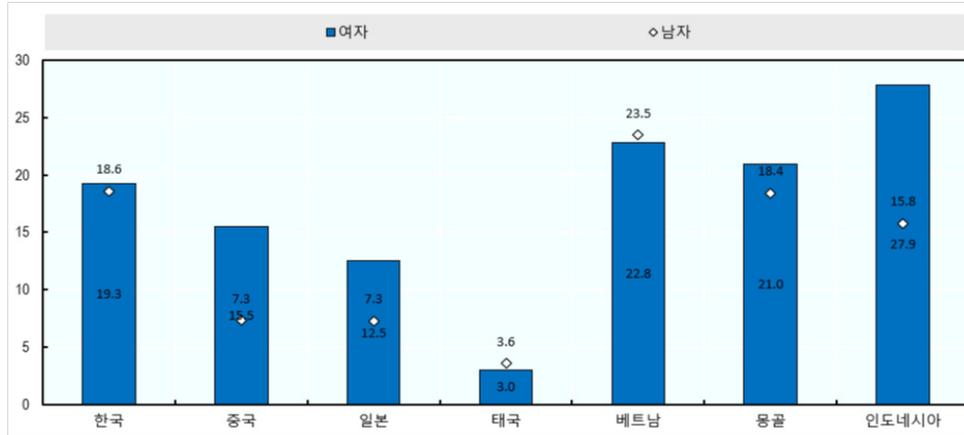
[그림 9-29] 아태지역 국가의 NEET 비중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3.5.A. NEET rates for 15-29 year-olds  
 2. NEET는 15~29세 중에서 취업, 교육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비중  
 3. 한국 2019년, 중국 2010년, 일본 2014년, 몽골 2018년, 15~24세, 태국 2020년, 베트남 2018년, 인도네시아 2018년, 15~24세

자료: 한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중국: NBS, Census 2010, 일본: OECD, Education at a Glance, 태국: NSO, Labor Force Survey (Quarter 3) 2020, 베트남: GSO,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2018,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Labor Force Survey, 인도네시아: ILOSTAT Database.

[그림 9-30] 아태지역 국가의 NEET 성별 비중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3.5.C. Gender differences in NEET rates  
 2. NEET는 15~29세 중에서 취업, 교육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비중  
 3. 한국 2016년, 중국 2010년, 일본 2014년, 몽골 2019년, 15~24세, 태국 2020년, 베트남 2018년, 인도네시아 2018년, 15~24세

자료: 한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중국: NBS, Census 2010, 일본: OECD, Education at a Glance, 태국: NSO, Labor Force Survey (Quarter 3) 2020, 베트남: GSO,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2018,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Labor Force Survey, 인도네시아: ILOSTAT Database.

## 5. 이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아태지역 국가 학생들의 PISA 점수를 이민 배경을 가진 학생과 이민 배경을 갖지 않은 학생 간에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 배경을 갖지 않은 학생들의 PISA 점수가 이민 배경을 가진 학생들보다 높다(〈표 9-2〉). 싱가포르만 이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PISA 점수가 이민 배경을 갖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다.

아태지역 국가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민 정책 혹은 외국인 유입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이민 배경별 PISA 점수 격차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우수한 외국 인력과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려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에서는 이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점수가 이민 배경을 갖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을 수 있다. 반면에, 단순 노동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유입하는 국가들에서는 이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점수가 이민 배경을 갖지 않은 학생들보다 낮을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통제하고 난 후 많은 국가에서 이민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이민 배경을 갖지 않은 학생들 간의 점수 격차가 줄어든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표 9-3〉). 이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이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이민 배경을 갖지 않은 학생들과 PISA 점수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9-2〉 아태지역 국가 학생들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점수의 이민 배경별 차이

구분	국가	비 이민배경학생 (A)	이민배경학생 (B)	차이 (A-B)
PISA 읽기 점수	싱가포르	545.9 (1.5)	564.9 (4.3)	-19.0 (4.5)
	태국	394.3 (3.2)	355.9 (20.0)	38.4 (20.2)
	말레이시아	417.4 (2.8)	409.8 (16.7)	7.6 (16.3)
	인도네시아	372.7 (2.6)	275.6 (16.0)	97.1 (16.1)
PISA 수학 점수	중국	534.3 (4.8)	394.3 (24.7)	140.0 (24.6)
	일본	533.3 (2.9)	455.1 (29.6)	78.2 (28.9)
	싱가포르	559.1 (1.6)	588.6 (4.9)	-29.5 (5.3)
	태국	417.2 (3.1)	393.2 (14.8)	24.0 (14.8)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3.6.B. Students' performance on reading score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8, Chart CO3.6.C. Students' performance in mathematics by immigrant status, PISA 2015

2. 중국은 북경, 상해, 강소, 절강 지역에서만 PISA 시험에 참여하였음.

3. 표안의 숫자는 평균 점수, 괄호 안은 표준 편차

자료: OECD. PISA 2018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OECD. PISA 2015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표 9-3〉 아태지역 국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통제 전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점수의 이민 배경별 차이

구분	국가	통제 전	통제 후
학생의 성별, 학생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특성	싱가포르	-19.0 (4.5)	9.0 (4.2)
	태국	38.4 (20.2)	1.7 (22.9)
	말레이시아	7.6 (16.3)	3.2 (12.5)
	인도네시아	97.1 (16.1)	89 (15.1)
학생의 사회적배경과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국	142 (26.0)	134 (25.4)
	일본	81 (39.7)	35 (32.0)
	싱가포르	-25 (5.1)	-11 (4.8)
	태국	7 (15.8)	-15 (21.6)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3.6.D. 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native students and stud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gender, and students' and schools' socio-economic profile, 2018, Chart CO3.6.F. Gaps in reading performance between immigrant and non-immigrant students before and after accounting for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language spoken at home, 2015  
 2. 중국은 북경, 상해, 강소, 절강 지역에서만 PISA 시험에 참여하였음.  
 3. 표안의 숫자는 평균 점수, 괄호 안은 표준 편차  
 자료: OECD. PISA 2018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OECD. PISA 2015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 제4절 사회 참여 활동

### 1. 사회 참여 활동

아태지역 국가의 청소년(15~29세)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스포츠 혹은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율이 높고, 특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교회 혹은 종교 단체 참여율이 높다(〈표 9-4〉). 반면에, 노동조합이나 정당 참여율이 낮고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인도주의 혹은 봉사 단체, 환경 단체 참여도도 낮다.

아태지역 국가 사람들의 지난달 단체 활동 참여 비중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60%로 가장 높고, 싱가포르도 35%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다(〈그림 9-31〉). 〈표 9-4〉와 연관하여 생각해 볼 때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종교 단체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의 단체 활동 참여율은 20% 내외의 수준이며, 중국이 4%로 가장 낮다.

교회 혹은 종교단체 및 노동조합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교회 혹은 종교 단체 참여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높다(〈표 9-5〉). 아태지역 국가 사람들은 정당 활동 혹은 노동조합에 대한 참여 정도가 낮는데, 참여한 사람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많지 않다. 아태지역 국가에서 봉사 단체 혹은 기부 단체에 참여하는 비중을 연령 집단별(15~29세, 30~49세)로 제공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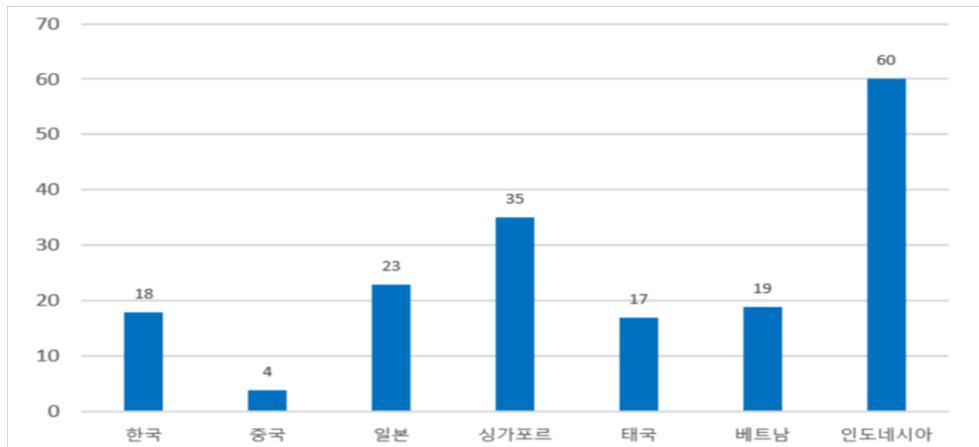
〈표 9-4〉 아태지역 국가의 청소년(15~29세) 사회 참여 활동

	교회 혹은 종교	스포츠 혹은 레크리에이션	예술, 음악, 교육	노동조합	정당	인도주의, 봉사단체	환경	기타
한국	15	21	14	4	2	4	5	18
중국	4	9	7	7	7	2	2	1
일본	12	22	12	10	5	3	3	11
싱가포르	41	25	19	12	8	12	9	9
태국	29	26	21	13	11	17	16	12
베트남	6	9	6	8	14	12	8	19
인도네시아	65	43	34	17	9	38	38	49

주: OECD Family database 지표: Table CO4.1.A Proportion (%) of young people who are members (active or inactive) of organisations by type of group, around 2012

자료: 한국, 인도네시아: World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020,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World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4, 베트남: World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Wave 5: 2005-2009.

[그림 9-31] 아태지역 국가의 지난달 단체 활동 참여 비중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Table CO4.1.B. Proportion of people who volunteered time to an organization in the past month, 2015 or last year available

2.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2015년, 싱가포르 2016년, 인도네시아 2020년

자료: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Charities Aid Foundation(CAF). CAF WORLD GIVING INDEX 2016, 싱가포르: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인도네시아: Charities Aid Foundation(CAF). CAF World Giving Index 2021.

〈표 9-5〉 아태지역 국가의 종교 단체, 노동조합 참여 정도

	교회 혹은 종교 단체			노동조합		
	전체	적극적	수동적	전체	적극적	수동적
한국	15	7	9	4	3	2
중국	4	1	4	7	1	6
일본	12	4	8	10	2	9
싱가포르	41	25	17	12	3	9
태국	29	15	14	13	4	8
베트남	12	6	6	12	8	3
인도네시아	65	41	25	17	7	10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Table CO4.1.D Active versus passive affiliation to a church, a religious organization or a trade union, around 2012

2. 한국, 인도네시아 2018년, 중국, 일본, 싱가포르 2012년, 태국 2013년, 베트남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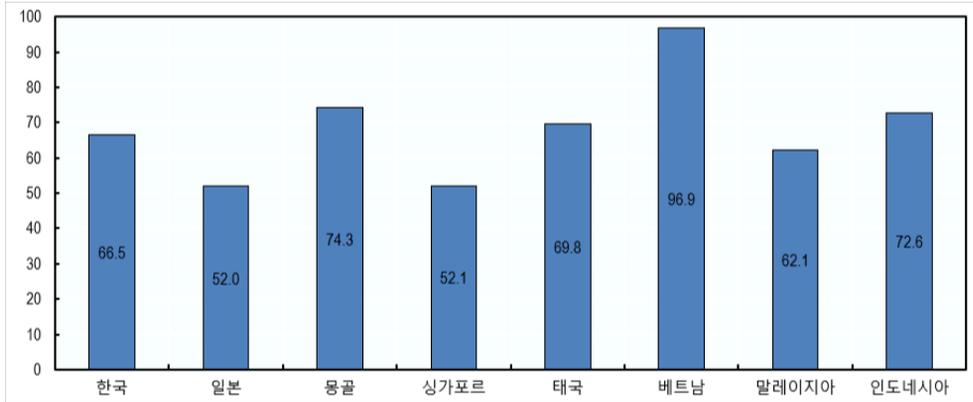
자료: 한국, 인도네시아: World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020,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World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4, 베트남: World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Wave 5: 2005-2009.

## 2. 정치 참여

아태지역 국가의 국회의원 선거 참여율은 베트남이 97% 수준으로 가장 높고,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이 약 70% 수준으로 높다(그림 9-32). 한국, 말레이시아는 약 60% 수준이며, 일본과 싱가포르가 약 50%로 낮다. 아태지역 국가의 선거 참여율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그림 9-33). 연령 집단별로 볼 때 일본, 몽골, 태국에서 18~24세 집단이 25~50세 집단 보다 선거 참여율이 저조하다.

아태지역 국가에서 정치에 관심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약 20% 수준으로 높고,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이 약 5% 내외로 낮다(그림 9-34). 정치에 관심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는 전체 집단보다 15~29세 집단이 정치에 관심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낮다. 하지만 정치에 관심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일본, 태국은 15~29세 집단이 전체 응답자 보다 정치에 관심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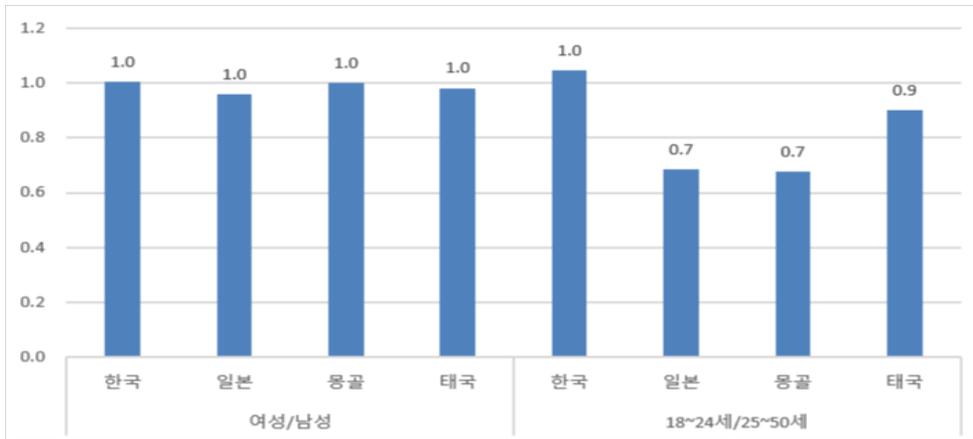
[그림 9-32] 아태지역 국가의 국회의원 선거 참여율



-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4.2.A Voter turnout in latest parliamentary election, 2018 or latest year available
- 2. 선거 참여율은 선거 가능 연령 중 선거에 참여한 사람 비중
- 3. 한국 2020년, 일본 2014년, 몽골 2016년, 싱가포르 2015년, 태국 2019년, 베트남 2021년, 말레이시아 2018년, 인도네시아 2019년

자료: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IDEA. (2020). Voter turnout database,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Election statistics, 베트남: National Assembly report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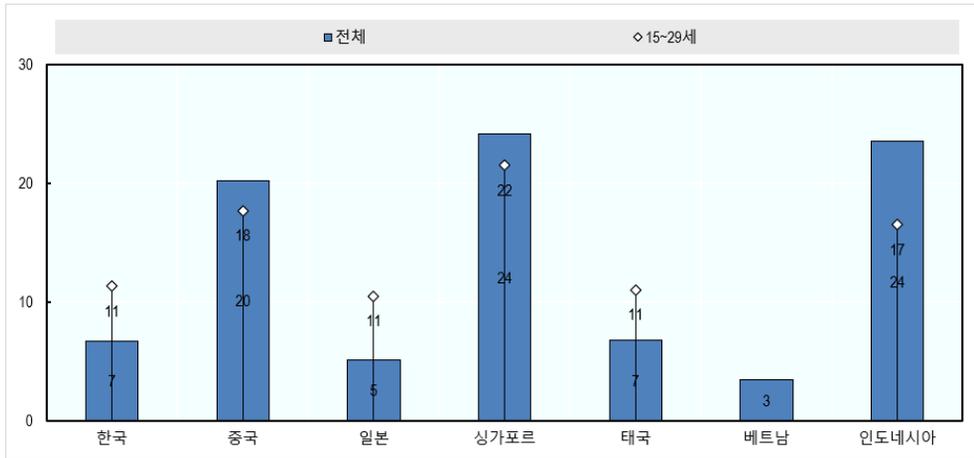
[그림 9-33] 아태지역 국가의 성별·연령별 선거 참여율 차이



-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Table CO4.2.A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 2. 한국 2020년, 일본 2013년, 몽골 2011년, 태국 2016년

자료: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분석, 일본, 태국: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CSES). CSES Module 4: 2011-2016, 몽골: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Election statistics.

[그림 9-34] 아태지역 국가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비중



주: 1.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4.2.B. Lack of interest in politics, around 2012-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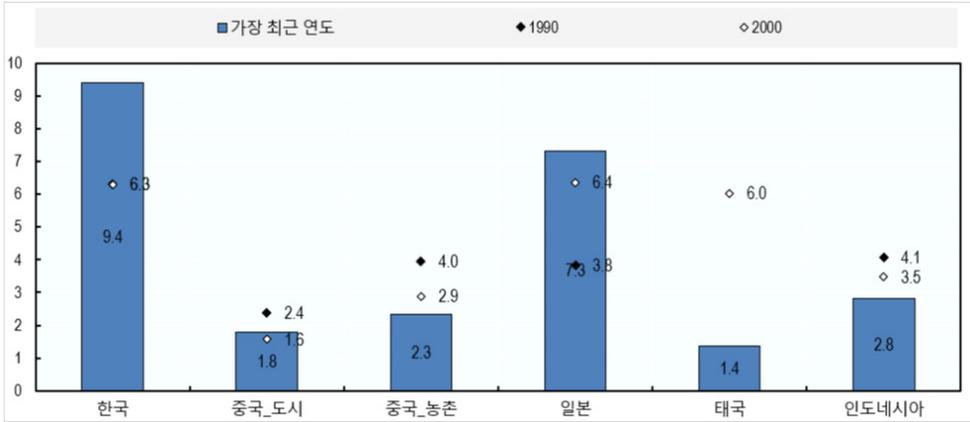
2. 한국 2018년, 중국 2012년, 일본 2010년, 싱가포르 2012년, 태국 2013년, 베트남 2006년, 인도네시아 2018년

자료: 한국, 인도네시아: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020,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6,

### 3. 청소년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은 한국과 일본이 약 10명 이하의 수준으로 다른 비교 대상 국가보다 많다([그림 9-35]).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는 약 2명 미만으로 한국과 일본보다 적다. 한국과 일본은 최근으로 올수록 자살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는 자살하는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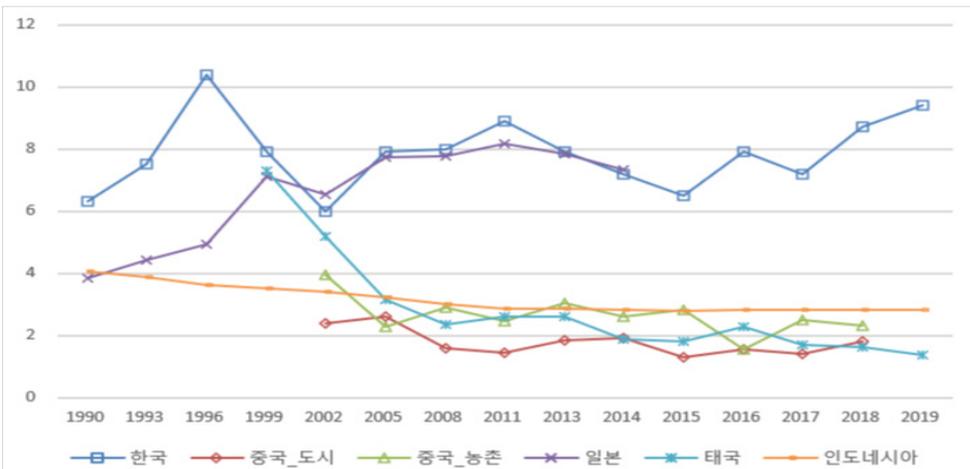
[그림 9-35] 아태지역 국가의 청소년 자살률 (1990, 2000년, 가장 최근 연도)



주: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4.4.B. Teenage suicides, 1990, 2000 and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2. 청소년 자살률은 15~19세 100,000명당 자살한 사람의 수  
 3. 가장 최근 연도는 한국 2019년, 중국\_도시 2018년, 중국\_농촌 2018년, 일본 2014년, 태국 2019년, 인도네시아 2019년

자료: 한국: 통계청. (2020g). 사망원인통계, 중국: NBS. China Health and Family Planning Statistical Yearbook 2003-2019, 일본: WHO. (2017). WHO Mortality Database, 태국: Department of Mental Health,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Official Statistics Registration Systems, 인도네시아: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IHME). Global Burden of Disease Collaborative Network.

[그림 9-36] 아태지역 국가의 청소년 자살률 추이 (1990~2019년)



주: OECD Family database 지표: Chart CO4.4.C. Trends in teenage suicides, 1990-2015  
 자료: 한국: 통계청. (2020g). 사망원인통계, 중국: NBS. China Health and Family Planning Statistical Yearbook 2003-2019, 일본: WHO. (2017). WHO Mortality Database, 태국: Department of Mental Health,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Official Statistics Registration Systems, 인도네시아: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IHME). Global Burden of Disease Collaborative Network.

## 제5절 소결

아동과 관련된 건강 위험 요인은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개선되는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가 하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오히려 더 심화되는 건강 위험 요인도 있었다. 아태지역 국가의 영아 사망률, 출생시 기대 여명, 예방접종률 등 생명과 관련한 현황은 국가마다 다른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점차 향상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저체중아 비중은 산모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출산과 같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출산 위험에 노출된 국가에서는 증가하고 있었다. 청소년 흡연율과 아동 장애율은 선진 국가에서는 감소하고 있지만, 개발 도상 국가에서는 증가하고 있었다. 반면에 자살률과 같은 정신 건강과 관련된 위험 요인은 개발 도상 국가에서는 감소하고 있었지만 선진 국가에서는 증가하고 있었다.

아태지역의 소득 불평등도는 과거에는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와서 감소하거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 등 선진 국가의 소득 불평등도가 개발 도상 국가의 소득 불평등도 보다 낮았다. 아동 빈곤율의 추이는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빈곤율과 유사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OECD Family database는 상대 빈곤율을 측정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빈곤율을 측정하는 등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이 국가마다 다른 것이 관찰되어 국가 간 빈곤율을 비교할 때 이러한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으로 올수록 아태지역 여학생들의 대학교 진학률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공 분야에 있어 여전히 예술 혹은 인문학 분야는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전공하는 경향이 컸고, 기술, 제조, 조선 분야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전공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PISA 점수의 성별 격차를 보면, 읽기는 여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고, 수학과 과학은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를 남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으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여학생들의 점수가 남학생들보다 높았다. 읽기에서의 양성 격차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수학과 과학에서의 양성 격차는 변화 없거나 오히려 더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부모의 학력 혹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더 높은 경우 학생들의 PISA 점수가 높은 것은 모든 아태지역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민 배경을 가진 학생과 이민 배경을 갖지 않은 학생 간의 PISA 점수 차이는 해당 국가가 우수 인력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지 혹은 단순 노동 인력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사회활동은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교회 혹은 종교 단체의 참여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태지역 국가 청소년들의 정당 혹은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비중은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선거율은 높았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평균적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결론부

제10장 결론 및 제언



## 제 10 장 결론 및 제언

### 제1절 「2020-21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결과

#### 1. 한국 자료 수집 결과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구축 현황은 OECD Family database에 포함된 357개 표와 도표를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OECD Family database 지표의 표와 도표는 하나의 수치만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치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의 각각 유형별로 비중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연령 집단별로 비중 자료를 제공한다. 각 표와 도표에 해당하는 자료가 모두 제공될 경우 “모두 제공”, 표와 도표에 자료가 제공되는 것도 있고, 제공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경우 “부분적 제공”, 해당 표와 도표에 전혀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공 불가능”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OECD Family database의 한국 자료 구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357개 표와 도표 중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229개로 전체 중에서 64.1%를 차지한다. 부분적으로만 자료가 제공되는 표와 도표는 35개로 전체 지표 중 9.8%이다.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표와 도표는 92개로 전체 중에서 26.1%이다. 제공이 불가능한 표와 도표가 가장 많은 대영역은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상태로 동 대영역의 전체 표와 도표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표와 도표의 자료가 제공이 불가능하다. 가족의 구조, 가족과 아동 정책, 아동의 성과 대영역에서 제공이 불가능한 표와 도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이내 수준이다.

〈표 10-1〉 한국의 OECD Family database 자료 구축 현황 (2021년 7월 14일 현재)

	전체	모두 제공	부분적 제공	제공 불가능
가족의 구조	70 (100.0%)	45 (64.3%)	11 (15.7%)	14 (20.0%)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99 (100.0%)	41 (41.4%)	9 (9.1%)	49 (49.5%)
가족과 아동 정책	94 (100.0%)	71 (75.5%)	5 (5.3%)	18 (19.1%)
아동의 성과	94 (100.0%)	72 (76.6%)	10 (10.6%)	12 (12.8%)
계	357 (100.0)	229 (64.1%)	35 (9.8%)	92 (26.1%)

해당 지표에 대한 한국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자료는 가구 유형별로 자료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OECD Family database의 특성 중의 하나는 가족의 유형별로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응답자의 가구 유형 그리고 자녀 수와 자녀 연령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구 유형별 그리고 자녀 특성별로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대영역에서 제공 불가능한 지표가 가장 많은 이유이다. 한국의 고용률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 혹은 지역별 고용조사이다. 두 조사 모두 개인 단위의 조사로서 가족의 유형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부모가 모두 일하는 가족(맞벌이 가족), 부모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족(홀벌이 가족), 부모 모두 일하는 가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가구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인 단위 조사인 경제활동조사과 지역별 고용조사를 가지고서는 가구 유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인구센서스는 가구단위로 조사되고 있고, 가구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가족의 유형을 고려하여 다양해진 가족 유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OECD Family database는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한 관계인지 동거 관계인지를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는데, 한국의 인구센서스는 법적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를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고 있다. OECD Family database가 정의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는 인구센서스에서 가족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2세대가구+부+미혼자녀” 혹은 “2세대가구+모+미혼자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을 인구센서스 자료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부가 있는 가구가 재혼하여 재구성된 가족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더구나 인구센서스는 소득 수준을 조사하고 있지 않아서

가족을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 있다.

최근 가족 유형별 여성의 근로 활동 및 돌봄 노동 시간의 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지역별 고용조사와 생활시간조사는 자녀 유무 및 자녀 수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별 고용조사와 생활시간 조사는 개인별 조사이기 때문에 자녀 특성별로 자세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별 고용조사는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제공하고 있지만, 자녀 연령별로 여성의 고용률을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생활시간 조사도 해당 가구에 미취학 자녀가 있는지,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 정도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자녀 연령별로 돌봄 시간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두 조사를 가구 조사로 확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불가능한 경우 개인별 조사에서 가구 특성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데이터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지역별 고용조사는 가구원 명부를 파악하고 있다. 가구원 명부를 통해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이며 연령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구 유형과 자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가구 유형별, 자녀 특성별로 상세하게 지표에 대한 자료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한국의 대표적인 전국 조사들이 국제적인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포함하지 않거나 분석을 다른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지표에 대한 자료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보육실태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 조사,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 및 현황 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NEET 실태 분석을 들 수 있다. OECD Family database에서 영유아보육교육에 대한 지표는 중분류인 “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에 포함되어 있다.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동 항목에 포함된 지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사 설계 및 분석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이상자녀수를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 문항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 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청소년연구원의 NEET 실태 분석은 연령별 기준을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서 분석하고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를 참고하여 해당 지표의 자료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조사가 국제 지표에 부합하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통계청이 국가승인통계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조사가

국제적인 지표에 부합하는 자료를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한국에서의 정의가 OECD Family database의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보건 관련 지표에서 많이 발견된다. 물론 한국과 OECD 국가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국내 상황에 맞는 정의와 함께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의 정의에도 부합하는 자료가 함께 생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OECD Family database는 아동의 연령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아동 연령이 아닌 학년별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학년별 자료와 함께 아동 연령별 자료도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분한 대상자 수를 확보하는 등 한국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국제적 학력 평가 시험인 PIRLS에 한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PISA 등의 조사에서 누락되는 지표가 없도록 한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orld Value Survey와 같은 국제 조사에 한국이 참여하는 경우 충분한 조사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조사의 대표성과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제도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 파악이 되지 않아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해당되는 지표의 자료를 생산하기 어렵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 한부모의 수 그리고 양육비의 액수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전체 아동의 수만 보고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구분하여 아동 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OECD 국가들과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 해당 지표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연근무제도의 경우 한국은 OECD Family database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민 배경을 가진 아동의 수가 적어서 이민 배경을 가진 아동에 대한 지표를 산출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PISA에 참여한 아동 중에서 이민 배경을 가진 아동의 수가 너무 적어서 이민 배경을 가진 아동의 PISA 점수를 따로 제공하기가 어렵다. 또한 한국에서는 대마초를 흡연하는 경우가 적어서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 「2020-21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 아태지역 자료 수집 결과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357개 표와 도표 중에서 모두 자료가 제공되는 비중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 45.9%, 몽골 37.0%, 인도네시아 38.9%, 태국 33.9%, 싱가포르 26.9%, 베트남 26.3%, 말레이시아 14.6%이다.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표와 도표의 비중은 중국 36.7%, 몽골 44.8%, 인도네시아 49.0%, 태국 52.4%, 싱가포르 63.3%, 베트남 56.9%, 말레이시아 73.4%이다. OECD 회원 국가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경우 357개 표와 도표 중에서 모두 자료가 제공되는 비중은 49.9%, 제공이 불가능한 비중은 42.6%이다 (OECD Family database 2021년 7월 현재). OECD 회원 국가인 일본의 자료 제공 현황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과 근접한 수준으로 자료를 제공한<sup>3)</sup> 중국,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는 자료 수집에서 상당한 선전을 보였다고 평가된다. 각 국가별 자료 구축 현황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에 가용한 자료가 있는지의 여부가 크게 영향을 준다. 이 밖에도 자료를 제공한 해당 국가 전문가들이 자료 수집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자료 제공 비중이 높은 것은 중국 전문가가 오랫동안 아태지역 가족 자료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여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 연구에 참여한 몽골이 자료 제공 비중이 높은 것은 몽골의 전문가가 가족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중국과 몽골의 전문가는 자료 작성 방식에 대한 보고서도 보고서 양식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싱가포르가 아태지역에서 선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자료 제공 비중이 낮은 것은 싱가포르의 전문가가 자료 수집을 위한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말레이시아 역시 자료 제공 비중이 낮는데 이는 말레이시아의 통계 환경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해당 국가 전문가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3) 모두 자료가 제공되는 비중 약 30% 이상,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비중 약 50% 내외 기준으로 파악함

〈표 10-2〉 중국의 OECD Family database 자료 구축 현황 (2021년 7월 14일 현재)

	전체	모두 제공	부분적 제공	제공 불가능
가족의 구조	70 (100.0%)	39 (55.7%)	16 (22.9%)	15 (21.4%)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99 (100.0%)	52 (52.5%)	26 (26.3%)	21 (21.2%)
가족과 아동 정책	94 (100.0%)	31 (33.0%)	4 (4.3%)	59 (62.8%)
아동의 성과	94 (100.0%)	42 (44.7%)	16 (17.0%)	36 (38.3%)
계	357 (100.0)	164 (45.9%)	62 (17.4%)	131 (36.7%)

〈표 10-3〉 몽골의 OECD Family database 자료 구축 현황 (2021년 7월 14일 현재)

	전체	모두 제공	부분적 제공	제공 불가능
가족의 구조	70 (100.0%)	34 (48.6%)	14 (20.0%)	22 (31.4%)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99 (100.0%)	55 (55.6%)	29 (29.3%)	15 (15.2%)
가족과 아동 정책	94 (100.0%)	21 (22.3%)	5 (5.3%)	68 (72.3%)
아동의 성과	94 (100.0%)	22 (23.4%)	17 (18.1%)	55 (58.5%)
계	357 (100.0)	132 (37.0%)	65 (18.2%)	160 (44.8%)

〈표 10-4〉 싱가포르의 OECD Family database 자료 구축 현황 (2021년 7월 14일 현재)

	전체	모두 제공	부분적 제공	제공 불가능
가족의 구조	70 (100.0%)	30 (42.9%)	15 (21.4%)	25 (35.7%)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99 (100.0%)	20 (20.2%)	8 (8.1%)	71 (71.7%)
가족과 아동 정책	94 (100.0%)	10 (10.6%)	3 (3.2%)	81 (86.2%)
아동의 성과	94 (100.0%)	36 (38.3%)	9 (9.6%)	49 (52.1%)
계	357 (100.0)	96 (26.9%)	35 (9.8%)	226 (63.3%)

〈표 10-5〉 태국의 OECD Family database 자료 구축 현황 (2021년 7월 14일 현재)

	전체	모두 제공	부분적 제공	제공 불가능
가족의 구조	70 (100.0%)	27 (38.6%)	8 (11.4%)	35 (50.0%)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99 (100.0%)	36 (36.4%)	8 (8.1%)	55 (55.6%)
가족과 아동 정책	94 (100.0%)	21 (22.3%)	8 (8.5%)	65 (69.2%)
아동의 성과	94 (100.0%)	37 (39.4%)	25 (26.6%)	32 (34.0%)
계	357 (100.0)	121 (33.9%)	49 (13.7%)	187 (52.4%)

〈표 10-6〉 베트남의 OECD Family database 자료 구축 현황 (2021년 7월 14일 현재)

	전체	모두 제공	부분적 제공	제공 불가능
가족의 구조	70 (100.0%)	23 (32.9%)	13 (18.6%)	34 (48.6%)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99 (100.0%)	13 (13.1%)	19 (19.2%)	67 (67.7%)
가족과 아동 정책	94 (100.0%)	24 (25.5%)	3 (3.2%)	67 (71.3%)
아동의 성과	94 (100.0%)	34 (36.2%)	25 (26.6%)	35 (37.2%)
계	357 (100.0)	94 (26.3%)	60 (16.8%)	203 (56.9%)

〈표 10-7〉 말레이시아의 OECD Family database 자료 구축 현황 (2021년 7월 14일 현재)

	전체	모두 제공	부분적 제공	제공 불가능
가족의 구조	70 (100.0%)	22 (31.4%)	10 (14.3%)	38 (54.3%)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99 (100.0%)	1 (1.0%)	10 (10.1%)	88 (88.9%)
가족과 아동 정책	94 (100.0%)	6 (6.4%)	4 (4.3%)	84 (89.4%)
아동의 성과	94 (100.0%)	23 (24.5%)	19 (20.2%)	52 (55.3%)
계	357 (100.0)	52 (14.6%)	43 (12.0%)	262 (73.4%)

〈표 10-8〉 인도네시아의 OECD Family database 자료 구축 현황 (2021년 7월 14일 현재)

	전체	모두 제공	부분적 제공	제공 불가능
가족의 구조	70 (100.0%)	34 (48.6%)	10 (14.3%)	26 (37.1%)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	99 (100.0%)	30 (30.3%)	18 (18.2%)	51 (51.5%)
가족과 아동 정책	94 (100.0%)	18 (19.2%)	6 (6.4%)	70 (74.5%)
아동의 성과	94 (100.0%)	57 (60.6%)	9 (9.6%)	28 (29.8%)
계	357 (100.0)	139 (38.9%)	43 (12.0%)	175 (49.0%)

영역별로 볼 때 가장 많은 자료가 제공되는 영역은 가족의 구조로서 동 영역에 해당하는 전체 표와 도표 중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비중은 중국 55.7%, 몽골 48.6%, 인도네시아 48.6%, 싱가포르 42.9%, 태국 38.6%, 베트남 32.9%, 말레이시아 31.4%이다. 가족의 구조에서 많은 자료가 제공될 수 있었던 것은 인구와 출산과 같이 인구학적 통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거나 UN 등 국제 기구의 자료에서 수집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균 가구원 수와 같이 기본적인 가구 유형에 대한 자료 이외에 세부적인 유형별로 가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는 많지 않았다. 예를 들어 OECD Family database에서는 법적인 혼인과 동거를 구분하여 가족 유형 비중을 제공하는 지표가 많은데, 혼인 상태를 법적인 혼인가 동거로 구분하여 잘 살펴보지 않는 아태지역에서 해당 지표에 대한 자료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또한 OECD Family database에서는 한부모의 가족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부모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은 아태지역에서 한부모의 가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아동의 거주 환경 상태에 대한 자료도 아태지역 국가에서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가족의 구조 다음으로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 영역은 아동의 성과에 대한 영역이었다. 아동의 성과 영역에 포함된 표와 도표 중에서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비중은 인도네시아가 60.6%로 가장 높았고, 중국 44.7%, 태국 39.4%, 싱가포르 38.3%, 베트남 36.2%, 말레이시아 24.5%, 몽골 23.4%였다. 아동 성과 부분에서 자료 제공 비중이 높은 이유는 기본적인 아동 보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국에서 자료가

생산되고 있었으며, World Bank 등 국제 기구에서 해당 국가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PISA에 참여하고 있어서 학업 성취도와 관련한 지표에 대해서 PISA 보고서를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동 보건 부분에 대해서도 비만, 흡연, 음주와 같은 건강 위험 행동이나 장애와 관련한 지표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아동 빈곤이나 물질적인 박탈 수준에 대해서도 많은 국가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PISA 이외 국제적인 학업 능력 평가 시험인 PIRLS나 TIMSS에 참여하는 국가도 많지 않았다. 학력 수준에 대한 자료도 세부적으로 부모의 학력이나 사회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하는 국가도 많지 않았다.

노동시장에서 가족의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 상태는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국과 몽골은 동 영역의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비중이 각각 52.5%와 55.6%로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36.4%와 30.3%를 보였으며, 싱가포르 20.2%, 베트남 13.1%, 말레이시아는 거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는 성별 연령별 고용률이나 성별 중위 소득과 같은 기본적인 고용 지표 이외에 가족 유형별 근로 상태와 같은 세부적인 자료 생산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과 몽골의 자료 제공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세부적인 가족 유형별 근로 상태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중국은 「Chinese Social Survey」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하였으며, 몽골은 「Labor Force Survey」 자료를 해당 연구자가 직접 분석하여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몽골의 「Labor Force Survey」가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노동시장의 가족의 현황에 대한 자료 생산이 가능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노동과 관련된 서베이가 아닌 「Chinese Social Survey」 자료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하였다. 중국의 사회조사가 전문적인 노동 관련 지표, 예를 들면 고용률, 전일제 고용, 시간제 고용에 대한 자료를 ILO의 기준에 맞게 조사하고 있는지, 해당 전문가가 ILO 기준에 맞게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 시간을 가족 유형, 자녀 수와 자녀 연령 등 자녀의 특성별로 제공하는 국가는 많지 않았다.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는 많지 않았는데 이는 유연근무제도가 아태지역 국가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생활 시간에 대한 자료도 많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시간 일지를 활용

하여 생활 시간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도 많지 않았다.

가족과 아동 정책은 아태지역 국가에서 가장 자료가 부족한 영역이다. 동 영역의 표와 도표에 대해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비중은 중국이 33%로 가장 높고 베트남 25.5%, 태국과 몽골이 22.3%, 인도네시아 19.1%, 싱가포르 10.6%, 말레이시아 6.4%로 나타났다. 가족과 아동 정책에서 자료 제공 비중이 낮은 이유는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 육아휴직 정책, 영유아보육교육 정책이 아직은 아태지역 국가에서 발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 그 밖에도 가족과 아동 정책 영역에서는 해당 국가의 연구자가 자국의 정책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분석하여 제공해야 하는 지표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PF2.4 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s), 이에 대한 연구 방법론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해당 국가 전문가가 분석하여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 중국이 다른 국가보다 가족과 아동 정책 영역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이러한 지표에 대한 자료 생산을 위해 해당 연구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 제2절 「2020-21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의 발전 방향

그동안의 노력으로 아태지역 가족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되었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현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인구와 출산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는 각 국가의 통계청 혹은 UN이나 World Bank에서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서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아태지역의 가족에 관한 자료는 국제 기구나 각 국가의 통계청에서도 활발하게 수집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단 아태지역에 해당하는 이슈만이 아니며 유럽이나 미주 국가에서도 충분한 가족 자료는 수집되지 않고 있다.

아태지역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하락으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변화는 가족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태지역 국가가 변화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인구 변화와 가족 변화가 후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태지역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먼저 경험한 다른 아태지역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유용한 대응 정

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아태지역 국가의 사례는 유럽 국가보다 해당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태지역 국가의 자료를 수집하는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태지역의 가족 자료 수집은 해당 국가에서 관련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와는 별개로 가족 자료를 수집하는 전문가가 자국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OECD Family database의 기준에 부합되는 자료가 자국 내에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자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국의 가족 자료의 국제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국가의 전문가는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 지표의 정의에 맞게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 작성 양식을 준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족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정해진 자료 수집과 보고서 작성 양식을 준수하며, 자국의 가족 자료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수집 단계에서 자료 수집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갖는 것이 요청된다. 지금까지 책임 연구 기관에서 이메일 혹은 유선상으로 가족 자료 수집에 대한 안내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연구가 종료가 된 이후에 전문가 회의를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자료를 어떠한 방향으로 수집하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 해당 국가 전문가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해당 국가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료를 수집할 때 어떠한 이슈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책임 연구 기관과 해당 국가 전문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가족 자료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셋째, 아태지역의 가족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OECD Family database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표도 유럽 국가의 가족

현황과 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것이 아태지역 전문가들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가족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국가의 자료가 부족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아태지역의 가족 현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태지역에서는 전통적인 3세대 가족 관계 혹은 부모 돌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세대 간 관계 및 노인 부모 부양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가족 유형도 서구 사회에서의 동거혼 보다는 일부다처 유형의 가족이 있는 국가도 있다. 가족 정책에 대해서 양적인 지표 개발을 하기 전에 아태지역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정성적인 방법으로 정책 내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 자료 향상을 위하여 국제적인 지원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몇몇 국가의 경우 국가 통계 기관에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료 제공을 위해 비용을 요구하는 국가도 있었다. OECD 사무국 혹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가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 구축에 참여하는 국가의 통계 기관에 대해 가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참여 연구진에게 제공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아태지역 가족 자료의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국제 공조 차원에서 통계 자료 수집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아태지역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사에 참여하고 국제 기구를 통한 자료 수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 제공이 가능했던 지표 중의 많은 부분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에 해당 국가가 참여하고 있거나 혹은 국제기구가 해당 국가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였다. 아태지역의 가족과 아동에 대해 보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사와 국제 기구는 아태지역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신윤정·김현식·이지혜. (2012). OECD Family database on Korea.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윤정·유재언·김혜영·윤자영. (2013). Comparative Study of Family Policy in East Asia: Korea, China, Japan, Singapore.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윤정·송민영·조영태·Stuart Basten. (2014). Comparative Study of Family Policy in East Asia: Korea, China, Japan, Singapore, Hong-Kong China, Thailand, Vietnam.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2002). Babies and Bossi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1.1): Australia, Denmark, The Netherlands.
- OECD. (2003). Babies and Bossi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1.2): Australia, Ireland, and Japan.
- OECD. (2004). Babies and Bossi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1.3): New Zealand, Portugal, Switzerland.
- OECD. (2005). Babies and Bossi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1.4): Canada, Finland, Sweden, United Kingdom.
- OECD. (2007). Babies and Bossi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 OECD. (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 OECD. (2017). Family Database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7 Project Report.
- OECD. (2019a). Family Database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9 Project Report.

## 1. 한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대상자별 정책-여성.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 고용노동부. (2019).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9년. <http://www.moel.go.kr>.
-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200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2021).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2007).
- 교육부. (2020). 2019년 전국 초·중·고등학생 건강검사 결과분석.
- 국세청. (2021). 2020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012).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2007).
- 민법, 제4조(성년) (2011).
-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2007).
- 법제처. (202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https://data.kihasa.re.kr>.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19).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http://mdis.kostat.go.kr>
- 보건복지부. (2021a). 2020년 보육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1s.jsp?PAR\\_MENU\\_ID=03&MENU\\_ID=0321](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1s.jsp?PAR_MENU_ID=03&MENU_ID=0321).
- 보건복지부. (2021b). 장애인 등록 현황(2020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
- 아동복지법, 제5조의 2항 (2015).
- 여성가족부. (2019).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http://kosis.kr>.
- 유아교육법, (20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분석.
- 질병관리청. (2010). 어린이·청소년 알레르기 질환 조사.
- 질병관리청. (2020). 청소년건강행태조사. <http://www.kdca.go.kr/yhs>.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2013).
- 초·중등교육법, (2021).
- 통계청. (2011). 가계동향조사.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4/3/index.board](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4/3/index.board).
- 통계청. (2011). 농가경제조사(각 년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4/6/index.board](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4/6/index.board).
- 통계청. (2011. 12. 7). 장래인구추계: 2010~2060. 통계청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252623&pageNo](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252623&pageNo)

- =2&rowNum=10&amSeq=&sTarget=&sTxt=.
- 통계청. (2019. 3. 28.).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통계청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73873](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73873).
- 통계청. (2019a). 2019년 생활시간조사.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 통계청. (2019b). 2019년 사회조사.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 통계청. (2020a). 인구동향조사-주민등록연앙인구. <https://kosis.kr>.
- 통계청. (2020b).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list&bSeq=&aSeq=&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list&bSeq=&aSeq=&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통계청. (2020c). 2017년 국민이전계정.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3/6/index.board](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3/6/index.board).
- 통계청. (2020d). 2019년 육아휴직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6/index.board](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6/index.board).
- 통계청. (2020e). 생명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58](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58).
- 통계청. (2020f). 가계금융복지조사(각 년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4/4/index.board](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4/4/index.board).
- 통계청. (2020g). 사망원인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
- 통계청. (2021. 2. 24).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1/index.board](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1/index.board).
- 통계청. (2021a). 인구주택총조사, 1990. <https://mdis.kostat.go.kr>.
- 통계청. (2021b). 인구주택총조사, 2005. <https://mdis.kostat.go.kr>.
- 통계청. (2021c). 인구주택총조사, 2010. <https://mdis.kostat.go.kr>.
- 통계청. (2021d). 인구주택총조사, 2015. <https://mdis.kostat.go.kr>.
- 통계청. (2021e).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
- 통계청. (2021f).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
- 통계청. (2021g). 지역별 고용조사.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3/index.board](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3/index.board).

- 통계청. (2021h). 2020년 출생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3/index.board](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3/index.board).
- 통계청. (2021i). 국가지표체계-상대적 빈곤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56>.
- 한국고용정보원. (2021).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ublicationYN=Y&statId=1982005#F\\_50.2](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ublicationYN=Y&statId=1982005#F_50.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https://edi.kead.or.kr/BoardType17.do?bid=35&mid=21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T).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청소년 방과후 활동(생활) 수요 및 현황 조사.
- 한국행정연구원. (2019).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ReList.do?seSubCode=BIZ017A001>.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953).
- Charities Aid Foundation(CAF). CAF WORLD GIVING INDEX 2016. <https://www.cafonline.org/about-us/publications/2016-publications/caf-world-giving-index-2016>.
- IEA. (2020). Voter turnout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 IEA. (2019). TIMSS 2019. <https://timssandpirls.bc.edu/timss2019>.
-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IDF). <https://idf.org>.
- OECD. (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https://www.oecd.org/els/family/doingbetterforchildren.htm>.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https://www.oecd.org/els/soc/doingbetterforfamilies.htm>.
- OECD. (2013).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https://www.oecd.org/pisa>.
- OECD. (2018). PISA. <https://www.oecd.org/pisa>.

- OECD. (2019a). OECD Family database in the Asia-Pacific Region. <http://www.oecd-korea.org/user/nd8662.do?View&uQ=&menuId=nd8662&boardNo=00002628&boardInfoNo=0035&dmlType=&page=1&pageLS=&pageSC=REGDATE&pageSO=DESC&pageST=SUBJECT&pageSV=&dmlType=>.
- OECD. (2019b).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https://oe.cd/ds/GIDDB2019>.
- OECD. (2019c). Education at a Glance, 2019. [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19\\_f8d7880d-en](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19_f8d7880d-en).
- OECD. (2019d). PISA 2018 Results (Volume II). <https://www.oecd.org/publications/pisa-2018-results-volume-ii-b5fd1b8f-en.htm>.
- OECD. (2019e).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 OECD. (2021a).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 OECD. (2021b). Education at a Glance 2021. <https://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
- OECD. (2021c). OECD Health Statistics 2021. <https://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 OECD. (2021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 OECD. (2021e). Employment database. <https://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
- OECD. Babies and Bosses(2002~2005). [https://www.oecd.org/els/family.OECD. Babies and Bosses\(2002~2005\).](https://www.oecd.org/els/family.OECD.Babies.and.Bosses(2002~2005).) <https://www.oecd.org/els/family>.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https://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 OECD. PISA 2015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https://www.oecd.org/pisa/publications>. <https://www.oecd.org/publications/pisa-2015-results-volume-i-9789264266490-en.htm>.
- OECD. PISA 2018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https://www>

- w.oecd.org/pisa/publications/pisa-2018-results-volume-i-5f07c754-en.htm.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https://esa.un.org/unpd/wpp>.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https://esa.un.org/unpd/wpp>.
- United Nations. (2019). World Fertility Data 2017.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theme/fertility/index.asp>.
- WHO. (2013). the WHO Mortality database.
- WHO. (2021).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
- World Values Survey. (2018). World Values Survey Wave7, 2017-2020.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7.jsp>.

## 2. 중국

- Charities Aid Foundation(CAF). CAF WORLD GIVING INDEX 2016. <https://www.cafonline.org/about-us/publications/2016-publications/caf-world-giving-index-2016>.
- Chen, Y. (1991). Analyzing the first marriage age and first birth age in China. *Chinese Journal of Population Sciences*, No.5.
- Civil Code, (2020).
- Criminal Law Amendment, (2020).
- ILO. Regulations on Paid Annual Leave of Employees. [http://www.ilo.org/dyn/natlex/natlex4.detail?p\\_lang=en&p\\_isn=81509](http://www.ilo.org/dyn/natlex/natlex4.detail?p_lang=en&p_isn=81509).
- ISSS(Institute of Social Science Survey, Peking University). China Family Panel Studies(CFPS) 2018.
- Marriage and Family Law. (2020).
- Ministry of Civil Affairs. China Civil Affairs Statistical Yearbook 1990-2020.
- Ministry of Civil Affairs. China Civil Affairs Statistical Yearbook 2020.
- Minors Protection Law. (2020).
- National Cooperative Group on Childhood Asthma,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and Related Product Safety, 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Third na

- tionwide survey of childhood asthma in urban areas of China. *Zhonghua Er Ke Za Zhi*, 51, 729-735.
- National Survey Research Center (NSRC)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China General Social Survey(CGSS)2006.
- National Survey Research Center (NSRC)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China General Social Survey(CGSS)2011.
- National Survey Research Center (NSRC)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China General Social Survey(CGSS) 2019. <http://cgss.ruc.edu.cn/English/Home.htm>.
- NBS(Chines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20). Poverty Monitoring Report on Chinese Rural Area, 2020.
- NBS. 1% National Population Sample Survey 1995.
- NBS. 1% National Population Sample Survey 2005.
- NBS. 1% National Population Sample Survey 2015.
- NBS. Census 1990.
- NBS. Census 2000.
- NBS. Census 2010.
- NBS. Census 2010. <http://www.stats.gov.cn/english/Statisticaldata/CensusData>.
- NBS. China Health and Family Planning Statistical Yearbook 2003-2019.
- NBS. China Health and Family Planning Statistical Yearbook 2019, Table 10-1-3.
- NBS. 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al Yearbook 1988-2017.
- NBS. 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al Yearbook 1991.
- NBS. 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s Yearbook 2011.
- NBS. China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s Yearbook 2020
- NBS. China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Statistical Yearbook 1992-2015, Table 8-1.
- NBS. China Population Statistical Yearbook 1989.
- NBS. China Yearbook of Household Survey 2017.
- NBS. China Yearbook of Household Survey 2020.
- NBS. Chinese Educational Yearbook 2019, Source of Educational Fund and Expenditure for Education in Various Schools.
- NBS. Chinese Women's Social Status Survey 2010. [http://www.gov.cn/xinwen/2019-01/25/content\\_5361065.htm](http://www.gov.cn/xinwen/2019-01/25/content_5361065.htm).
- NBS. National Time Use Survey Bulletin 2018.

- NBS.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s Yearbook 1996.
- NBS. Population and Employment Statistics Yearbook 2017.
- NBS. Statistical Bulletin on Health and Family Planning in China 2016.
- NBS. Statistical Bulletin on Health and Family Planning in China 2017.
- NBS. Statistical Bulletin on Health and Family Planning in China 2018.
- OECD. (2018). PISA. <https://www.oecd.org/pisa>.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https://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 OECD. PISA 2015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https://www.oecd.org/publications/pisa-2015-results-volume-i-9789264266490-en.htm>.
- OECD. PISA 2018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https://www.oecd.org/pisa/publications/pisa-2018-results-volume-i-5f07c754-en.htm>.
-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ational New Year's Day and Memorial Day Holiday Measures (Revised in 2013).
-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pecial Provisions on Labor Protection of Female Employees. <http://www.gov.cn>.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https://esa.un.org/unpd/wpp>.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 World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4.
- Yuesheng, W. (2014). An Analysis of changes in the Chinese family structur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on the basis of the 2010 National Census Data. *Social Sciences in China*, 35(4), 100-116.
- Zhong, F., & Wang, Y. (2015). A study of intrinsic population growth in China in the perspective of cohort: based on the comparison of two approaches estimating CFR. *Popul. Econ*, 2, 1-10.

### 3. 일본

- Blum, S., Koslowski, A., Macht, A., & Moss, P. (2018). support parents. Charities Aid Foundation(CAF). CAF WORLD GIVING INDEX 2016. <https://www.caf>

- online.org/about-us/publications/2016-publications/caf-world-giving-index-2016.
-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CSES). CSES Module 4: 2011-2016. <https://cses.org/data-download/module-4-2011-2016>.
- IDEA. (2020). Voter turnout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 ILO Travail Database. <https://www.ilo.org/dyn/travail>.
-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ISAAC). <http://isaac.auckland.ac.nz>.
- Ministry of Health and Labour and Welfare(MHLW). <https://www.mhlw.go.jp/english>.
-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Population Statistics. <http://www.ipss.go.jp/index-e.asp>.
-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he 15th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 [http://www.ipss.go.jp/ps-doukou/e/doukou15/Nfs15\\_gaiyoEng.html](http://www.ipss.go.jp/ps-doukou/e/doukou15/Nfs15_gaiyoEng.html).
- OECD. (2018). PISA. <https://www.oecd.org/pisa>.
- OECD. (2019c). Education at a Glance, 2019. [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19\\_f8d7880d-en](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19_f8d7880d-en).
- OECD. (2019e).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 OECD. (2021a).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https://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 OECD. PISA 2015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https://www.oecd.org/publications/pisa-2015-results-volume-i-9789264266490-en.htm>.
- OECD. PISA 2018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https://www.oecd.org/pisa/publications/pisa-2018-results-volume-i-5f07c754-en.htm>.
- SBJ. Labor Force Survey 2015.
- SBJ. National Time Use Survey(Each year).

- SBJ. Population census 2005. <https://www.stat.go.jp/english/data/chiri/map/index.html>.
- SBJ. Population census 2010. <https://www.stat.go.jp/english/data/chiri/map/index.html>.
- SBJ. Population Census 2015. <https://www.stat.go.jp/english/data/chiri/map/index.html>.
- Statistics Bureau of Japan(SBJ). <https://www.stat.go.jp/english/index.html>.
- Statistics Japan. <https://www.e-stat.go.jp/en>.
- The Human Fertility Database. <http://www.humanfertility.org>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https://esa.un.org/unpd/wpp>.
- United Nations. World Fertility Data 2017.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world-fertility-data>.
- WHO. (2017). WHO Mortality Database. <https://www.who.int/data/data-collection-tools/who-mortality-database>.
- World Bank. Doing Business: Measuring Business Regulation. <https://www.doingbusiness.org/en/doingbusiness>.
- World Gallup Survey, 2013-2015(version Sep 2015).
- World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4.

## 4. 몽골

-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IDF). <https://idf.org>.
- Law on Criminal.
- Law on Family.
- Law on Labor.
- Law on Pre-School education.
- Law 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 Law on Public Holidays and Anniversaries.
- Law on the fight against alcohol.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http://en.meds.gov.mn>.
-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Election statistics. <https://www.1212.mn>

/tables.aspx?tbl\_id=DT\_NSO\_0200\_003V1&13999001\_select\_all=0&13999001SingleSelect=\_t1&Parties\_select\_all=0&PartiesSingleSelect=\_3&YearY\_select\_all=0&YearYSingleSelect=\_2016&viewtype=table.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ealth statistics. [https://www.1212.mn/tables.aspx?tbl\\_id=DT\\_NSO\\_2100\\_047V1&13999001\\_select\\_all=0&13999001SingleSelect=\\_t2&SOUM\\_select\\_all=0&SOUMSingleSelect=\\_0&YearY\\_select\\_all=1&YearYSingleSelect=&viewtype=table](https://www.1212.mn/tables.aspx?tbl_id=DT_NSO_2100_047V1&13999001_select_all=0&13999001SingleSelect=_t2&SOUM_select_all=0&SOUMSingleSelect=_0&YearY_select_all=1&YearYSingleSelect=&viewtype=table).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Labor force statistics. [https://www.1212.mn/tables.aspx?tbl\\_id=DT\\_NSO\\_0400\\_035V3&13999001\\_select\\_all=0&13999001SingleSelect=\\_T3\\_T4\\_T5\\_T6\\_T7\\_T8\\_T9\\_T10\\_T11&SOUM\\_select\\_all=0&SOUMSingleSelect=\\_0&Sex\\_select\\_all=0&SexSingleSelect=\\_11&YearQ\\_select\\_all=0&YearQSingleSelect=&YearY\\_select\\_all=1&YearYSingleSelect=&viewtype=table](https://www.1212.mn/tables.aspx?tbl_id=DT_NSO_0400_035V3&13999001_select_all=0&13999001SingleSelect=_T3_T4_T5_T6_T7_T8_T9_T10_T11&SOUM_select_all=0&SOUMSingleSelect=_0&Sex_select_all=0&SexSingleSelect=_11&YearQ_select_all=0&YearQSingleSelect=&YearY_select_all=1&YearYSingleSelect=&viewtype=table).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Labour Force Survey 2007.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Labour Force Survey 2018.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Labour Force Survey 2019. [https://www.1212.mn/BookLibraryDownload.ashx?url=1.\\_report\\_LFS\\_mon\\_-\\_Copy.pdf&ln=Mn](https://www.1212.mn/BookLibraryDownload.ashx?url=1._report_LFS_mon_-_Copy.pdf&ln=Mn).

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statistics. [https://www.1212.mn/tables.aspx?tbl\\_id=DT\\_NSO\\_0300\\_051V2&13999001\\_select\\_all=0&13999001SingleSelect=\\_T3\\_T1&SOUM\\_select\\_all=0&SOUMSingleSelect=\\_0&YearY\\_select\\_all=1&YearYSingleSelect=&viewtype=table](https://www.1212.mn/tables.aspx?tbl_id=DT_NSO_0300_051V2&13999001_select_all=0&13999001SingleSelect=_T3_T1&SOUM_select_all=0&SOUMSingleSelect=_0&YearY_select_all=1&YearYSingleSelect=&viewtype=table).

NSO(Statistics Office of Mongolia). Child Development Survey 2005.

NSO. Child Development Survey 2010.

NSO. Education Statistics 2019.

NSO. Household Socio-Economic Survey. <http://web.nso.mn/nada/index.php/catalog/HSES/dataset>.

N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89.

N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00.

N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0.

NSO. Social Indicator Sample Survey 2013.

NSO. Social Indicator Sample Survey 2018.

- NSO. Statistical Yearbook 1992.
- NSO. Statistical Yearbook 1995.
- NSO. Statistical Yearbook 1996.
- NSO. Statistical Yearbook 1998.
- NSO. Statistical Yearbook 1998-2006.
- NSO. Statistical Yearbook 2001.
- NSO. Statistical Yearbook 2002.
- NSO. Statistical Yearbook 2005.
- NSO. Statistical Yearbook 2006.
- NSO. Statistical Yearbook 2009.
- NSO. Statistical Yearbook 2016.
- NSO. Statistical Yearbook 2019.
- NSO. Time Use Survey 2019.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https://population.un.org/wpp>.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https://esa.un.org/unpd/wpp>.
- World Bank. Social Indicator Sample survey 2013. <https://microdata.worldbank.org/index.php/catalog/2535>.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 5. 싱가포르

- DOS(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https://www.singstat.gov.sg>.
- DOS. (2016).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 DOS. Census of Population 2000.
- DOS. Census of Population 2010.
- DOS. General Household Survey 2005.
- DOS. General Household Survey 2015.
- DOS. Statistics on Marriages and Divorces.
- IDEA. (2020). Voter turnout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 Immigration and Checkpoint Authority(ICA). <https://www.ica.gov.sg/>
- Institute of Policy Studies(IPS). IPS Perception of Policies in Singapore(POPS) Survey 6: Perceptions of Singles on Marriage and Having Children, 2013.
- Ministry of Health. Population and Vital Statistics. <https://www.moh.gov.sg/resources-statistics/singapore-health-facts/population-and-vital-statistics>.
- Ministry of Manpower, Manpower Research and Statistics Department. (2021). Statistical Table: Income Median Gross Monthly Income from Work of Full-Time Employed Residents by Occupation.
- Ministry of Manpower. (2020). Labour Force in Singapore: Impact of COVID19 on the Labour Market.
-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https://www.msf.gov.sg/Pages/default.aspx>.
- Myrskylä, M., Goldstein, J. R., & Cheng, Y. H. A. (2012). New cohort fertility forecasts for the developed world. Rostock: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MPIDR working paper, WP-2012-014).
- 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Population in Brief(each year). <https://www.strategygroup.gov.sg/media-centre/publications/population-in-brief>.
- 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Population in Brief 2011.
- 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Population in Brief 2016.
- OECD. (2018). PISA. <https://www.oecd.org/pisa>.
- OECD. PISA 2015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https://www.oecd.org/publications/pisa-2015-results-volume-i-9789264266490-en.htm>.
- OECD. PISA 2018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https://www.oecd.org/pisa/publications/pisa-2018-results-volume-i-5f07c754-en.htm>.
- Registry of Births and Deaths Immigration and Checkpoint Authority Singapore. Report on Registration of Births and Deaths, 2016. [https://www.ica.gov.sg/docs/default-source/ica/stats/annual-bd-statistics/stats\\_2016\\_annual\\_rbd\\_report.pdf](https://www.ica.gov.sg/docs/default-source/ica/stats/annual-bd-statistics/stats_2016_annual_rbd_report.pdf).
- Registry of Births and Deaths Immigration and Checkpoint Authority Singapore. Report on Registration of Births and Deaths, 2020. [https://www.ica.gov.sg/docs/default-source/ica/stats/annual-bd-statistics/stats\\_2020\\_annual\\_rbd\\_report.pdf](https://www.ica.gov.sg/docs/default-source/ica/stats/annual-bd-statistics/stats_2020_annual_rbd_report.pdf).

- Singapore Government. (2016). Analysis of Revenue and Expenditure (Table 3.6B). UNESCO UIS. <http://uis.unesco.org>.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https://esa.un.org/unpd/wpp>.
- United Nations. World Fertility Data 2017.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world-fertility-data>.
-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https://www.who.int/data/gho>.
- World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4.

## 6. 태국

- Bureau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al Statistics in Brief 2009.
- Bureau of the Budget Office. Budget in Brief.
- Bureau of the Budget Office. Thailand's Budget in brief fiscal year 2020.
- Charities Aid Foundation(CAF). CAF WORLD GIVING INDEX 2016. <https://www.cafonline.org/about-us/publications/2016-publications/caf-world-giving-index-2016>.
-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CSES). CSES Module 4: 2011-2016. <https://cses.org/data-download/module-4-2011-2016>.
- Department of Health, Ministry of Public Health. <http://www.moph.go.th>.
- Department of Mental Health, Ministry of Public Health. <https://www.dmh.go.th/main.asp>.
- Department of Provincial Administration, Ministry of Interior. <https://www.moi.go.th>.
- IDEA. (2020). Voter turnout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IDF). <https://idf.org>.

- Ministry of Education, Official statistics registration systems, Department Of Provincial Administration. Educational Statistics in Brief 2019.
- Ministry of Education. [www.en.moe.go.th/enMoe2017](http://www.en.moe.go.th/enMoe2017).
- Ministry of Labour. <https://www.mol.go.th>.
- Ministry of Public Health. <https://www.moph.go.th>.
- Ministry of Public Health. Public Health Statistics. <http://www.moph.go.th>.
- Ministry of Public Health. Statistics on Adolescent Births Thailand 1995.
- Ministry of Public Health. Statistics on Adolescent Births Thailand 2019.
-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Child Support Grant Project.
- NSO(National Statistical Office). Labour Force Survey (Quarter 3) 2020. <http://www.nso.go.th/sites/2014en>.
- NSO. (2010). Report of 2009 Reproductive Health Survey. Bangkok: Statistical Forecasting Bureau.
- NSO. Labour Force Survey (Quater 3) 1985-2020.
- NSO. Migration Survey 2017.
- N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80.
- N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 Thailand 2010.
- NSO. The 2017 Disability Suvey.
- NSO. Time use survey 2015.
- OECD. (2018). PISA. <https://www.oecd.org/pisa>.
- OECD. PISA 2015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https://www.oecd.org/publications/pisa-2015-results-volume-i-9789264266490-en.htm>.
- OECD. PISA 2018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https://www.oecd.org/pisa/publications/pisa-2018-results-volume-i-5f07c754-en.htm>.
- 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 <https://www.krisdika.go.th>.
- Office of the Higher Education Commission. <http://www.oic.go.th>.
- Office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NESDC). [https://www.nesdc.go.th/nesdb\\_en/main.php?filename=index](https://www.nesdc.go.th/nesdb_en/main.php?filename=index).
-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https://www.thaigov.go.th>.
- Thai labour law.
- The office of Alcohol Control Committee.
- UNICEF. The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 2019.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index.asp>.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https://esa.un.org/unpd/wpp>.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 World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4.

## 7. 베트남

- Charities Aid Foundation(CAF). CAF WORLD GIVING INDEX 2016. <https://www.cafonline.org/about-us/publications/2016-publications/caf-world-giving-index-2016>.
- Civil Law, (2019).
- Criminal Law, (2017).
- Education Law, (2019).
- Global Asthma Report. <http://globalasthmareport.org>.
- GSO(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9. <https://www.gso.gov.vn/en>.
- GSO. 2018 National Survey on people with disabilities.
- GSO. Census 1979.
- GSO. Census 1989.
- GSO. Census 1999.
- GSO. Census 2009.
- GSO. Census 2019.
- GSO.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2012.
- GSO. Labour and Employment Survey 2018.
-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89.
-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99.
-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09.
-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0.
- G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9.

- GSO. Population dynamics and family planning 2005.
- GSO. Population dynamics and family planning 2013.
- GSO. Statistical Yearbook 2012. <https://www.gso.gov.vn/wp-content/uploads/2019/10/Nien-giam-2012-pdf-1.pdf>.
- GSO.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1992~2014.
- GSO.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2010~2018.
- GSO.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s Survey 2018. <https://www.gso.gov.vn/en/data-and-statistics/2020/05/result-of-the-vietnam-household-living-standards-survey-2018>.
- Health Statistics 2019.
- ICDS 1993.
- ILO. (2018). Global Wage Report 2018/19.
-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IDF). <https://idf.org>.
- Labour Law, (2019).
- Law on prevention of harmful effects of alcohol, (2019).
- Marriage and Family Law, (2020).
- National Assembly report 2021.
- OECD. (2015). PISA. <https://www.oecd.org/pisa>.
- Sample Survey 2020.
- Social Insurance Law, (2014).
- The Global Adult Tobacco Survey(GATS) 2015.
- UNESCO UIS. <http://uis.unesco.org>.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index.asp>.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 World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Wave 5: 2005-2009.
- World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4.

## 8. 인도네시아

- Addati, L., Cassirer, N., & Gilchrist, K. (2014). Maternity and paternity at work: Law

- and practice across the world.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Cabinet Secretary of Indonesia. <https://setkab.go.id/en>.
- Charities Aid Foundation(CAF). CAF World Giving Index 2021. <https://www.cafonline.org/about-us/publications/2021-publications/caf-world-giving-index-2021>.
- Global Asthma Report. <http://globalasthmareport.org>.
- Global Youth Tobacco Survey(GYTS) 2019.
- IDEA. (2020). Voter turnout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ttps://www.ilo.org>.
- ILO. (2020). Extending childcare services to workers in the informal economy: Policy lessons from country experiences.
- ILOSTAT Database. <https://ilostat.ilo.org>.
- ILOSTAT Database.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IHME). Global Burden of Disease Collaborative Network. <http://ghdx.healthdata.org/gbd-results-tool>.
-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IDF). <https://idf.org>.
- Marriage Law, (2019).
- Ministry of Trade Regulation.
-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 OECD. (2018). PISA. <https://www.oecd.org/pisa>.
- OECD. (2021a).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 OECD. PISA 2015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https://www.oecd.org/publications/pisa-2015-results-volume-i-9789264266490-en.htm>.
- OECD. PISA 2018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https://www.oecd.org/pisa/publications/pisa-2018-results-volume-i-5f07c754-en.htm>.
- Presidential Instruction No. 1 of 1994 on Compulsory Education.
- Singh, J. A., & Jogee, F. (2018). Age of Consent: Ethical, Cultural and Social Review -Indonesia Country Report 2018.
- Statistics Indonesia. <https://www.bps.go.id>.

- Statistics Indonesia, United Nations. 1998 Pilot Survey from 100 villages.
- Statistics Indonesia. Greater Jakarta Area Commuter Survey 2014.
- Statistics Indonesia.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1994.
- Statistics Indonesia.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7.
- Statistics Indonesia. National Socio-Economic Survey 2015. <https://www.bps.go.id>.
- Statistics Indonesia. National Socio-Economic Survey 2019 (March).
- Statistics Indonesia. National Socio-Economic Survey 2019.
- Statistics Indonesia. Number of Marriages, Divorces. <https://www.bps.go.id/linkTableDinamis/view/id/893>.
- UN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 <https://childmortality.org>.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http://uis.unesco.org>.
- UNICEF. <https://unfoundation.org>.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https://esa.un.org/unpd/wpp>.
-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 World Bank.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population-estimates-and-projections#advancedDownloadOptions>.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https://www.who.int/data/gho>.
- World Values Survey. World Values Survey Wave7, 2017-2020.

## 9. 말레이시아

-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DOSM).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0. <https://www.dosm.gov.my/v1/index.php>.
- DOSM. (2017). Abridged Life Tables.
- DOSM. 2015 Malaysia Economic Statistics, Time Series. [https://www.dosm.gov.my/v1/index.php?r=column/ctimeseries&menu\\_id=bnk3bk0wTTkxOXVHaVg3SUFDMIBUUT09](https://www.dosm.gov.my/v1/index.php?r=column/ctimeseries&menu_id=bnk3bk0wTTkxOXVHaVg3SUFDMIBUUT09).
- DOSM. Labour Force Survey 2019.
- DOSM.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70.

- DOSM.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80.
- DOSM.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91.
- DOSM.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00.
- DOSM.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0.
- DOSM. Vital Statistics. [https://www.dosm.gov.my/v1/index.php?r=column/cthemebByCat&cat=165&bul\\_id=T3Q0SEntcWxWdTFJa05QcHJiN0t1UT09&menu\\_id=L0pheU43NWJwRWVSZklWdzQ4TlhUUT09](https://www.dosm.gov.my/v1/index.php?r=column/cthemebByCat&cat=165&bul_id=T3Q0SEntcWxWdTFJa05QcHJiN0t1UT09&menu_id=L0pheU43NWJwRWVSZklWdzQ4TlhUUT09).
- Economic Planning Unit, Prime Minister's Department. Eleventh Malaysia Plan 2016-2020. <https://www.epu.gov.my/en/economic-developments/development-plans/rmk/previous-plans>.
- Employment Act, (1955).
- Government of Malaysia. Annual Budget 2021. <https://www.malaysia.gov.my/portall/category/350>.
- IDEA. (2020). Voter turnout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 ILOSTAT Database. <https://ilostat.ilo.org>.
- National Registration Department. <https://www.jpn.gov.my/en>.
- OECD. (2015). PISA. <https://www.oecd.org/pisa>.
- OECD. (2018). PISA. <https://www.oecd.org/pisa>.
- OECD. PISA 2015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https://www.oecd.org/publications/pisa-2015-results-volume-i-9789264266490-en.htm>.
- OECD. PISA 2018 Results (Volume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https://www.oecd.org/pisa/publications/pisa-2018-results-volume-i-5f07c754-en.htm>.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index.asp>.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https://esa.un.org/unpd/wpp>.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